

강진호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1950년대 동화 · 아동소설 연구
-반공주의를 중심으로-

200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선안나

강진호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1950년대 동화·아동소설 연구
-반공주의를 중심으로-

200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선안나

1950년대 동화 · 아동소설 연구
-반공주의를 중심으로-

강 진 호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선 안 나

인 준 서

선안나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고의 연구 목적은 1950년대 아동 산문문학을 대상으로, 반공주의 규율과 아동문학의 상관성을 살피는 데 있다. 1950년대 동화 아동소설은 따로 연구된 바가 없으며, 반공주의에 대한 문제의식도 찾아보기 어렵다. 연구자는 어린이들이 접하는 각종 아동문학 매체 가운데 교과서와 잡지, 단행본 분야의 일차 자료들을 검토하여 반공주의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그 실태와 의미를 정리하였다.

해방이 되었으나 좌우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한반도는 작은 전쟁 상황이었으며, 아동문학의 장에서도 저마다의 의견과 신념이 역동적으로 표출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작가들은 각자 남과 북의 체제를 선택하였으며, 각각 이념의 통일이 일어난 반쪽의 국가에서 더 이상 의견의 대립은 일어나지 않았다. 전쟁으로 인해 반공주의는 남한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었고, 국가는 전쟁에 관한 공식적인 태도인 ‘반공주의’ 외에 어떤 관점도 허용하지 않았다.

전시 상황에서 중앙집권적 권력을 확보한 국가는 전시교재를 발행하여 전국의 어린이에게 북한과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였다. 죽고 죽이는 전쟁 상황인 만큼, 전시 교재에는 북한군을 사람이 아닌 추상적 물질로 묘사하여 적대감을 한껏 부추겼다. 북한이 먼저 도발을 하였지만 남한도 그 못지않게 호전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고, 전쟁에 대한 책임 역시 공동의 몫이었다. 그러나 모든 책임은 ‘북한’에, 모든 고통은 ‘국민’에 전가한 채, 성공적으로 권력을 구축한 당시의 대통령 이승만은 반공주의를 확산시켜 지속적 지배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였다.

국가의 제도적 매체인 교과서는 ‘미래의 국민’인 어린이들 무의식에 반공 이데올로기를 심어주기에 더없이 적합하였다. 50년대 문교정책의 맨 첫 머리

에 반공을 놓여 있었으며, 전시교재에 실려 있던 적대적 반공주의의 내용은 정식 교과서에 상당부분 재수록 되었고, 학교와 교실 차원에서 반공 교육이 실천되었다. 그 무엇보다 전쟁 체험 자체가 생생한 교육이었기에, 많은 교육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50년대 말에 이르면 반공이 일상영역 깊숙이 자리 잡게 된다.

어린이들이 읽는 잡지 매체를 살펴보면, 전쟁 직후에 결성된 종군작가단 소속 작가들에 의해 반공소설이 처음 창작되었다. 전쟁 상황에서 ‘사상적 무기’로서 아동소설을 창작하였던 만큼 어린이의 개별성이나 아동문학의 고유성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으며, 북한과 남한을 선과 악으로 규정하는 양가치적 사고를 바탕으로 북한군을 타도의 대상으로만 묘사하였다. 인민군의 일차적 처단 대상자 중에는 친일 친미주의자 및 악덕 지주 등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공소설에서는 한결같이 선량한 피해자로만 묘사하였으며, 공식적 담론은 전체 국민 가운데 기득권층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양상이었다. 작품 외적인 ‘반공’이 너무나 정당하기에 작품 내적 논리는 쉽게 무시되었고, 1950년대 중반 이후에 오면 만연한 반공주의가 통속 오락성과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단행본으로 나온 반공주의 작품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그 까닭은 휴전 이후 종군작가들이 더 이상 목적소설을 창작하지 않았고, 기존에 창작했던 작품도 이념성이 강한 반면 문학성이 결여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책으로까지 묶어낸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반공주의는 남한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었는데, 분단의 고착과 함께 사회 통제의 원리로 기능하며 약자를 억압하는 기제로 발전해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반공주의가 정치 영역에서 위로부터 주어졌으나 법과 제도와 문화를 통해 일상 깊숙이 자리 잡게 됨에 따라, 각계각층에서 필요할 때마다 국가 안보를 들먹여 ‘소란’과 ‘혼란’을 손쉽게 통제할 수 있는 효율적 장치가 되었다.

이러한 반공주의에 대한 아동문학의 대응 양상을 보면, 종군작가들은 다급

한 전쟁 상황이었던 만큼 펜으로 싸운다는 마음으로 결집하였으나 휴전 후 본래의 영역인 일반문학의 소설 창작에 대부분 전념하였고, 공산주의 체험이 반공적 신념으로 굳어진 소수의 아동문학인들이 자발적 반공 의식을 지속적으로 보인다. 또 전쟁과 분단 과정에서 정신적 외상(trauma)을 입은 월남 작가들 역시 50년대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공 의식을 표출하는 경향이다. 이에 비해 좌익 전력이 있는 작가들은 전쟁에 관한 어떤 견해도 표명하지 않고 침묵하거나 정치 역사 현실과 거리를 둔 담론을 생성하였으며, 다만 환상적이고 상징적 기법의 동화에서 전체주의 관점이 아닌 고통 받는 개개인을 응시하고 그들의 내면을 대리 표현하는 일련의 움직임이 발견된다.

그러나 개인적 의도와 관계없이, 시대적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작가들은 자신이 처한 입장에 따라 반공주의를 강화함으로써 약자의 담론을 소외시키는데 일조하거나 자신의 언어를 억압당하기도 하였다. 한국 전쟁은 계급전쟁적 또는 내전적 성격을 일정하게 지니는 만큼 국민들은 저마다의 입장과 위치에서 각자 다른 전쟁 체험을 하였으나, 양쪽 국가의 공식적 전쟁 기억과 일치하는 사람들 - 주로 지식인, 문화인 등 기득권층의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신화화 하며 국가주의 관점을 다투어 대변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에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인 남북한 민중들은 양측 정권에 의해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였으며 자신들의 체험을 표현할 수 없었고 언어조차 소거당하였다. 승리자의 이데올로기를 다투어 대변한 작가는 많았지만, 추상적 ‘국민’이 아닌 ‘개개인의 약자’- 특히 ‘어린이’를 응시하고 그들의 삶, 욕망, 고통, 존재를 대리 표현한 작가는 너무나 드물었다는 점에서, 50년대 동화·아동소설은 왜곡된 시대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

목 차

논문개요

제 I 장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사 검토	6
3. 연구 방법	10
제 II 장 1950년대의 아동현실	14
1. 전후의 현실과 아동	14
2. 반공주의의 정착과 양상	23
3. 교육정책과 교과서	29
1) 반공 정책과 교육	30
2) 교과서와 반공의 규율	37
(1) 반공 체험의 절대화	37
(2) 친미·반북의식의 강화	42
(3) 전체주의적 시각의 전면화	50
제 III 장 아동문학과 반공주의의 상관성	60
1. 1950년대 동화·아동소설	60
2. 매체별 반공의 규율 양상과 특성	64
1) 잡지	65
(1) 1950년대 잡지와 반공주의	71

(2) 작품의 양상과 특성	76
① 전쟁 체험의 극대화	76
② 국가주의와 체험의 변형	81
③ 통속화와 상업주의	87
2) 단행본	90
(1) 1950년대 단행본 현황	96
(2) 반공주의의 두 양상	109
① 마해송의 『앙그리께』	112
② 강소천의 『그리운 메아리』	123
제 IV 장 반공주의와 1950년대 아동문학	136
1. 아동문학의 구현 양상	136
1) 전쟁 체험의 즉자적 수용	137
2) 일상 세태의 피상적 묘사	139
3) 환상과 상징의 세계	146
2. 한국아동문학사와 반공주의	151
제 V 장 결 론	157
참고문헌	160
ABSTRACT	168

<표목차>

- <표1> 1950년대 미망인에 딸린 부양자수
- <표2> 국가 통일·반공 정책과 교육정책, 실제 반공 교육 내용
- <표3> 1차 교육과정기 문교부 장학방침
- <표4> 전쟁 발발 전후 국어 6-1 비교
- <표5> 국민학교 『전시학습지도요항』 사회생활과 학습단원
- <표6> 국민학교용 전시교재 발행현황
- <표7> 전쟁 전후(前後) 『국어』 5-1 목차 비교
- <표8> 『국어』 5-2 교과서의 목차비교
- <표9> 경남선영국민학교 반공·방일교육의 자료와 실시계획안(1957)
- <표10> 반공 이데올로기 표출 작품
- <표11> 작가별 반공주의 작품 발표 편수
- <표12> 1950년대에 발행된 아동 도서(산문)의 성격 분류
- <표13> 아동문학인들의 창작집 외 단행본 출간 현황
- <표14> 1950년대 발행 창작 단행본 목록 (동화·소년소설·기타)
- <표15> 일반문학인의 아동도서 단행본 발간현황
- <표16> 1950년대 아동문학인 발간 창작집 현황
- <표17> 반공 이데올로기 함유 작품집 목록

제 I 장 서 론

1. 연구 목적

1950년대는 반공주의 규율이 법과 제도 및 일상의 차원에 자리를 잡게 된 시기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1950년대 동화·아동소설을 중심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과서, 잡지, 단행본, 매체에 반공주의 규율이 적용되고 전개되는 양상을 실증적으로 밝히는 데 있다. 그러한 작업과정을 통해 사회 문화적 담론의 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어린이의 삶을 조명하고, 다른 나라와 많은 차이를 보이는 현대 한국 창작 동화·아동소설의 특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1950년대 아동문학을 살피는 과정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어린이 주체 형성에 작용한 다양한 요소들이다. 어느 누구도 그 시대의 정치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특히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는 어린이의 삶은 시대 환경과 어른들의 태도 여하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1950년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어린이의 삶을 따로 살핀 사례는 없기에, 문학 연구에 앞서 어린이 주체가 놓인 현실 상황을 그들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는 1950년대 아동 산문문학을 전반적으로 살피되 반공주의의 규율을 중점 검토할 것인데, 여기서 반공주의란 ‘공산주의에 대하여 적대적이고 배타적인 논리와 정서’를 말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북한 공산주의 체제 및 정권을 절대적인 악과 위협으로 규정하고 그것의 철저한 제거 또는 붕괴를 전제’하는 말을 뜻한다. 그런데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은 데다 분단이 지속되었고, 역대 정권이 ‘국가안보’를 빌미로 반공주의를 끊임없이 이용하면서¹⁾ 한국

1) 강준만, 『희생양과 죄의식』, 개마고원, 2004. 292~293쪽.

에서 반공주의는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모든 대항적 움직임에 억압하는 만능 도구²⁾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국가 권력은 법과 제도 및 물리적 폭력을 통한 지배 뿐 아니라 교육과 문화 일상의 영역에서 다양한 상징조작을 통해 특정 이데올로기를 지속적으로 관철시켜왔고, 이로 인해 독재의 뿌리 깊은 대중적 지지 기반이 마련되었다.

3) 그렇다면 분단 이후 50년이 넘도록 한국 사회의 불평등한 질서를 정당화하고, 보호하고, 그것을 재생산하게 하는 반공 규율 권력을 누가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 타자(他者)의 신체에 새겼을까. 주체는 하나의 자명한 출발점이라기보다 사회적 역사적 과정을 통해 구성되고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세상과 처음 만나고 주체를 구성해가는 어린이를 각별히 주목하게 된다. 어린이의 ‘어린이성’을 표적으로 하여 어른들이 자신의 희망과 기대를 위탁한 것은 20세기 근대적 특징 가운데 하나⁴⁾이며, 한반도에서도 어린

6•25 전쟁중 반공을 명분으로 갖은 학살과 약탈, 강간 등 지옥을 방불케 하는 일들이 발생했다. 이 시절 사람들은 스스로 이성을 포기하고 동물의 세계로 내려가고자 했다. 한국전쟁을 통해 우리는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반공투사가 되어갔던 것이다. (...) 박정희 시절 반공은 ‘발전’의 다른 이름이었다. 박정희는 반공을 넘어 승공(勝共)과 멸공(滅共)주의를 천명했고, 모든 국가 정책과 국민들의 일상적 삶마저도 승공과 멸공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개인의 인권은 탄압되었다. 박정희는 인권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북한 공산당의 사주를 받은 불온 세력으로 몰아갔다. 이런 메카시즘과 ‘공포정치’는 전두환 정권에까지 계승되었다. (...) 80년대 말 유례없는 경기 호황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올라가니까 각자 보호할 가치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것이 흔들릴까봐” “보수 성향이 심해”진 것이다. 증산층 신화 속에서 자발적인 반공의식이 강화되었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이런 ‘증산층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 지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2)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2: 국가보안법 적용사』, 역사비평사, 1992. 384쪽.

“제 5공화국의 폭압적인 통치 아래서 ‘간첩’과 거리가 먼 일반 ‘시국사범’까지 엄청난 고문과 조작 속에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이 되어가는 것을 계속 목격하면서 ‘간첩’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오게 되었다“

윤재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확실한 넌센스」, 『실천문학』, 1999년 겨울호. pp.89-90.

“푸른 수위에 왼쪽 가슴에 빨간 번호표를 단 사람도 그게 드물어야 저게 바로 ‘국보’야 하며 쭈근대기도 했겠지만 너무 혼하고 보니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러니 국가보안법도 이데올로기의 그 푸르던 칼날은 이미 꺾어지고 한낱 정치범 양심수들을 오히려 위한 도식적이고 편의적인 분류표에 불과했던 것이다“

3) 고길실, 『우리 시대의 언어게임』, 토담, 1995. 233쪽.

“대중들은 스스로 반공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스스로 ‘반공하는 삶’의 주체로 만들었다. 이것은 민주화운동이나 통일운동 등 현실변혁을 무력화/지연시키는 커다란 장애물이 되었다. 왜냐하면 정부에 대해 무슨 뼈대거리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좌경’, ‘용공’, ‘이적단체’, ‘북괴동조’ 하면서 ‘빨갱이’로 몰아 부쳐왔기 때문이다. 저항자들은 ‘빨갱이’라는 말에는 꼼짝없이 주저앉고 만다. 그 ‘빨갱이’의 멍에 걸리지 않기 위해 대중들은 항상 반공하는 삶이어야 했다.”

이는 이념상의 무구함과 신체적 미래성 때문에 ‘이데올로기적 신념의 수용기(受容器)’로 적극 활용되어 왔다.⁵⁾ 그렇다면 왜곡된 근현대사와 아동문학은 어떤 영향관계를 갖고 있을까? 1950년대 어린이의 실제 삶은 어떠했으며, 작가들은 그들의 현실을 어떻게 수용하고 표현하였을까? 전후(戰後) 한국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로인 반공주의 규율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형성시켰으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각 매체는 어떤 양상으로 수용하였을까? 이 연구는 이러한 물음들에서 출발하였다.

해방 이후 40년대 후반에 좌우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충돌은 이미 극한 상황에 이르러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전면전 발발을 우려하였다. 그러나 각각 자신이 중심이 된 국가를 세우고 싶었던 남과 북의 지도자는 민족 대부분의 열망한 타협 대신 최악의 분쟁 해결방법인 전쟁을 선택하였고, 민족 전체의 희생과 고통 위에 두 개의 국가를 수립하였다. 국가의 세 요소인 주권, 영토, 국민 가운데 주권과 영토를 부분적이거나 확보한 남과 북의 정권은, 각각 ‘국민 만들기’에 돌입하였다. 이때 38선 남쪽에서는 냉전적 사고에 기초한 반공주의로 ‘국민’과 ‘비국민’을 구별하였고, 비국민을 차별 배제 억압하는 방식으로 국민을 형성하였다. 환도 후 남한 정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부역자 색출이었으며,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적과 우리 편을 심사함으로써 국민임을 증명하게 하였다.⁶⁾ 물론 해방공간에서도 반공주의는 있었지만 아직은 초기의 정비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북한의 침략사실과 고통스러운 전쟁 체험 때문에 반공주의는 단숨에 남한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4) 혼다 마스코, 구수진 옮김, 『20세기는 어린이를 어떻게 보았는가』, 한림토이북, 2002, 87쪽.

5) 일제는 미래의 충실한 ‘황국신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민학교’를 세우고 국가의 이념에 맞는 교과과정과 각종 규율을 통해 어린이의 정신, 마음, 신체를 길들였으며, 좌우익도 어린이의 삶, 꿈, 욕망을 대리 표현하기 보다 어른인 자신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이념, 가치들을 아동문학에 투사하였다.

6)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0, 63쪽.

한국전쟁 당시 ‘피난’은 ‘국민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징표였다. 9. 28 수복 직후에는 피난 여부가 ‘반공’의 표식이 되었는데, 피난 가지 않은 자는 ‘반역’의 대열에 얼쩡거린 자로 지목되어 온갖 고초를 겪었으며, ‘서자’ 혹은 ‘이등 국민’ 취급을 당하면서 의심과 감시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었다.

한국의 아동문학도 전쟁과 분단의 과정에서 큰 충격과 변화를 겪었다.

첫째, 좌우 문인들의 대거 이동에 따른 인적 자원의 개편과 이념의 통일을 들 수 있다. 남쪽에서 활동하던 윤복진, 신고송, 현덕 등 많은 작가들이 북한으로 간 반면, 강소천, 김요섭, 박홍근 등 북한 출신 작가들이 남한에서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아동문학계에도 각각 이념의 통일이 일어났다. 그와 함께 각 국가의 공식 이념과 다른 종류의 담론은 일체 억압됨으로써, 남북한의 아동문학과 작가는 각각 표현의 자유를 제한 당하게 되었다.

둘째, 아동 산문문학 시대가 본격 개막되었다. 해방 이후 40년대 후반에 이미 아동소설의 양적 증가현상이 두드러지긴 하였으나 뚜렷한 세를 형성하는데는 이르지 못했는데, 한국전쟁을 계기로 아동문학은 완전히 산문문학 시대로 중심이 옮겨지게 되었다. 전쟁의 극단적 체험을 담기에 운문 양식은 한계가 있었기에, 현실을 직설적으로 그린 소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 아동소설의 90% 이상이 전문 아동문학인이 아닌 ‘중군작가단’에 소속된 일반 소설가들의 의해 창작되었다. ‘총검을 대신하여 붓으로 자유와 조국을 위해서 싸우고자’⁷⁾ 한 것이 중군활동의 취지였고, 아동소설 창작 역시 사상전 승리를 위한 ‘무기’였으므로 문학성이나 어린이 독자의 특성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 즉 반공주의 아동소설은 한국전쟁의 직접적 산물이자, 세계 어느 나라와도 다른 한국 아동문학만의 특수한 성격을 형성시킨 부정적 진원지가 된다.

한편 50년대 남한의 반공주의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졌다. 정치적 목적의 이념 지향, 종교적 신념, 동족의 살육을 초래한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과 북한 정권에 대한 분노, 인민군에 의한 고통과 공포 체험⁸⁾, 개인적 이익을 위

7) 김동리, 「전쟁과 문학의 근본문제」, 『협동』 35호, 1952. 6. 참조.

8) 김성철, 『역사 앞에서: 한 사학자의 일기』, 창작과 비평사, 80~81쪽.

“그저께 마을에서 반을 통하여 한 집에 한 사람씩 성군관 앞으로 모이라기에 나가 보았더니 청년 몇 사람을 끌어다놓고 파발총을 멘 인민군들이 군중을 향하여 ‘이 사람이 반동분자요, 아니요?’ 하고 물으매,

한 반공주의의 남용, 폭력과 규율을 내면화한 무자각적 주체 등, 같은 반공주의의 입장이라 해도 저마다의 처지와 체험에 따라 성격과 정도가 달랐다. 또 남한과 북한이 번갈아 영토를 점령 재점령하는 과정에서 인민군 뿐 아니라 국군과 유엔군에 의한 국민의 피해도 많았고 민간인들끼리 사적인 보복이 이어졌으며, 지원이든 징집이든 가족이 인민군에 소속되거나 월북·납북된 경우도 많아 전쟁에 대한 국민의 개별 체험이나 입장은 대단히 다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반공주의자라 하더라도 하나의 ‘전체’로서 논할 수 없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 속에서 개별적으로 살피지고 논해져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실지로 이 시기 많은 민중에게 중요했던 것은 생존이지 어느 특정 집단의 정통성이나 이데올로기의 우월성 여부는 아니었다.⁹⁾ 그런데 푸코가 전투에 대한 체험과 기억의 정치적 변형을 ‘지배적 앎’과 ‘예속된 앎’으로 구분하였듯, 남한과 북한에 세워진 두 ‘국가’는 각각 전쟁에 대한 체험과 기억을 독점하여 ‘공식적’ 전쟁 기억만을 국민들에게 허용하였고, 그와 대립되거나 상이한 종류의 ‘앎’은 ‘유언비어’ 또는 ‘불온한 생각’으로 억압하였다.¹⁰⁾ 남북한 국민 모두 국가 권력이 허용하는 절반의 담론밖에 발화할 수 없게 된 것인데, 이때 남한의 ‘공식적 전쟁 기억’은 ‘반공주의’ 입장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전쟁 이전 해방 공간의 아동문학 담론을 살펴보면, 좌우 이데올로기의 투사 못지않게 건강한 민족의식과 날카로운 비판 의식도 살아 있어 사고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주체이자 아직은 특정 지배 권력에 포획되지 않은 자주적 주체로서 한국 아동문학의 시

모두들 기가 질려서 아무 말이 없는데 그 중에 한두 사람이- 나중에 생각해보니, 아마도 그들을 적발한 사람인 듯- ‘약질 반동분자요’ 하고 소리치니 두말없이 현장에서 총을 쏘아 죽이는데, 그 피를 뿜으면서 버둥거리다 숨지는 양이 보기에 하도 징그러워서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와 버렸다 한다. 그 죽은 청년들이 어떤 반동 행위를 했는지 군중은 알지 못한 채.”

9) 강진호, 『현대소설사와 근대성의 아포리아』, 앞의 책, 5쪽.

10) 김동춘, 앞의 책, 26쪽.

원적(始原的)힘과 에너지를 보여준다.¹¹⁾ 그러나 각각 이념의 통일이 일어난 전후(戰後) 남북한 아동문학에서 이러한 다양성과 역동성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문학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자유로운 사상과 신념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 서, 북한의 아동문학 역시 정치권력에 어떤 영향을 받아 어떤 양상으로 왜곡 되었는지 따로 연구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우선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남한의 아동문학이 전후에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지배 이데올로기인 반공주의가 매체별로 어떻게 구현 되는지 그 구체적 실태를 비판적으로 살피는 데서 연구를 시작하고자 한다.

2. 연구사 검토

아동문학에 대한 연구는 일반문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논문은 작가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기본적으로 탐구한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아직 반공주의와 관련된 문제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비해 사회학 분야에서는 오래 전부터 1950년대 역사적 상황에 대해 깊은 문제의식을 가져왔고 상당히 축적된 학문적 성과를 쌓았으며 반공주의의 폐해에 대한 보편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이다.¹²⁾ 일반문학에서도 아직은

11) 『아동문학』(조선문학가동맹 아동문학위원회 기관지), 1947. 『아동문화』, 동지사아동원, 1948. 『새동무』, 1946~48 등 해방 공간에서 발행된 잡지에는 다양한 경향의 창작품 및 거침없는 비판, 이론적 논의, 민족 현실에 대한 고민과 모색, 겨레의 일원인 어린이들에게 정치 사회적 현실을 올바르게 알려주려는 배려와 노력 등이 담겨있다.

12) 주요 관련 저서 및 논문을 일부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강만길, 『분단 시대의 역사 인식』, 창작과 비평사, 1979.

강준만 외, 『레드 콤플렉스』, 삼인, 1997.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0.

김득중, 『여순사건과 이승만 반공체제의 구축』,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 2003.

김현식, 『색깔논쟁』, 새로운 사람들, 2003.

리영희, 『반세기의 신화』, 삼인, 2000.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1, 2, 3』, 역사비평사, 1989.

초기 단계이겠지만 사회학적 문제의식을 문학의 장(場)에 적용하여 반공주의와 문학의 영향관계를 탐구한 글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고 보다 섬세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¹³⁾

그러나 2005년 현재까지 아동문학에서 반공주의를 주제로 삼거나 비중 있게 다룬 논문은 거의 찾을 수 없으며, 본고에서 다루게 될 1950년대 주요 활동 작가들에 대한 개별 논문이 소수 존재할 뿐이다.¹⁴⁾

반공주의 관계 연구는 아니지만 1950년대 아동문학 단행본 현황을 개괄함에 있어 이재철의 『세계아동문학사전』¹⁵⁾을 주요 참고 자료로 삼았고, 일제강점기부터 70년대 말까지 아동문학의 역사를 서술한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연구』¹⁶⁾도 시대적 역사적 흐름 속에서 1950년대의 아동문학을 조망하는데 참고가 되었다.

박지현,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1992.

역사학연구소, 『1950년대 반공이데올로기와 감시 동원체제』, 역사학연구소 제1회 워크숍 자료집, 2003.11.2.

임지현 외, 『우리 안의 과시즘』, 삼인, 2000.

조한혜정, 『탈분단시대를 열며』, 삼인, 2001.

진방식, 『분단 한국의 매카시즘』, 형성사, 1997.

한승주, 『1950년대의 인식』, 한길사, 1981.

한지수, 『한국 전쟁이 반공 이데올로기형성 과정에 미친 영향』, 고려대 대학원 석사, 1991.

13) 관련 글과 저서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강진호, 「탈분단을 위한 마음의 감옥 열기」 외, 『탈분단 시대의 문학논리』. 새미, 2001.

강진호, 「반공주의의 소설 • 사회학적 기능」, 『현대소설사와 근대성의 아포리아』, 소명출판, 2004.

김병익, 「분단의식의 문학적 전개」, 『문학과 지성』, 1979. 봄.

백낙청, 「분단시대 문학의 사상」, 『씨알의 소리』, 1976.

임현영, 「분단시대 문학론고」, 『민족의 상황과 문학사상』, 한길사, 1986.

상허학회, 『반공주의와 한국문학』, 상허학회 심포지엄 자료집, 2005. 5. 28.

14) 김재규, 『마해송 동화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 1982, 외 마해송 연구 12편.

채찬석, 『이원수 동화 연구』, 송실대, 1986, 외 이원수 연구 9편.

정춘자, 『이주홍 연구』, 단국대 석사, 1990, 외 이주홍 연구 5편.

남미영, 『강소천 연구』, 숙명여대, 1980, 외 강소천 연구 3편.

김성완, 『박홍근 동시의 상상력 연구』, 교원대 석사, 1997, 외 박홍근 연구 1편

이혜주, 『김요섭 동화 연구』, 서강대 교육대학원 석사, 1997.

정선혜, 『한국 기독교 아동문학 연구』, 성신여대 박사, 2001.

15) 이재철, 『세계아동문학사전』, 계몽사, 1989.

16) 이재철, 『한국 현대 아동문학사 연구』, 단국대 박사논문, 1978. 같은 해 단행본 발간,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22쪽.

분단 관련 글로 최 용, 김관식, 제해만, 최지훈, 허형만, 김재창, 이준구의 논의가 있는데, 모두 ‘통일’을 전제로 삼고 문학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지향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¹⁷⁾ 그러나 회복해야 할 동질성의 내용에 대한 성찰이 결여되어 있고, 냉전적 사고 극복을 당위로 제시하지만 선행되어야 할 체제 반성적 시각은 나타나지 않는다. 분단관련 소재 동화를 분석한 이윤희의 『분단체제 동화의 유형 연구』¹⁸⁾는 분석 작품의 양이나 질의 측면에서 전체성을 반영하지 못하는¹⁹⁾ 아쉬움이 있으며, 반공주의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도 아직 보이지 않는다.

아동문학과 반공주의의 문제를 정면 거론한 글로는 권오삼의 「분단조국과 아동문학의 역할」²⁰⁾이 있다. 권오삼은 이 글에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은 50년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60년대와 70년대에 들어서서도 반공 이데올로기는 우리 국민들의 정신을 지배한 강력한 이념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였다. 그 어떤 것도 ‘이 괴물보다 우선할 수 없었으며’ 실령 ‘민족애에 바탕한 작품이라 해도 해석 여하에 따라 사상을 의심’ 받아야 했고, 심하면 ‘빨갱이라는 굴레를 씌워 매도’하려 했다며 문제를 제기한다. 그런데도 아동문학은 ‘동심 문학, 낭만주의 문학, 순수문학’을 주장하며 현실을 그리는 작품은 아동문학의 본령을 벗어난 것으로 치부하고 부정하려고만 했으며, 그러면서 ‘독재 정권의 이념에 충실한 작품을 쓰는 자기모순’에 빠지기도 했다고 날카롭게 비

17) 최용, 「분단시대의 아동문학」, 『아동문학평론』, 1987, 가을호.

김관식, 「민족동질성을 지향하는 분단극복의 문학」, 『아동문학평론』, 1991, 가을호.

제해만, 「통일지향의 아동문학」, 『아동문학평론』, 1994, 가을호.

허형만, 「민족통일과 아동문학」, 『아동문학평론』, 1994, 가을호.

최지훈, 「휴전선, 그 흥부 놀부의 박」, 『아동문학평론』, 1994, 가을호.

김재창, 「통일에 대비한 아동문학」, 『아동문학평론』, 1997, 여름호.

18) 이윤희, 『분단체제 동화의 유형연구』, 중앙대 문예창작대학원 석사, 1999.

19) 仲村修의 『이원수 동화연구』 (인하대 석사, 1993)에 따르면 분단 관련 창작품 목록이 20편으로 나타난다. (p.29) 한국의 분단현실에 대해 가장 치열하고도 지속적인 문제의식을 보여 온 작가가 이원수인데 이 논문에서 아예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전쟁과 분단의 직접 체험 세대 작품이 거의 누락되어 있다.

20) 권오삼, 『아동문학평론』, 1997, 여름호.

관하였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은 ‘아동문학인들의 생각과 시선이 어떤 틀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매어 있었던 탓’이라고 진단하며, 권오삼은 새로운 역사관을 가지고 진정한 통일문학을 창작할 것을 주문하였다. 반공 이데올로기와 아동문학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비판의 칼날을 처음으로 남한 체제 내부로, 아동문학 내부로 향하였다는 점에 이 글은 의의가 있다.

이상으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어른과 동등한 인격이면서도 발달과정상 미숙한 단계에 있는 어린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사회 전반적으로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문 분야에서도 아동문학 연구 실태는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며, 특히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반공주의에 대한 비판적 관점 자체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현실 참여와 역사의식을 강조하며 날카로운 비평 활동을 해 온 60~70년대의 이원수나 80~90년대 이오덕의 평론에서조차 반공주의를 비판적으로 문제 삼은 글은 찾아볼 수 없고²¹⁾ 피해의식의 편린²²⁾만 발견할 수 있다는 데서, 아동문학 분야에서도 반공주의가 문인들의 의식과 표현에 얼마나 크게 영향하였는가를 짐작해볼 수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실제로 1950년대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각종매체에 반공주의가 어떤 양상으로 구현되었는지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혼

21) 권오삼에 따르면, 이원수, 이오덕이 함께 만나는 사적인 자리에서는 반공주의 동화에 대한 비판이 자주 제기 되었다고 하는데, 90년대 말에 나온 이오덕의 평론집 두 권에도 반공주의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다.

22) 이원수, 「아동문학의 방향」, 『아동문학』, 1963. 7.

“현실을 이야기하면 과장 폭로니 뭐니 하고 불온시하는 이들, 아이들의 가없는 생활을 그리면 무슨 좌익 사상으로 한 것처럼 말하는 인사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 아동문학 작품들은 대개가 장난감의 구실밖에 못하는 형편이 되어간다.”

「나의 문학 나의 청춘」, 『월간문학』, 1974. 2.

“그 탁한 물결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버티는 소수 작가들은 불온 작가라는 모함까지 받아야 했었다.”

이오덕, 「지은이와 작품에 대하여」, 『이원수 아동문학전집 2』, 웅진출판, 1983.

“이 작품(이원수의 숲 속 나라)이 그 뒤로 이따금 논란거리가 되었다. 일부 관제 언론을 배경으로 문단을 점거하고 있는 이들이 선생을 어떤 불온한 경향성을 띤 작품을 쓰는 사람으로 몰아붙일 때 주로 이 작품을 논란한 것이었다.”

란기에 통속 작품들만 범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1950년대 아동문학에 대한 재인식과 재평가도 요청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고는 이러한 과제들을 수행하고자 하며 반공주의가 작동한 문학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3.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후부터 1950년대 말까지 발행된 교과서, 아동 잡지, 단행본, 교과서 등에 실린 산문 문학을 찾아서 읽고, 반공주의 모티프를 확인하는 데서 출발한다.

문학은 특정한 사회·역사적 문맥 안에서 성립되고 정의된다는 점에서, 각 시기의 문학은 저마다 다른 양식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즉 문학 텍스트를 둘러싼 사회적 조건은 한 시대의 담론양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외적 결정소로 작용하므로, 본고에서는 1950년대의 사회적 환경을 살피면서 이 시기 아동문학 담론의 양식적 특성과 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체제 사이에 벌어진 세계적 냉전 구도 안에 남한과 북한이 편입됨으로써 한국사회는 서구 자본주의 체제의 일원이 되었고, 분단 이후 한국 내부의 갈등 축은 좌우파의 대립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민주적 양식과 독재적 양식간의 충돌로 옮겨가게 되었다. 서구 자본주의 생활양식이 물밀 듯 쏟아져 들어오는가 하면 전근대적 생활양식이 나란히 공존하였고, 유교적 이념이 일상의 삶을 규율하는가 하면 반공주의가 사회적 삶을 통제하는 절대 이념으로 작용하는 등, 1950년대 사회는 비동시적인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마주치는 공간이었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 환경은 아동문학에서도 다양한 양식을 대립·교차하게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50년대 아동문학의 전체성을 거시적으로 조망하기보다 핵심적 사회적 결정소의 하

나인 반공주의를 미시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전체성을 지향하고자 한다.

남/녀, 어른/어린이 주체가 동등한 인격체로서 저마다의 관점을 가질 수 있고, 아동문학은 표현능력이 미비한 어린이들로부터 그들 삶, 꿈, 욕망의 표현 일체를 위임받은 문학인만큼, 본고에서는 어린이 주체를 항상 중심축에 놓고 논의를 전개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자 하는 바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역사 사회학, 아동학, 일반 문학 분야에 축적된 관련 연구 성과를 살펴 적절히 원용할 것이나, 문학연구로서 아동 문학 텍스트 자체를 담론의 출발점이자 도달점으로 삼을 것이다.

구체적 연구방법으로는, 2장에서 예비적 고찰 첫 번째로 1950년대라는 전쟁기의 특수한 환경 속에서 한반도의 어린이들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아동 현실을 먼저 알아보기로 하겠다. 이 시기에는 고아, 기아, 미아 등 요보호 아동이 대량으로 발생하였는데, 언론 보도 자료 및 각종 통계 자료 등을 통해 아동 현실을 살펴보고 정부의 아동 복지 정책도 함께 검토하도록 한다. 두 번째로 본고의 중심 주체가 반공주의인 만큼, 한국에서 반공주의는 어떤 함의를 갖는지 개념의 형성 및 전개 과정을 역사적 상황 속에서 정리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1950년대 반공의 규율을 밝히는데 교육은 근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문학과는 분명 다른 영역이지만 심도 있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시는 전쟁으로 정치권력이 중앙집권적으로 강화되어 있었고 교육 또한 정치권력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기에 각종 학교 규율과 신체적 훈육을 통해 학령기 어린이에게 지배 이데올로기가 전면적으로 주어졌으리라 짐작되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도록 한다.

본론인 3장에서는 아동문학과 반공주의 작품의 상관성을 폭넓게 찾아볼 것이다. 먼저 1950년대 동화·아동소설의 전반적 흐름을 개괄하고, 잡지 매체와 단행본 매체로 나누어 반공의 규율 양상과 특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잡지 매체는 1950년대의 대표적 아동문학 잡지인 『소년세계』 1952년 8월부

터 1956년 10월까지 발행본 40권 및 『새벗』 1957년 1월부터 1959년 12월까지 발행본 32권, 그리고 피난지인 부산지역에서 발행한 『파랑새』 1952년 9월호부터 1953년 2월호까지 6권을 핵심 분석 텍스트로 삼고, 중·고등학생이 주요 독자대상이었지만 독서력이 있는 고학년 어린이도 읽었던 『학원』 일부를 함께 검토한다. 각 잡지에 실린 반공 모티프의 작품을 따로 추출하여 목록표를 작성하고 잡지별, 작가 유형별, 발표 편수별 등으로 다각도로 살펴보고, 문학의 영역에 반공주의가 어떤 계기로 하여 주어지며 그 성격은 어떠한지 정리 분석할 것이다.

단행본 매체는 1950년대에 발행된 단행본 가운데 산문(이야기)문학 현황을 전반적으로 개괄하고, 창작과 번역(번안)물, 전래동화, 그림동화, 교육 등으로 분류하여 먼저 전체적인 특징을 짚어본다. 이를 통해 현대 아동도서 초기 출판물 성격과 아동문학 장(場)의 형성 원리를 어느 정도 해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전체 도서 가운데 반공 이데올로기 함유 작품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본고의 중점 과제인 만큼 초점은 그 부분에 놓일 것이다. 교과서나 잡지에 비하여 목적 문학인 반공소설을 단행본으로 묶은 경우는 드문 편이지만, 독자의 자발적 흥미나 감화를 통한 내적 설득구조를 지닌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은 더욱 강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50년대의 대표적 작가로서 명확한 반공주의 입장을 표명한 마해송, 강소천의 작품을 집중 분석하여 반공주의의 성격과 의미를 섬세하게 밝혀볼 것이다.

마지막 제 4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반공주의와 1950년대 아동문학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본다. 이 시기 동화·아동소설의 구현 양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반공 체험을 즉자적으로 수용한 유형과 일상적 세태 묘사에 치중한 유형, 환상과 상징 기법의 동화를 지향한 유형과 자의적이고 현실 도피적인 작품유형이 있다. 이 가운데 네 번째의 경우는 문학보다 문화의 영역에서 더욱 다양한 해명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하여 본고의 논의에서 제외하며, 앞의 세 유형을 통해 당시 작가들이 반공 이데올

로기를 수용 또는 회피하는 방식을 고찰하고, 그런 가운데 드러나는 비(非) 반공 또는 탈반공적 관점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반공주의와 한국 아동문학의 영향 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히고, 궁극적으로 1950년대 아동문학의 특성과 문학적 의의를 폭넓게 드러낼 것이다.

제 II 장 1950년대의 아동 현실

1. 전후의 현실과 아동

어린이의 삶은 그 시대 그 사회의 경제구조, 가족조직 및 어린이 위치와 관련하여 성인들이 어린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어린이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공적 태도는 어떠했는지 간략히 살펴보자.

우리나라에 근대적 의미의 아동복지 관련 사업이 시작된 것은 개화기 이후 외국 종교단체들이 들어와 선교활동을 겸하여 육아 및 구호사업을 실시한 것이 시초이다. 공적 부조의 법규 시초는 일제가 1944년 3월 1일 자국의 ‘구호법’을 토대로 하여 12년 늦게 제정한 ‘조선구호령’이다. ‘모자보건법’ ‘의료보호법’ 등이 종합되었다고 하지만, 조선구호령의 실제적 성격은 조선인을 학도병이나 징용으로 차출하기 위한 대가로 지불한 치안상의 선심정책에 불과했다. 해방 후 미군정시대에는 기아방지, 최저생계 유지, 의료보호 등을 위해 1946년 아동노동법규(어린이 노동보호)가, 1947년에는 미성년자 노동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과도기의 사회 혼란에 대처하기 위해 임시방편적인 행정 각서와 행정 지침을 발부하는 정도였지, 미군정 당국은 체계적인 복지제도의 발달에는 관심이 없었다.²³⁾

그러다 1948년 남한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50년대 내내 어린이를 위한 어떤 복지 정책도 세우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는 어린이에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 문교부는 ‘우리의 맹세’를 제정하여 어린이들이 읽는 모든 종류의 책에 빠짐없이 인쇄하게 하고 각급 학교에서 날마다 외우게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3) 김명남, 『아동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정책경영대학원, 석사, 2001, 6쪽.

첫째,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 딸,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둘째,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침략자를 쳐부수자.

셋째,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날리고 남북통일을 완수하자.

국가는 1949년 7월부터 전 국민이 읽는 모든 잡지에 ‘우리의 맹세’를 의무적으로 실게 하였고, 60년대 초반까지 학교 규율 속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읽고 외우게 하였다. 위의 사례는 대다수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쟁 이전부터 국가가 획일적으로 반공 이데올로기를 전 국민에게 강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승만 정권은 북진통일을 외치며 경찰조직을 중앙집권적으로 강화하여²⁴⁾ 준전시 체제를 구축해 나갔고, 제주 4·3사건 및 여순사건 등 국가폭력으로 인한 희생자가 40년대 후반에 이미 십 수만에 이르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속에는 영유아 및 아동도 다수 포함되었다.²⁵⁾ 전쟁을 예상하였으면서도 이승만은 국가의 수반으로서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고, 오직 미국의 참전 여부에만 신경을 썼다. 전쟁 발발 당일에도 주미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 상황은 아무에게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나는 오래 전부터 이와 같은 사태를 경고해 왔다”며 “여성이나 아이들도 나와서 막대기나 돌맹이를 갖고서라도 싸워야 한다”²⁶⁾고 말하였다. 위기 시에 국가와 민족의 이름으로 여성과 어린이

24) 강혜경, 『한국경찰의 형성과 성격 (1945-53)』, 숙명여대 박사, 2002, 16~54쪽.

해방 후 미군정은 한반도에 진주하면서 맨 먼저 경찰권을 인수하여 경찰기구를 중앙집권화 시키는 한편, 일제경찰을 재임용하고(해방 시 일제 경찰 26,677명 중에서 조선인이 40%인 10,619명이었다. 이중 80%가 47년까지 재고용되었다.) 신규 인력 충원에 있어서도 극우적 성향의 청년들을 대거 기용하였다. 따라서 해방 후 한국 경찰은 일제 경찰과 북한에서 부일 등 반민족 행위자로 쫓겨 온 경찰, 우익 청년들로 채워져 일제 치하에서와 다름없는 인권 유린과 억압 정책이 행해졌다.

25) 김종민, 「제주 4·3 항쟁, 대규모 민중학살의 진상」, 『역사비평』, 1998, 봄.

제주 4·3 항쟁 당시 이승만 정권은 제주도 해안선에서 5km 떨어진 지역을 무조건 적성(敵性)지역으로 지정하여 초토화 작전을 감행하여, 찢먹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3만 여명을 학살하였다.

26)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미 국무성 외교문서), Vol.n.1950.p. 130.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0 에서 재인용.

까지 당연히 호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²⁷⁾

한국 전쟁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²⁸⁾ 수많은 어린이가 전쟁과정에서 죽고 다치고, 집과 가족을 잃었다.²⁹⁾ 삶의 각 시기는 그 자체로 완결되는 생의 내용이라는 점에서 무능력한 상태로 최악의 현실에 내팽개쳐졌던 당대 어린이의 삶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하거나 보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전쟁과 월남, 피난 등으로 인한 고아, 기아, 미아 등이 대량으로 발생한 반면 아동복지법이 제정된 것은 1961년이였다. 1950년 내내 아동복지제도가 전무하였던 반면, 국가와 사회는 제도 규율을 적용하여 이들을 차별, 배제하는데 앞장섰다.³⁰⁾ 이 시기 실질적인 아동복지 활동은 주로 외국 자선 구호단체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감독과 관리의 의무만을 담당하였다. 이 시기 아동복지사업의 특징은 어린이의 생존을 위해 의·식·주의

27) 북한은 말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린 인민군 병사를 대거 징집하여 전쟁터에 보내 전쟁도구로 삼았다.

28) 정성호, 「인구의 사회학적 변화」,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앞의 책, 14쪽.

한국전쟁으로 인한 직접적 인명손실은 그 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한정된 자료에 의해 그 수를 추정하면 학살을 포함한 사망자가 민간인 37만 4천명과 군인 2만 9천여 명으로 도합 40만 3천여 명이 고, 납치·실종·포로 등 남한에서 유출된 인구수는 민간인 약 38만 8천명에 군인 17만 1천여 명으로 도합 55만 9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더하여 전쟁미망인 수는 20만 명, 전쟁고아의 수도 1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전체 피난민 수도 약 2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9) 전쟁 발발 후 미 공군의 무차별 폭격은 사실상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한국인을 잠재적 적으로 취급한 학살 행동이었고, 50년 겨울 이후 잔류 인민군 및 빨치산을 소탕하는 국군의 작전과정에 지리산 일대 지역의 민간인 대량 학살이 벌어졌다. 2월 8일 산청군 금서면 가현마을에서 하루 동안 학살당한 사람만 해도 529명으로 추정되는데 그중에는 10살 미만의 어린이가 100여명 포함되어 있었고,(김동춘, 앞의 책, 217쪽.) 2월 10일부터 3일간 있었던 거창학살사건의 경우 살해당한 마을 주민 752명 중 3세 이하의 영아가 119명이었고 14세까지의 어린이는 259명이였다.(박명림, 「한국전쟁과 한국정치 변화」,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2002, 67쪽.) 북한군의 남한 점령 지역에서의 학살자 수는 남한 정부의 공식 추계로는 12만 8천 936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전북 옥구군 미면의 경우 9월 27일부터 29일 사이에 반동분자 및 그 가족 574명이 집단 학살당했는데, 미면 신흥리에서 학살된 66명 가운데는 24명의 여자와 4살 난 어린아이도 포함되어 있었다.(권영진, 「6·25실상 다시 본다」, 『역사비평』, 1990, 봄, 302쪽),

30) 『경향신문』, 1954년 5월 11일자에는 “악질 꼬마 걸인, 경찰국 우선 백 명 수용”이라는 제호 하에 이 같은 기사가 실려 있다.

“시내 중심가에서 통행하는 부녀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요하는 거지들에 대하여 이렇다할 대책이 없어 사회의 비난을 사게 하고 있다 함은 기보도한 바 있거니와 10일 시경찰국에서는 우선 시내 PX 근처를 중심한 도심지에서 부녀자들을 울리는 악질적인 거지들 백 명을 수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전쟁으로 생존자체를 위협받는 처지가 된 어린이를 위한 일말의 복지 정책도 수립하지 않고, 국가는 강제적 규율장치를 통해 전쟁 피해자인 어린이를 강제로 처벌하고 통제하였다.

기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물질 자원의 분배와 가족을 잃은 어린이를 위한 시설 수용을 제공하는 정도의 임기응변적인 성격에 머물렀다. ‘후생시설 설치구호령’을 통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최소기준을 제정하였고, 이로 인해 1945년에는 전국 42개 고아원에 수용된 아동의 수가 1,819명이었던 반면 1955년에는 484개소에 50,417명, 1961년에는 615개소에 63,355명, 1967년에는 589개소에 70,944명으로 나타난다.³¹⁾ 이 통계를 보면 전쟁 직후인 1955년보다 12년 뒤인 1967년에 오히려 수용 아동의 수가 20,427명이나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실은 보호대상 아동이 충분히 수용되지 못하였거나, 전후 사회의 혼란과 빈곤으로 인해 사생아, 혼혈아 등 버려지는 어린이가 50년대 내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말해준다.

입양은 요보호 아동의 시설수용과 함께 전후 아동복지의 주된 내용을 이루는데, 아무런 법규정도 없다가 1952년에 사회부장관 훈령으로 ‘후생시설 운영요령’이 발표되면서 국내 입양이 시작되었다. 즉 후생시설에 수용된 아동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원하는 사람에게 위탁 양육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때 지도권을 시읍면장에게 일임하였다. 국외 입양은 1954년 전쟁고아 대책수립 후 시작되었으나 법 조항이 없는 관계로 영문번역 사무실을 통해 개인간 합의로 이루어졌으며, 1961년 9월 30일에야 ‘고아입양특례법’이 제정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고아들은 주로 미국으로 보내졌는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혼혈아가 우선적 입양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1955년부터 61년에 걸쳐 국외 입양된 4,190명 중 혼혈아는 2,601명으로 62%에 달했다.³²⁾

입시방편으로 시설에 수용하거나 입양을 하는 것 외에 국가적인 어떤 정책과 배려도 없었기에, 고연령 소녀들은 시설을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매춘의 길로 접어드는 경우도 많았다.³³⁾ 전쟁 피해자인 어린이가 성장하면서 생계를

31) 최원규, 「외국민간원조단체의 활동과 한국사회사업 발전에 미친 영향」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 1995, 19쪽.

32) 윤혜미, 「국내입양과 해외입양: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개선방안」, 『동국논집』, 1995, 265쪽.

33) 서울특별시 시립부녀보호지도소, 『윤락여성에 관한 연구보고서』, 1966, 이임하, 「1950년대 여성의 삶

위해 매춘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60년대에도 계속되었던 것이다.

시설에 수용되지 않은 많은 전쟁고아들과 극빈 가정의 어린이들은 일찍부터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 생존을 위한 경제활동을 하였으며,³⁴⁾ 이들은 착취와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³⁵⁾ 특히 많은 소녀들은 ‘식모’가 되었는데, 일부에서는 주인집 식구들과 온정적인 관계를 유지한 경우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이들은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였고,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보다 이들을 더욱 괴롭힌 것은 강간, 희롱 등의 성폭행과 도둑누명, 폭행 등이었다.³⁶⁾ 이렇게 고된 노동으로, 도둑누명으로, 상습적 성폭행으로 상처받은 소녀들은 결국 매춘시장을 찾아가기도 했다.³⁷⁾

1950년대에는 전쟁으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 뿐 아니라 부모의 열악한 생활 환경으로 인해 살해당한 아이들도 많았고³⁸⁾, 곳곳에 널려있는 폭발물 잔해로 인한 사상도 흔하게 일어났다.³⁹⁾ 피난으로 인한 이동으로 공동체적 질서를 벗어나는 경험과 기존의 가치 붕괴에 따른 여성들의 억눌렸던 성적욕망 분

과 사회적 담론」, 성균관대학교학원 박사, 2003, 88쪽에서 재인용.

34) 『동아일보』, 1957. 9. 17.

“미성년의 직업통계에 의하면 14세에서 19세 사이 청소년 중 1,103,700 명이 농사일, 회사급사, 광산 등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소녀가 468,800명이다.”

35) 『경향신문』, 1954. 4. 7.

“도둑혐의로 아동고문, 금계군 만항국민학교 교감과 김교사는 사친회비 2만 80환이 도난당한 것을 동교의 사동 김소년 등의 소행이라 지목하고 김소년을 숙직실에 감금, 밥을 굶기고 무수히 구타하고 발을 매달아 거꾸로 달아놓는 등 갖은 사행을 다하였다고 하는데 김소년은 수차 인사불성에 빠졌다고 한다.”

36) 12세 고용소녀가 시계를 훔쳤다고 방안에 감금하고 장작으로 무수히 구타하고 성기를 부젓가락으로 찌른 사건이 발생.(『경향신문』, 1955. 11. 12) 식모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장작으로 머리를 구타하여 사망시킨 사건.(『경향신문』, 1956. 10. 16), 성폭행 후 버림받은 소녀가 주인집 남매를 유인하여 저수지에 빠뜨린 사건.(『경향신문』, 1956. 7. 31)등, 50년대 식모 폭행사건은 흔한 일이었다.

37) 이임하,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102쪽.

“1965년 동두천 지역에서 매춘여성 198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에서 전직이 ‘식모’였던 매춘여성은 26.2%인 52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38) 『경향신문』, 1954. 7.22. 남산동에 거주하는 박유신(39)씨가 생활고를 비판하여 전처소생 세 아이와 나이 어린 후처에게 독약을 먹고 자신도 음독한 기사를 비롯하여, 처첩 갈등으로 인한 자녀 살해 등, 부모 문제에 의한 어린이 희생 기사가 50년대 내내 적지 않게 발견된다.

39) 『경향신문』, 1954. 3. 21.

“폭발물 장난 4명이 死傷”, 성북구 종암동에서 어린이들이 로켓탄을 가지고 장난하다가 폭발되어 9세 어린이는 즉사하고 7세 10세 어린이 부상 등.

출, 피난체험을 통한 산아제한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이유로 낙태가 유행처럼 행해지기도 했다. 수술할 비용이 없거나 낙태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여성들은 영아를 살해하는 일도 많았고 유기는 더욱 자주 일어났다. 영아살해가 주로 혼인 외 관계에서 일어났다면 영아유기는 합법적 혼인관계에서도 생활고 때문에 빈번히 발생했다.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1957년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에서만 591명, 하루 평균 2명씩의 영아가 유기되었는데, 이중 남자 아이는 133명이었고 여자아이는 485명이었다.⁴⁰⁾

시설에 수용되거나 입양된 고아들 뿐 아니라, 일반 가정의 어린이도 피폐한 환경에 처한 경우가 많았다. 전쟁과 피난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이 사망하거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가 부지기수였고, 특히 표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가장의 부재는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표1> 1950년대 미망인에 딸린 부양자수 (단위 : 명)

년도	부양자녀별 미망인 수							노부모 부양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무	
1955	65,024	90,240	97,966	75,735	55,772	38,682	31,284	37,924
1956	58,721	89,836	97,861	80,940	59,784	44,874	34,971	42,924
1957	48,935	73,576	80,867	66,278	50,859	38,220	26,327	40,028
1958	48,148	71,876	91,904	71,537	52,833	39,118	26,530	37,863
1959	56,993	86,558	96,160	83,391	61,456	52,114	30,093	41,180
1960	62,706	94,869	106,360	91,049	68,969	54,289	30,673	40,799

자료 : 보건사회부, 『보건사회 통계연보』, 1963, 458-459쪽.

공식으로 집계된 사망자 외에 피납자 및 월북자를 비롯한 행방불명자와, 어머니가 사망한 가정까지 더한다면 결손 가정에서 자란 어린이의 수는 더욱 더 늘어날 것이다.

결손가정은 형태적 결손과 기능적 결손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형태적 결손

40) 『경향신문』, 1957. 11. 6.

은 친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어떤 이유로 친부모 한쪽, 또는 양쪽 부모 모두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기능적 결손은 양친이 있더라도 역기능을 하는 가정을 말한다. 전순남의 연구에 따르면 결손 가정의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형태적 결손 유무가 아니라 기능적 결손의 유무⁴¹⁾라고 하지만, 1950년대의 극단적 현실은 사회적 지위환경이 열등한 형태적 결손 가정에 기능적 결손을 강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종전 후 한국사회에는 절박한 ‘생존 전쟁’이 지속적으로 펼쳐졌고, 어린이들 또한 길거리로 나가 경제활동에 참여하여야 했다. 매슬로우 Maslow의 욕구 위계설에 따르면 인간은 하위 욕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다음 단계의 욕구로 나아갈 수 있는데⁴²⁾, 50년대의 많은 어린이들은 상위의 욕구로 나아갈 기회조차 박탈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또 에릭슨 Erikson은 인간의 심리발달을 시기별로 나누고, 각 시기마다 전진과 후퇴 또는 통합과 지체 사이의 전환점을 특징짓는 ‘결정적’ 단계(critical steps)가 있다고 하였다. 태아가 특정 시기(예컨대 장기(臟器)형성기에)에 약물 복용 등으로 손상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에 영구적인 결함을 갖게 되듯, 인간이 매 시기에 맞게 되는 ‘결정적’ 위기를 원만히 극복하지 못하면 개인 생애에 위기를 수반하게 된다는 것이다.⁴³⁾

전쟁으로 적지 않은 한국의 어린이들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심리 발달을 이를 기회를 박탈당했으리라 짐작되며, ‘결정적 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집단

41) 전순남, 「가정의 형태적 결손 및 기능적 결손과 아동의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청주교육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42) Maslow, A. H. (1968). *Toward a psychology of being*(2nd. ed.). New York: Harper and Row.
이 책에서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생리적욕구, 안전과 안정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자아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5단계로 나누고, 하위 욕구가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의 욕구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였다.

43) Erik E. Erikson. 윤진 • 김인경 옮김, 중앙적성출판사, 1995.
에릭슨이 제시한 인간 발달 8단계는 다음과 같다.
1)기본적 신뢰 대 불신 (0-1세) 2)자율성 대 수치심과 의심(1-3세) 3) 주도성 대 죄의식 (3-5세)
4)근면성 대 열등감(5-12세) 5)정체감 대 역할 혼란(청소년기) 6) 친밀감 대 고립감(성인초기)
7)생성감 대 정체 (장년기) 8)자아통합 대 절망 (노년기)

적으로 겪은 전쟁의 생생한 원초적 체험은 그 이후에 익힌 어떤 학습보다 강고한 영향을 50년대 주체들에게 미쳤을 것이라 생각된다.⁴⁴⁾

한편 전쟁으로 1년 정도 마비되었던 교육은 ‘전시교육체제’라는 중앙집권적인 교육비상정책의 형태로 1951년 2월 재개되었고, 피난학생의 취학 독려, 가교실, 피난 특설학교 설치, 북한 피난 학생 수용, 도시 피난학교 설치, 생벽돌 교사의 건축, 임시교사 1000교실의 건축 추진, 전시교재의 발행 등의 교육시책이 이루어졌다.⁴⁵⁾ 피난학교 수업은 초기에는 노천수업이 대부분이었고, 이후 가교실 건축사업이 진행되어 비바람과 추위를 면한 전시교육이 형성되었다. 교사 현황을 살펴보면, 징병이나 월북 납북 및 ‘부역자 처벌법’에 의거한 적색교원 일소조치 등으로 1953년에는 정교사가 60%에 불과하였으나, 휴전 후 사범교육 강화와 교원재교육을 통해 1950년대 후반에 이르면 교원 수가 50% 증가하였다.⁴⁶⁾

휴전이 되자 정부는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1954~1959년)을 입안하여 의무교육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고, 그 결과 1954년에는 초등학교 취학률이 82.5% 정도였지만, 1959년에는 96.4%에 이르러 의무교육제도가 완전히 정착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리하여 1945년에는 1,366,024명이던 초등학교 학생의 숫자가 1954년에는 2,678,374명으로, 1960년에는 3,621,269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⁴⁷⁾ 그 바람에 중학교 입시 병목현상이 빚어져 명문중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많은 국민학생들이 ‘입시지옥’에 시달려야 했다.

전쟁 직후 한국사회는 기득권층과 빈민층의 빈부격차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으며⁴⁸⁾ 고아와 빈민층 자녀 등 수많은 전쟁피해 어린이들이 고통을 겪는 한

44) 김동춘, 『전쟁과 사회』, 앞의 책, 304쪽.

‘(국민들은)언제나 자신과 가족의 안위만을 단속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염치와 도덕이 없으며 내일을 생각하는 마음, 이웃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메말랐다. 말 그대로 전쟁 상황, 피난 상황의 연속이다. 전투는 끝났으나 전쟁은 정치사회 질서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재생산 되었다.’

45) 한국교육문화협회편, 『한국교육과 민족정신』, 문교사, 1953, 282~299쪽.

46) 김남수, 『1950년대 국민학교 • 중학교에서의 반공교육』, 성균관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 2003, 20쪽.

47) 윤종주, 「해방후 우리나라 인구변동의 사회사적 의의」, 『인구문제논집』, 역사비평사, 1998, 52쪽.

편, 지배계층 및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자녀를 소위 명문 중학교로 진학시키기 위한 ‘위장전입’과 ‘과외’가 성행했고, 과열된 자녀교육 열기로 인한 ‘치맛바람’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전후(戰後) 한국사회에는 대가족에서 소가족 형태가 급속하게 자리 잡았는데, 1950년대 축소된 가족주의가 드러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과도한 교육열’이었다. 고등교육을 통한 출세와 사회적 희소가치들에 접근하려는 열망이야말로 축소된 가족주의를 전후의 한국사회에 뿌리내리게 한 원동력이었다.⁴⁹⁾ 농민에게는 ‘우골탑’을, 도시 서민에게는 ‘북청 물장수의 신화’를 낳기도 한 자식교육을 위한 부모들의 헌신적인 희생의 바탕에는 ‘우리’ 가족의 성공을 위한 강한 경쟁심리가 작용하였으며, 이러한 교육 현실은 1950년대에 한국인의 삶이 이미 ‘자본주의적인 정신’에 지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⁵⁰⁾

또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변이된 가족주의(학연, 지연, 혈연 등 연고주의, 인맥, 혼맥 등 가족적 공동체 형성 등)가 타자 배제를 통한 기득권 유지의 주요 기제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였다.⁵¹⁾ 세계적으로 유례를

48) 『경향신문』, 1954년 6월 20일자에는 <학원에도 빈부의 명암, 국민교통학에 자동차의 장사진, 태반이 군용 관용차 유용>이라는 제호 하에 이런 기사가 실려 있다.

“사범부속학교는 고관부호의 자녀들이 가장 많이 다니고 있다는 학교이다. 19일 아침 7시 30분부터 동 8시 30분 사이에 아동을 태우고 울지로 5가 교문에 다들은 차량의 수효는 무려 48대! (...) 특히 관용차량 중에는 군차량을 필두로 국회 내부부의 표식도 뚜렷한 차량이 가족의 동반도 없이 단순히 아동들을 등교시키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반면에 이제 겨우 7,8세밖에 아니 된 어린이들이 혼잡한 버스 전차등을 타고 등교하다가 교문앞에 다달아 <친구>들이 자가용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손가락을 빼물며 우두커니 서있는 처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부형들뿐만 아니라 길걸는 사람의 심정을 거칠게 하고 있는 것이다.”

49) 정진상, 「한국전쟁과 전근대적 계급관계의 해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엮음, 『한국전쟁과 한국자본주의』, 한울 아카데미, 2000. 50~51쪽.

“다시 새로운 계급과 지위서열이 생겨날 때까지는 누구나 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된 셈이다. 이러한 평준화 의식은 계층 상승 · 이동의 기회균등화로 나타났고, 이는 교육열을 불러일으킨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다.”

50) 강인철, 「한국전쟁과 사회의식 및 문화의 변화」,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앞의 책, 251~255쪽.

51) 최재석,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개문사, 1983, 강인철 앞의 책에서 257쪽에서 재인용.

“전쟁 직후인 1953-1955년경부터 혈연, 지연, 학연으로 구성된 조직들이 급속히 활성화되었다. 종친회와 향우회, 동창회가 우리 역사에 등장한 것이 이때가 처음은 아니지만, ‘근대적인 이익집단’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부여받으면서 급속하게 일반화된 역사적 계기로서 1950년대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던 것으

찾기 어려운 한국 사회의 가족 이기주의와 과도한 교육열 또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극단적 생존경쟁 및 전후 사회의 변동에 따른 신분 상승 기회 체험, 그리고 전쟁을 통해 어떤 재산보다 교육이 안전한 자산임을 깨달았기에, 교육을 수단으로 하는 가족과 가족간의 생존경쟁과 이로 인한 계층별 격차는 지속적으로 대물림되고 있는 양상이다.

2. 반공주의의 정착과 양상

한국에서 ‘반공주의’는 단순히 ‘anti-communism’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타의 반공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의 반공주의는 독특한 역사적 물리적 환경 속에서 거듭 확장되고 심화되었기 때문에, 개념과 특성 역시 한반도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⁵²⁾

반공주의는 일제 식민지 시절에 처음 대두되었는데, 그 원인으로는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영향과 독립운동 세력 간의 갈등이라는 두 요소를 손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때의 반공주의는 위로부터 주어진 이데올로기였고 자생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 시기에 활동한 민족주의자나 독립운동가 중 다수가 사회주의자였는데, 일제 입장에서 이들 사회주의자들은 ‘치안유지법’⁵³⁾을 적

로 보인다.”

52)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반공주의가 온전히 규명될 수는 없다. 이는 이데올로기가 가지는 교묘한 성격 때문이기도 하고, 언어가 가진 원래적인 불완전성 때문이기도 하다. 테리다에 따르면 기표는 거울이 상(像: image)을 비추듯 직접적으로 기의를 드러내지 않는다. 기표와 기의는 계속해서 분리될 뿐 아니라 새로운 조합을 형성한다. 따라서 언어의 어떤 기본 단위도 절대적으로 정의되어질 수는 없다. 모든 것은 나머지 모든 것들의 흔적을 담지하고 있다. 그 어떤 것도 기호에 전적으로 현전되지 않는다. (마단 사렵의 지음, 임현규 편역, 『테리다와 푸꼬,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인간사랑, 1993, 18~21쪽.)

53) 일제시대에도 ‘보안법’이 있었으나 오늘날 집시법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었고, 대부분의 독립운동이나 일본제국주의 비판은 1925년 제정한 ‘치안유지법’을 적용 처벌하였다. 조선총독부 자료에 의하면 1925년부터 1938년까지 이 법으로 검거된 사람은 17,000명이 넘는다. 이 법은 제정한 주체인 일본에서도 전쟁 종식과 더불어 폐기하였으나 한국에서는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으로 명칭과 약간의 표현만 바꾸어 다시 제정하였고, 이후 매 정권마다 이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반공주의 기제를 고착, 강화시키는 물리적 토대로 삼아왔다.

용하여 제거해야할 적이었지만 조선 민중에게는 아군이였다. 독립운동 세력들 간의 갈등 역시, 일반 국민들에게 사상은 다르지만 독립을 추구한다는 면에서는 동등하게 받아들여졌고, 일부 극우파를 제외하고는 좌파에 대한 적대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서구 열강이 각축을 벌이는 국제 현실 속에서 식민지에서 갓 해방된 나라는 아직 너무나 위태로웠기 때문에, 이 때는 반외세 정서를 바탕으로 한 민족주의가 지배 이데올로기의 위치에 있었으며, 사회적으로는 오히려 좌파적 분위기가 짙었다.⁵⁴⁾ 파벌을 초월하여 전체 민족이 힘을 합쳐 통일국가를 수립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과 우익이 주장하는 반공주의는 힘을 가질 수 없었고, 그래서 주창한 개념이 ‘일민주의’였다. 우리 민족은 일민(一民)이고, 우리는 시급히 자결, 자급, 자일(自一)하기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기에 나뉘어 지는 데서 죽고 일(一)에서 산다고 주장 하였지만, 대세에 영합하여 민족주의의 외피를 빌렸을 뿐 일민주의의 실제 내용은 반공주의였다.⁵⁵⁾

그런데 이승만의 반공주의는 단순히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소련에 대한 증오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으며, 이는 체험적 생애를 통해 내면화한 친미 사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이승만이 배제학당에서 접하게 된 ‘기독교를 통한 조선개화론’은 10대 이후 그의 사상에 일관된 영향을 미쳤으며, 그에게 정치적으로 결정적 영향을 준 서재필과 윤치호는 서양문명 부강의 원천이 기독교에 있다고 확신하고 조선도 그 길을 따라야 함을 국민들에

54) 『동아일보』, 1946. 8.13,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 pp.104-105. 이관후, 『국가형성기의 한국 민족주의; 한국전쟁과 통치 이념의 변화- 일민주의에서 반공주의로』 서강대 대학원 석사, 2003, 73쪽에서 재인용.

1946년 8월 미군정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8,453명)에서 “귀하의 찬성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공산주의 7% 자본주의 15% 사회주의 70%”라는 결과가 나온다.

당시 민중들이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였는지 의문스럽긴 하지만, 전쟁 후 반공주의가 지배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은 뒤의 답변을 예상하여 본다면 큰 차이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55) 이승만, 『일민주의개술』, 일민주의출판회, 1956. 이관후, 위의 논문에서 재인용.

“민주주의로 공산주의를 대항하는 것은 사상이 너무 평범하여 이론상 엄밀한 조리에 들어서는 공산주의의 선전을 대항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일민주의 하에서 사대 정강을 정하여 한 정당을 세워 일변으로 공산주의를 배격하며 일변으로는 민주주의의 영구한 토대로 삼기로 한 것이니…….”

게 줄곧 역설하였다. 특히 5년에 걸친 투옥기간 중 선교사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이승만은 기독교와 서구문명을 일치시키고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던 ‘서구 중심적 관념’을 내면화 하였다.⁵⁶⁾

미국=기독교=민주주의의 도식은 소련=종교탄압=공산주의의 이분법적 대타개념 위에 성립되었으며, 50년대 반공주의의 냉전적 사고 이면에는 공산주의를 추상적 관념인 ‘악’으로 규정하는 종교적 가치관⁵⁷⁾이 내면화된 채 사회각계로 파급되었다. 예컨대 UN군 민간 정보 교육국에서 1950년에 발행한 초등부 지침서 『민주주의와 평화, 공산주의와 전쟁』⁵⁸⁾을 보면 책 표지에 흰 옷을 입고 피리를 부는 여인과 총을 든 채 거꾸러지는 검은 그림자가 선명히 대비되어 있다. ‘천사’와 ‘악마’를 즉자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는 정치적 차원의 문제를 종교의 차원으로 전이시킴으로써, 공산주의자와의 전쟁을 선과 악의 싸움을 수행하는 ‘성전(聖戰)’으로 인지시킨다. 내용의 서술 방식에서도 기독교적 언술을 발견하기란 어렵지 않다.

팻쇼주의나 나치스주의나 군국주의나 공산주의가 똑같은 것들이다. 이 모든 주의자들의 통치하는 방식은 다 백성의 권세를 빼앗고 또 사실로 백성을 종으로 만드는 것이다. 모든 권세는 다스리는 몇 사람의 손에나 혹은 독재자 한 사람의 손에 들어간다. (중략)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자기네 국경 밖에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이 자기네를 정복하려고 위협하고 포위하고 자기네 생명선을 끊어버리고 혹은 정당하게 나아가는 길을 막고 혹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지경(地境)을 침범할 위협이 있다고 충동하

56) 이정식저, 권기봉 옮김, 『초대대통령 이승만의 청년시절』, 동아일보사, 2002, 277쪽.

57) 허명섭, 『해방 이후 한국교회의 재형성 : 1945~1960』, 서울신학대 대학원 박사, 2004, 83쪽.
공산주의 유물론과 계급투쟁론 그리고 도덕관념 등은 기독교가 전혀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는 공산주의를 ‘목시록에 있는 붉은용’과 동일시하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이 용을 멸할 자 누구냐’고 촉구하며 공산주의자들과의 싸움을 독려했다. 이명직 목사도 공산주의를 계시록의 ‘붉은용’과 동일시하며,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보았다.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주의 신학자였던 박형룡 박사도 공산주의를 ‘붉은용’이라고 부르면서 그에 철저히 반대하였다. 공산주의와 그 종주국인 러시아에 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마귀의 이름을 붙여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다.

58) UN 민간정보교육국, 『민주주의와 평화 공산주의와 전쟁』 UNIT NO.12. 1950.

였다.⁵⁹⁾

공산주의자는 반드시 없애야만 할 ‘악’이고, 북한은 소련에게 조종당하는 한낱 꼭두각시(괴뢰)일 뿐이므로, ‘사람’도 아닌 ‘빨갱이’의 제거에 일말의 망설임이 필요 없어진다. 위의 예문은 국제 질서의 패권을 추구하는 미국의 반공주의와 기독교가 제도 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구체적 양상으로서, 일제 식민지 기구에 의한 반공주의와 더불어 민족 외부로부터 그리고 위로부터 국민들에게 주입한 이데올로기의 사례가 되겠다. 그러다 한국전쟁으로 반공주의가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의 위치에 올라서자 더 이상 민족주의를 전유할 필요가 없었기에 일민주의는 사라지게 되며,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야 함을 역설하던 일민주의의 ‘강력한 영도자론’만 이승만 개인 우상화로 이어졌다.

대통령 각하께서 영수 할아버지를 보시더니 가까이 다가 오셔서 할아버지의 손을 붙드시고,

“영감! 얼마나 고생하였소.”

하시며, 붙드신 손을 놓으실 줄을 모르셨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 하시고, 고맙고 황송한 마음에 눈물만 흘리고 계셨다. 영수가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붙들자 대통령 각하께서는 영수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너의 할아버지로구나! 잘 위해 드려야 한다.” 하셨다.

— 「백성 사랑하시는 어른」 중에서. ⁶⁰⁾

전쟁 전이나 과정, 그 이후에도 이승만에게 ‘국민은 없었다’⁶¹⁾는 점을 상기

59) 『민주주의와 평화 공산주의와 전쟁』, 앞의 책, 16~20쪽.

60) 국민학교 도의 독본, 『착한생활』 4학년. 1955, 73~74쪽.

61) 김동춘, 앞의 책, 91쪽.

“미국은 이미 1949년 6월에 전쟁에 대비하여 제 8군과 극동공군 및 해군사령부가 참여하는 재한 미국인, 영국인과 프랑스인, 유엔 한국 위원단의 철수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신문사편, 『주한미군 50년』, 행림출판사, 1975, 138쪽) 전쟁이 발발하자 곧바로 실행에 옮겨 단 한 명의 민간인도 다치지 않고 일본

하면, 제도 매체를 사유화하여 어린이들에게 거짓 이미지를 심어 주었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전쟁의 체험은 적극적인 반공 세력을 국민 내부에서 형성시켰다. 전쟁 상황 특유의 적개심은 남한 국민과 국가를 쉽게 일치시켰고,⁶²⁾ 공산침략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이 가져온 고통과 궁핍이라는 ‘산 경험’은 반공주의 담론 생성의 ‘마르지 않는 원천’이 되었다.⁶³⁾ ‘북한의 도발’로 인해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전쟁으로 인한 불행, 고통이 모두 김일성과 북한에 전가됨으로써, 이승만 정권의 반공주의는 어떤 강압적 수단이나 이데올로기로도 얻을 수 없는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⁶⁴⁾

으로 수송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이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전쟁 발발 후에도 자신은 몰래 도피한 채 거짓 방송을 계속하였고, 한강 이북에 수만 명의 국군과 경찰, 은행권과 국민들을 그대로 둔 채 한강다리를 폭파시킴으로써 헤아릴 수 없는 희생을 가져왔으며, 예고 없이 다리를 폭파함으로써 피난 중이던 4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물귀신이 되는 등 아비규환의 참상을 초래하였다.”

62)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1』, 인물과 사상사, 2004. 132~133쪽에서 재인용.

학살은 악순환의 계임이었다. 내가 죽었으니 나도 죽어야겠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복수의 질과 양이 똑같이 이루어질 리는 만무했으니 증폭은 필연적이었다. 홍세화는 일단 피를 본 사람들은 더욱 더 피에 굶주리게 되었다고 말한다. “인민군이 밀려 올라갔다. 즉시 보복이 시작되었다. (중략) 또 다른 복수의 씨앗을 아예 없애버려야 했다. 오촌당숙의 가족은 물론 먼저 처치한 일곱 사람의 가족도 하나하나 없었다. 어린애도 예외가 없었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도 죽었다. 그리하여 그 크지 않은 마을에서 80명 가까운 마을 사람들이 죽어 나갔다.”(홍세화,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창작과 비평사, 1995.) 경기도 고양 금정굴 민간인 학살 사건도 바로 그런 악순환 때문에 빚어진 참사였다. 그 지역에서 좌익세력이 우익단체 단원 50여 명을 처형했다. 9·28 수복 직후 국군과 치안대에 의해 보복이 이루어졌는데, 이 때의 희생자가 1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삼웅, 『해방 후 양민학살』, 가람기획, 1996.)

63) 손정목,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서울 만들기: 잿더미 서울」 『중앙일보』, 2003년 9월 2일. 강준만, 위의 책, 84쪽에서 재인용.

“서울 시민 팔 할이 양식을 여투어 두지 못한 채 돌연 전쟁을 만났고, 그나마 유통되던 곡물이 동결되자 인심이 강괄라질 수밖에 없었다. 조국해방 전쟁만 완료되면 공화국 세상은 ‘지상의 낙원’이 된다지만, 되살 팔아먹던 서민들 입장에서는 앞날은 그림이요 당장 닥친 호구가 화급한 현실이다. 쌀독에서 인심 난다는 속담이 있듯, 프롤레타리아 공화국 천국이 도래했다고 길거리에 나와 만세 부르기도 하루 이틀 이지, 돌아서서 집이라고 찾아들면 쌀독은 비었는데 울망졸망한 식구의 썩은 눈망울부터 앞을 막는다. 제 앞가림부터가 급할 수밖에 없다. 어제까지 서로 꾸어먹던 이웃 사촌도 인심이 흉흉해지니 남의 사정 따질 필요 없이 아귀다툼의 나날속에 송사질 또한 잦다. 예전의 반장 마누라가 여맹원이 되어 내무서 첩자로 집집마다 누비고, 지계꾼·날뽕팔이들이 자위대를 조직하여 가난으로 놀려 지낸 한풀이를 한답시고 활개친다. 평소 못마땅하던 이웃이나 숨길 양식이 있을 만한 문턱 높은 집은 밤중에 찾아가 반동으로 밀고하겠다며 협박을 일삼는다. 그렇게 새 공화국의 인민으로 자처하며 설치다 보면 떡고물이라도 생기게 마련이다.”

64) 조현연, 『한국현대정치의 악몽- 국가폭력』, 책세상, 2000, 23쪽.

그런데 수많은 국민이 희생되고, 국토는 황폐화되고, 폭력의 유산을 구조적으로 물려받게 된 한국전쟁은 과연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어떤 전쟁이며, 절대다수가 피해자인 이 전쟁에서 이익을 본 사람들은 누구인지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김동춘은 지적한다. 국가와 민족의 이름으로 국민의 생명을 희생시킨 국가주의의 실체를 올바르게 파악할 때 정당한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볼 수 있고, 억압과 왜곡을 직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극단적 방법을 써서라도 자신들을 중심으로 한 통일권력을 가지고자 했던 남북한 핵심 정치 지도자와 핵심 지배집단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그에 앞서 자신들의 전략에 맞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극좌와 극우의 정치지도자가 권력을 장악하게 하였던 미, 소의 점령정책에 더욱 근원적인 책임이 있으며, 한반도 민중이 외세를 배격할 입장도 힘도 갖지 못했던 것은 식민지 지배의 결과였기 때문에 한국전쟁은 일제침탈의 직접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한국전쟁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과 중국, 일본, 그리고 남북한의 지배집단이었고, 최대의 피해자는 참전했다가 죽고 다친 군인과 그 가족들, 이산가족, 피학살 민간인, 장기수, 미군범죄의 피해자, 기아선상의 북한주민, 과도한 군사비 지출로 인해 응당 누려야 할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대다수 남북한 민중들인 것이다.⁶⁵⁾

전쟁을 통해 핵심 지배 계급은 막대한 부와 이득을 쌓고 세습을 하었는데⁶⁶⁾, ‘국가 안보’를 내세운 반공주의는 기득권을 지키는데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도구가 되었다. 이승만은 자신에 대한 비판을 국가에 대한 비판으로 치환시켜 용공혐의를 씌움으로서 반대자를 제거 또는 억압하는 방식으로 독재를 일삼았고, 6~70년대의 박정희도 마찬가지였다. 권혁범은 이렇게 오랜

65)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0, 307쪽.

66) 장상환, 「한국전쟁과 경제구조의 변화」,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1985, 170~189쪽.

전쟁을 전후하여 있었던 농지개혁 때 일본인이 남기고 간 귀속재산을 친미 세력과 상인들에게 연고자 위주로 헐값 방매함으로써 신흥 재벌을 양성하였다. 서재진의 연구에 의하면, 57대 자본가의 75%가 50년대에 기업을 설립하였다.(1985) 소수 정상배들의 횡재와, 자유당계 기업에 대한 특혜금융은 한국자본주의를 매편적, 관료독점적, 기생적 성격으로 만들었다.

세월 재생산된 반공주의 회로는 모든 불법적이고 부패한 현실을 코앞에 보면서도 순응하고 사는 버릇, 이것을 통해 유지되는 집단적 범죄행위에 대한 동참과 인정의 정치 사회적 문화를 더욱 강화하는 데 이바지 하였다고 진단한다. 체제순응성을 강제하는 정치 사회화 과정을 통해 불균형 발전과 사회이익의 불균등 재분배로부터 오는 사회적 약자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봉쇄하고 길들이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67)

1950년대는 반공주의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 일상의 영역에 최초로 자리 잡은 시기이다. 반공의 규율이 외적 내적으로 더욱 치밀하고 정교해지는 6, 70년대와 비교하면 아직 모든 면에서 허술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전쟁의 충격과 공포가 원체험이 되고 있는 기원적 시공간이라는 점에서, 1950년대 사회와 반공주의의 관계는 다양한 관점에서 더욱 세밀하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

3. 교육정책과 교과서

교육은 그 사회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이념 또는 이상적 인간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학령기에 있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제도적으로 교육을 시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정치권력의 성격에 따라 특정 이데올로기가 개입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이 때 ‘이데올로기’의 함의는 지나치게 폭넓고 또 중첩되어 요약 정의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수혜 계층의 기득권 유지에 기여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을 가치중립적이라고 믿지만, 마이클 W. 애플은 학교를 문화적 헤게모니의 전수자이며 선택의 전통자이고 문화의 통합자로 보았다. 교육제도 자체가 본질적으로 정치적 행위에 개입되어 있으며, 특정한 헤게모니에

67) 권혁범, 「내 몸 속의 반공주의 회로와 권력」, 앞의 책. 60~61쪽.

의한 사회 유지 및 통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68)

이런 측면에서 전쟁으로 중앙집권적으로 국가권력이 강화되었던 1950년대 교육 정책과 실천 내용을 살펴보면, 반공주의가 한국 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가 되고 전체 국민을 움직이는 내적 규율로 작용하게 되는 과정을 상당 부분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1) 반공 정책과 교육

국가의 통일 반공 정책 및 교육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부터 전쟁 발발 이전 시기와 전쟁기, 그리고 휴전 이후 1차 교육과정기로 나누어 다음의 <표2>로 정리해 보았다.

<표2> 국가 통일 · 반공 정책과 교육정책, 실제 반공 교육 내용⁶⁹⁾

시기구분	통일 · 반공 정책	반공 교육 정책	반공 교육 내용
건국~ 전쟁 발발 이전시기 (1448~1950.6)	* 반공, 무력 통일 정책 (48년) *북한만의 UN 감시하의 선거제의 (49)	민주시민교육	직접적 반공 교육 내용 없음.
전시교육기 (1950~1953)	*북한만의 UN 감시하의 선거	*멸공교육 *방일 ● 반공교육 *승공 ● 통일교육	* 「전시학습지도요항」 : 반공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최초의 교육과정. * 교재, 교육내용 : 철저히 전쟁승리 및 반공 관련 내용
1차교육과정기 (1954~1959)	*통일독립 민주한국 재건 *UN 감시 하, 남북한 총선 실시제의	* 반공 ● 방일 사상 * 국가에 대한 충성심 * 자유 민주진영과 공산주의의 움직임	*명시된 교육과정으로서의 반공 교육 확립 *국군에 대한 애경심 *북괴의 6·25남침 최악상 폭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비교 *의무이행 (통일을 위한 노력)

68) 마이클 W.에플, 박부권 이혜영 옮김,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한길사, 1985.

위의 표를 보면, 건국 이후 전쟁발발 이전까지 정부의 통일 정책은 ‘반공 무력 통일’이었지만 교육 정책으로는 연결되지는 않은 상태였고, 따라서 반공 교육이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다 한국전쟁 발발로 1년 정도 마비되었던 교육이 1951년 ‘전시하특별 교육조치’라는 비상조치의 형태로 재개되면서, 반공을 넘어선 ‘멸공’이 교육정책의 맨 앞자리에 놓이게 됨을 볼 수 있다. 그와 함께 반공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최초의 교육과정인 『전시하습지도요항』이 일괄적으로 주어져 교실 차원의 교육이 전면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이 때 모든 교과 내용은 철저히 전쟁 상황과 관련하여 짜여져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북한만의 UN 감시하의 선거’를 정책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총체적 반공교육 정책이 수립되고 현장에서 실천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1차 교육과정기에도 대외적인 정책은 ‘통일’을 표방하였지만 이 시기에 반공교육을 ‘제도적 차원’에서 확립하게 되었다.⁷⁰⁾ 문교 정책이나 정책 수행을 위한 장학방침이 정해지고 제도권 매체로서 교과서의 성격 역시 규정되었는데, 교과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교육과정의 첫머리에는 ‘반공’이 놓여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문교정책 수행을 위한 장학 방침을 살펴보면 확인이 된다.

69) 이 표는 다음 논문과 저서를 참고하여 요약 정리해 보았다. 박용현, 『초등학교교과서에 반영된 통일
• 반공교육의 변천과정분석연구』, 국토통일원, 1978, 21쪽. 김남수, 「1950년대 국민학교·중학교에서의 반공교육」,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3. 한국교육십년사간행회, 『한국교육십년사』, 풍문사, 1960.

70)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 35호로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이 공포되고, 1955년 문교부령 제 44, 45, 46호로 각급학교 교과 과정이 마련되어 우리나라 최초로 통합적인 교육과정이 시작되었다.

<표3> 1차 교육과정기 문교부 장학방침⁷¹⁾

시기	장학방침
1954	* 반공사상 함양, 정신무장 - 통일독립에 매진 * 과학기술 진흥, 생산증강 - 경제발전에 기여 * 건강위생 증진, 체위향상 - 국토방위에 공헌
1955	* 반공사상 철저, 민주주의 생활 확립 - 통일독립의 선봉 * 과학기술 진흥, 생산증강 - 경제발전에 이바지 * 건강교육 철저, 체위향상 - 국토방위의 간성
1956	* 반공사상 철저, 민주주의 생활 확립 * 과학 및 실업교육 충실 - 생산기술 체득 * 보건위생 및 체육 지도 철저 - 건전한 신체 발육
1957	* 도의교육 진흥 - 민족의 얼 고취 * 생활교육 충실 - 자주적 경제능력 함양 * 건강교육 철저 - 건강한 신체 발육
1958~ 1959	* 인격도야 및 조국혼 진작 - 건실한 학도기풍 * 과학기술 연마 - 자주적 생활능력 * 건강위생 유의 및 운동경기 장려 - 건강한 신체

이 기간 동안 3명의 문교장관이 교체되며 각각 문교정책을 내놓았지만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고, 종합해보면 반공 도의교육, 과학기술교육, 건강 보건교육의 강조로 압축이 된다. 전시에 사상전의 차원에서 실시되었던 도의 교육은 57년에 반공 교육과 통합되며, 과학기술교육의 주요 목표는 폐허가 된 국토 재건이었는데 ‘퇴비증산’이나 ‘나무심기’ 같은 운동으로 실현되었고, 건강 보건 교육 역시 ‘체력은 국력(국방력)’이라는 인식에서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국가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교육을 통제하였는데, 그 내용은 첫째, 부역자 처벌법을 강화하여 적색교원을 일소하도록 하였으며, ‘교원정화위원회’를 설치하여 반정부적인 교사를 교직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둘째,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30명의 ‘국민사상지도원’을 만들어 ‘국민 사상을 올바로 확립’ 하고자 하였다. 셋째, 교육 공무원법을 제정하여 교원들의 정치사상 표

71) 대한어머니회 중앙연합회 편, 『한국교육30년사』, 1977, 640~642쪽.

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한편, 실제적으로 학교는 정부여당의 정책을 지지하고 선동하는 장소였다. 넷째 중학생과 대학생의 정치활동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단속하였다. 72) 그런데 이처럼 교사와 학생들의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하여 정부 의사와 어긋나는 의견은 표현하지도 가르치지 못하게 법제화해 놓고, 실상 정부는 50년대 내내 학생들을 동원하여 관제 데모를 벌였다.73) 이러한 잦은 학생 동원에 대해 대구 『매일신문』에 「학도를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사실이 실리자 자유당 간부 인솔 청년들이 경북 경찰국 사찰과 간부의 지휘 아래 신문사를 습격하여 여러 명의 중·경상자를 내었고, 주필 최석채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다. 어용단체와 공권력이 결합하여 정당한 언론의 비판을 물리력으로 제압해 버린 것이었고, 이러한 경우가 비일비재하였기 때문에 누구도 양심적 발언을 하기가 어려웠다. 74)

이번에는 교과서 현황을 개괄해 본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 미군정에 의한 통치가 3년간 실시되었다. 이는 한국 교육의 헤게모니 세력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뀐 것을 의미하며, 당시에 추진되었던 미군정기 교육적 특성들이 한국 교육의 방향과 기반을 결정하였다는 점에서, 미군정기 교육은 현재의 한국 교육을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75) 한편 교과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쟁 기간 동안 성격이 다른 세 종류의 교과서를 함께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전쟁 이전의 교수요목과 그에 기반한 교과서와 1951년 편찬된 전시교재인 『전시생활』 및 교사 학습지침서인 『전시학습지도요항』, 교수요목기의

72) 이상 김남수, 앞의 논문, 9~11쪽.

73) 이재오, 『해방 후 한국 학생운동사』, 형성사, 1984, 117쪽.

50년대 학생동원 관제데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북진통일 학도 총궐기 대회(53.4.22) 2.휴전회담 반대 데모(53. 6. 12) 3.미군철수 반대 국민 총궐기대회(54. 9.26) 4.적성휴전감위 축출 국민대회(55. 8. 6. 학생동원 4개월) 5.이박사 대통령 재출마 요청 데모(56. 3. 10) 6.대한 학도 반공 궐기대회(56. 10. 20) 7. 제일교포 북송 반대 데모(59. 2. 13)

74)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하)』, 역사비평사, 1999, 793쪽.

75) 정태범, 「미군정기 및 교수 요목기의 교과 과정과 교과용 도서 편찬」, 『한국편수사연구1』,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0, 42쪽.

교과내용을 약간 바꿔서 1952년부터 발행한 교과서가 바로 그것이다. 1952년 9월부터 정식 교재로 국어, 셈본, 사회생활, 과학 등 네 과목의 교과서 21종과 중등국어 6종을 펴냈으나, 물자의 파괴로 인쇄 사정이 어렵고 교과서를 만들 종이를 구할 수 없어 전 학년 분량의 4분의 1만을 먼저 펴냈다. 그러다 미국의 아시아 자유위원회에서 교과서 용지 1,540톤을 기증받아 교과서 전량을 펴낼 수 있었다. 76)

그런데 1952년부터 발행된 『국어』 교과서는 크게 두 가지 점이 주목된다. 첫 번째는 교과서에 실린 글의 수준이 어린이의 연령별 발달에 알맞은 형태와 내용으로 바뀐 것이다. 다음의 두 시를 비교해보자

<표4> 전쟁 발발 전후 『국어』 6-1 비교

『초등국어』 (6-1), 문교부, 1949.	『국어』 (6-1), 문교부, 1952.
<p style="text-align: center;">얹은뱅이</p> <p>동그신 그 얼굴에 쪽빛 옷 고운 단장. 따로 가 외진 들에, 누를 보라 피오신고? 남이 다 날 버린다고, 나도 나를 버리리까.</p> <p>노비 산 모퉁이는 어린 내 자라던 곳. 이 봄도 그 언덕에 얹은뱅이 피련마는, 따 담던 그 날의 가방은 버린 데도 모르겠네.</p>	<p style="text-align: center;">조그만 하늘</p> <p>들국화 필 무렵에 가득 담았던 김치를 아카시아 필 무렵에 다 먹어버렸다.</p> <p>움 속에 묻었던 이 빈 독을 엄마와 누나가 맞들어 소나기 잘 내리는 마당 한복판에 들어내 놓았다.</p> <p>아무나 알아맞혀 보아라. 이 빈 독에 언제 누가 무엇을 가득 채워 주었겠나.</p> <p>그렇단다. 이른 저녁마다 내리는 소나기가 하늘을 가득 채워 주었단다.</p> <p>동그랗고 조그만 이 하늘에도 제법 고오운 구름이 잘도 떠돈단다.</p>

76) 홍용선, 『우리나라의 교과서 변천사』,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교과서 목록 (개화기-1963), 1990, 8~10 쪽.

두 편의 시는 화자부터 어른과 어린이로 차이가 나며, 정서나 취향 등 모든 면에서 화자의 연령이 반영되어 있다. 이 중에서 어린이가 흥미를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시는 강소천의 「조그만 하늘」임은 물론이다.⁷⁷⁾

두 번째 주목되는 점으로, 세계사적으로 손꼽히는 잔혹한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정도로 밝고 평화로운 내용의 글이 다수 실렸다는 것이다.

지붕 네 귀가 번쩍 들린 큰 기와집 틈에 끼워 있는 조그마한 우리 집, 그나마 한쪽으로 쓰러질 듯하여 한쪽을 버티어놓은 우리 집. 그래도 터진만은 넓어서, 넓은 앞마당에는 가득히 꽃을 심어, 첫여름부터 늦가을까지 언제나 꽃이 질 때가 없다.(중략)

이웃집에서들은 날마다 꽃을 얻으러 온다. 우리 어머니는 무엇이든 남 주기를 좋아하셔서, 달라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조금씩은 다 나누어 주신다.⁷⁸⁾

‘6·25전쟁이 끝난 후 임시 수도 부산에서 환도하고 나서 어린이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어떻게 불러 일으켜 줄까 골똘히 생각하던 때가 생각난다’⁷⁹⁾는 당시 문교부 편수관이었던 최태호의 회상에서, 국가 차원의 일방적 교육의 실시만이 아니라, 전후의 참담한 현실에 놓인 어린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헤아리고 고민하는 개인적 심정을 느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글에서 교과서의 성격 변화 원인을 짐작할 수 있다.

서울로 올라온 문교부는 활기를 되찾았다. 金法麟장관 시절이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편수국은 의무교육 6개년 완성 계획에 따라 교육과정 개정 심의 준비에 바빴고, 1953년 3월부터 시작된 심의는 55년에 제정돼 56년에는 벌써 초등국어 1, 2, 3학년용이 발행되고, 58년에는 6학년용까지 마쳤다. (중략)

77) 「조그만 하늘」은 강소천의 동시이다. 그런데 중 • 고등학교 교과서와 달리, 초등교과서에는 필자 이름이 게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어린이와 그들 문화에 대한 상대적인 경시로 해석할 수 있다.

78) 『국어』(4-1), 대한문교서적, 1952.

79) 최태호, 『리터영 할아버지』, 아동문예사, 1987. 6쪽.

모든 교과서 편찬은 불과 6명의 정규 편수관과 6명의 촉탁으로 이루어졌다. 얼마나 행정적으로 미약했다는 것을 짐작할 만하지만, 나는 그 중에서도 복이 많은 편이라 수많은 문인들의 도움을 받았었다. 나의 사무실은 편수관실보다도 다방과 대폿집과 여관 일 때도 많았다. 그들의 의견과 비평도 들으면서 직접 초고의 집필도 부탁했었다. 그때만 해도 어린이 상대의 문장을 쓰는 문인들이 드물었다. 더구나 어휘 선택에 있어서 단계적인 고려를 해야 할 교과서에는 손질할 곳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소중한 존재는 姜小泉이었다. 그는 자신의 창작에 아무리 바빠도 나의 청탁에는 아끼지 않고 시간을 할애했다 80)

한글학회 회원과 조선어학회 회원들에 의해 집필되었던 전쟁 전 『국어』 교과서와 달리, 피난지인 부산에서 교과서 집필 및 편수 과정에 어린이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아동문학인을 깊이 참여시켰기에 어린이의 흥미와 경험, 발달단계에 알맞은 형식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현실이 너무나 참혹하여 정신적인 힘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상황이었기에, 교과서에 밝고 긍정적인 내용을 보다 많이 실어 어린이 정서를 가꾸고자 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시기의 교과서 내용은 전체주의 이념을 대변하거나, 안락한 환경의 어린이의 삶을 일반화시키거나, 의문 없는 현실 긍정적 태도의 세 가지 성격에 한정되어 있다.

이러는 동안에 음식도 끝나고 첫째 브로그람도 끝났습니다.

다음은 재미있는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수께끼, 스무고개, 말놀이, 옛날 이야기, 그림 연극 보물찾기…… 여러 가지 놀이가 벌어지고, 또 이 놀이에는 특히 선희 아버지 상, 선희 어머니 상이라고 하여, 상품도 나왔습니다.

“자, 해가 지기 전에 기념사진이나 하나 찍을까?”

선희 아버지께서 사진기를 가지고 오셔서, 동무들은 모두들 밖으로 나왔습니다. 81)

80) 崔台鎬, ‘나의 編修局 시절’, 『編修의 뒤안 길』 제2집, 한국교육과정 • 교과서연구회, 1955, 17~18쪽.

81) 「생일잔치」, 『국어』(3-2), 문교부, 1953. 8쪽.

3년에 걸친 전쟁이 막 휴전된 시점에 발행한 교과서임을 고려할 때, 여러 음식을 차려놓고 축하선물을 주고받으며 프로그램에 따라 행사를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하는 현실은, 대다수 한국 어린이의 삶과 거리가 멀었다.

이처럼 정치와 언어 권력의 주체인 국가와 기득권층의 담론만이 제도 매체를 통해 일괄 주어졌고 그 밖의 관점이나 기억, 언어는 소거되었으며, 따라서 교수요목기 국어 교과서는 반공주의의 극단적 살벌함과 동심주의의 초월적 평화로움이 기묘한 대비를 이루었다. 정치권력에 교육이 철저히 복속된 상황이었기에, 어린이를 ‘위한’ 교육의 내용도 공식적으로 허용된 관점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2) 교과서와 반공의 규율

(1) 반공 체험의 절대화

전쟁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자 교육이 재개되었으나, 당장 교과서가 없었기에 문교부에서는 『전시학습지도요항』을 발간하여 각 학교에 보급하였고 교사들은 이를 중요한 지침으로 삼았다. 『전시학습지도요항』의 취지를 요약하면 전시체제라는 ‘시대성에 적합’한 교육의 강조, ‘생활중심교육’을 강조하였다.⁸²⁾ ‘생활중심교육’은 교과서의 부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했고, 어린이들이 실제 목격하고 겪은 전쟁을 교육 목표로 삼음으로써 반공 교육효과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사회생활과는 모든 단원에서 전쟁과 연관되는 학습문제를 제시할 정도였다.

82) 문교부, 『초등학교 전시학습지도요항』, 1951, 1~2쪽.

<표5> 국민 학교 『전시학습지도요항』 사회생활과 학습단원 83)

학년별 주제	단원명
우리집, 우리 학교 (1학년)	1.우리집 2.우리학교 3. 이길 때까지
우리고장 (2학년)	1. 싸우는 우리 마을 2. 고마운 사람들 3. 좋지 못한 사람들 4.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사는 도 (3학년)	1. 싸우는 우리 도 2. 우리 도와 다른 도 3. 모든 것을 전쟁에
싸우는 우리나라 (4학년)	1. 싸우는 우리 나라 2. 우리나라의 교통 3. 우리나라의 도시 4. 남한과 북한 5. 우리를 돕는 나라 6. 통일될 날까지
유엔의 나라들 (5학년)	1. 유엔 2. 민주주의국가와 공산주의국가 3. 한국사변과 유엔 4. 우리를 돕는 나라들 5. 우리와 맞선 나라들 6. 제 2차대전에 패한 나라들 7. 자유를 위하여
우리 민족의 걸음 (6학년)	1. 한국사변 2. 오랑캐의 침략 3. 8·15 해방과 순국선렬 4. 충성을 다한 이순신 5. 나라를 위한 화랑들 6. 우리문화와 세종대왕 7. 한나라 한백성 8. 우리나라와 유엔 9. 우리나라의 부흥을 위하여

교사용 지침서였던 『전시학습지도요항』에 이어, 문교부에서 교과서 대신 시급히 제작 배포한 『전시생활』(51년 3월 발행)은 그 영향력이나 내용면에서 체험적 반공 교육의 실질적인 기원을 이룬다.

<표6> 국민학교용 전시교재 발행현황

구분	1집	2집	3집
전시생활 1 (1·2학년용)	비행기	탱크	군함
전시생활 2 (3·4학년용)	싸우는 우리나라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씩씩한 우리 겨레
전시생활 3 (5·6학년용)	우리나라와 국제연합	국군과 유엔군은 어떻게 싸워왔나	겨레를 구원하는 정신

‘탱크’ 등 무기 이름을 교재 명으로 삼은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듯, 전 단원 전 단락이 전쟁 상황과 관련되어 있고 전쟁 승리를 독려하는 내용으로

83) 김남수, 앞의 논문, 43쪽.

된 점은, 전쟁 상황의 다급함과 어린이 연령에 개의치 않는 사상전으로서 교육의 성격을 말해준다. 『전시생활』은 과목 분류가 따로 되어 있지 않았으며, 1·2학년용 교재는 비행기와 배의 종류와 이름 알기, 유엔군 국기 색칠하기, 동요 부르기, 위문편지 쓰기 등으로 되어 있어 사회생활을 중심으로 국어, 미술, 음악 등 종합 교과목의 성격을 지님을 알 수 있다.

3·4학년용 교재는 대구·부산에서의 파란 생활, 전쟁 상황과 유엔에 대한 소개, 길을 고친 이야기, 국군과 제 2 국민병으로 나간 집 도와주기 등 동화적인 서술을 통해 전쟁 체험의 비참함과 공포를 환기시키며, 공산군에 대한 부정적 기술을 통해 자연스럽게 적개심을 고취하였다.

5·6학년용 교재인 『우리나라와 국제연합』(전시생활 3-1)가운데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단원을 보면 공산주의를 이렇게 설명하였다.

여러분은 꼭두각시놀음을 아는가? 꼭두각시놀음에 나오는 꼭두각시들은 무대 뒤에 있는 조종사가 시키는 대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춤도 추고, 싸우기도 한다. 소련은 이 조종사이며, 다른 나라의 공산당들은 생명도 없고, 자유도 없는 가엾은 꼭두각시들인 것이다. 소련은 이러한 꼭두각시들을 앞잡이로 세워 공산주의의 세력을 온 세계에 퍼뜨리려고 한다. 북한 공산군의 괴수 김일성이나, 중공의 모택동이 다 이러한 꼭두각시들이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북한의 공산군이나 중공 오랑캐들이 어째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⁸⁴⁾

이 글은 반공주의의 입장에서 공산군을 규정하는 기본 관념을 말해준다. 공산군은 고유한 생명력과 인격을 지닌 주체가 아니라 줄에 매어 조종당하는 한낱 꼭두각시(괴뢰)일 뿐이므로 그들을 처단하는데 일말의 가책도 느낄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북한군을 오직 ‘섬멸의 대상’으로 묘사한 사례로는 『국군과 유엔군은 어떻게 싸워왔나?』(전시생활 3-2)를 들 수 있다. 이 책은 북한의 남한 침략 시

84) 문교부, 『우리나라와 국제연합』, 1951, 13쪽.

점으로부터 교재 발행 시점까지, 전쟁 발발부터 시간적 경과에 따른 한반도 점령 상황을 지도로 한눈에 보여 주며, 각 지역별 전투상황을 생생히 묘사하였다. 적을 ‘괴물’ ‘악마’ ‘야수’ ‘원수’ 등으로 표현하며 극단적 적개심과 증오감이 그대로 표출하였고, ‘사람이 아닌’ ‘적’의 죽음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일이었다.

8월에 들어 적은 큰 타격과 손해를 무릅쓰고 계속한 결과 일부는 낙동강을 건너왔으나, 이렇게 건너온 적의 수보다 몇 백 배나 되는 적이 낙동강의 고기밥이 되어, 결국 성공하지 못하였다. 8월 그믐께가 되어 지칠 대로 지친 적은 작전을 어서 끝마치고자 몇 번이나 총공격을 감행하여 왔으나, 왜관 근처에서 99대의 명석말이 폭격으로 말미암아, 4만 명의 대 부대가 결정적으로 섬멸당한 것을 비롯하여, 곳곳에서 패하고 말았다.⁸⁵⁾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는 남북 양쪽의 소수 집권층과 한민족과 무관한 미국과 소련인 반면, 영문도 모른 채 전쟁에 동원되어 피아간에 죽이고 죽어간 이들은 남북한의 힘없는 동족이었다.⁸⁶⁾ 유엔군이 B29기 99대의 ‘명석말이 폭격’을 하며 아군과 양민과 마을과 문화재와 농토 등을 일일이 구분하였을 리도 없다. 그러나 ‘죽고 죽이는’ 급박한 전쟁 상황 자체가 국민들을 공포에 빠뜨렸고 당장 눈앞의 ‘적’을 처단 대상으로만 여기게 만들었다. 더구나 국가는 공산군은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온 인류의 적’이며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대표’하여 성전(聖戰)을 치른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전의를 고취하였다.

우리는 이 인류의 대적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쟁

85) 문교부, 『국군과 유엔군은 어떻게 싸워왔나?』, 1951, 12쪽.

86) 리영희, 『분단을 넘어서』, 한길사, 1984, 297쪽.

“학교개나 다닌 젊은이들은 어디 가고, 이 틀림없는 죽음의 계곡에는 못 배우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 나라의 불쌍한 자식들만이 보내지는가? 나라 사랑은 힘없는 자들만이 하는 것인가? 전쟁과 군대를 알게 될 수록 나는 점점 더 사색적이 되어 갔다. 그럴수록 이 나라의 기본부터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얼마나 뜻이 깊은 전쟁이며, 얼마나 거룩한 사명을 가진 전쟁인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어떠한 곤난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물리쳐 나가며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⁸⁷⁾

대한민국은 ‘정의를 위하여 싸우고 있으니,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이러한 당위성은 자연스럽게 어린이들의 전쟁 참여 촉구와 구체적인 방법 제시로 이어졌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쳐 싸우고 있는 우리 국군과 유엔군에게 깊이 감사하고, 이들 장병에게 한 장의 위문문, 한 가지의 위문품이라도 더 많이 보내도록 해야겠다. 우리는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하여 모든 물건을 아껴 쓰고, 싸움에 필요한 물건을 바쳐야 하며, 군대를 돕고, 싸움에 이바지 될 일이라면 무슨 일이고 힘껏 해야 하겠다. 우리는 굳센 몸과 마음을 길러, 우리도 앞날에 빛나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씩씩하게 싸울 준비를 해야겠다.⁸⁸⁾

어린이는 후방의 지원군이자 미래의 ‘병정’으로 당연히 상정되며, 어린이의 ‘몸’뿐 아니라 ‘마음’도 전쟁 승리를 위한 자원으로, 국가에 속한 것으로 전제됨을 볼 수 있다.

『우리도 싸운다』(전시생활 3-1)는 믿음을 실행으로 옮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어린이 화자를 내세워 제시하였다. 어린이들은 전쟁 ‘승리를 위하여’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반성하고 부끄러워하며, 학급회의를 하여 자신들이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열렬히 토론하고 실행에 옮긴다. 위문편지 쓰기, 육군병원과 신병교육대에 위문 가기, 방공 포스터를 그려서 마을에 붙이기, ‘싸우는 문집’ ‘싸우는 신문’ 만들기, 동구 밖 국도 고치기 등 구체적인 방법들이 제시된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진격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개간 작업장

87) 문교부, 『우리도 싸운다』, 1951, 6쪽.

88) 문교부, 『국군과 유엔군은 어떻게 싸워왔나?』, 1951, 30~31쪽.

으로 가서 바윗돌과 나무뿌리를 파낸다. 자신들도 ‘국가적인’ 중대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뿌듯함이 어린이 마음에 가득하고, 부상군인을 위문하여서는 ‘너무 감격하여 목이 메’기도 하며, ‘언제까지나 헤어지기 싫은’ 느낌을 받기도 한다. 실제 어린이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난 것이 아닌 국가의 ‘교육 정책’에 의해 설정된 이러한 ‘모형적 상황’은 교재로서 전국에 배포되었으며, 각 학교현장에서는 이를 프린트해서라도 수업을 하였다.

어떤 목적으로 누가 일으킨 전쟁이었건, 이미 벌어진 전쟁은 현실적 죽음과 고통을 가져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이들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역사적 맥락은 알지 못하고 전쟁으로 인한 ‘공포와 고통’만은 알고 있는 어린이들은, 제도적 권위를 통해 주어진 정보와 지식을 의심 없이 믿고 내면화 하였을 것이다.

(2) 친미·반북 의식의 강화

전시교재에 이어 51년 2학부터는 충분한 양은 아니었지만 정식 교과서가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1951년 8월에 발행된 『국어』 교과서를 살펴보면, 전쟁 이전에 발행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던 내용 일부에 전시교재에서 발췌한 내용이 혼합된 형태이다. 『국어』 5-1을 예로 들어 살펴보자.

<표7> 전쟁 전후(前後) 『국어』 5-1 목차 비교

1950년 3월 발행 교과서			1950년 8월 발행 교과서
· 우리 민족성	· 전화국 구경	· 도마스 에디슨	· 무궁화
· 부산	· 김정호	· 주시경	· 우리 민족성
· 소나기	· 월광곡	· 음악가 마리오	· 화랑도
· 깨끗한 마음	· 동물의 몸빛	· 집	· 김정호
· 반달	· 도회와 시골	· 돈의 내력	· 싸우는 일기
· 물건값	· 은행	· 한석봉	·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 기러기	· 화랑도	· 구진천	·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 최 영 장군	· 우리 예법	· 새해맞이	· 월광곡
· 옛 시조	· 봉죽놀이	· 팔려간 말	
· 산불	·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 격언	
· 봄맞이	· 백두산		

『전시생활』 3-1에 수록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⁸⁹⁾와 3-3에 수록된 「싸우는 일기」가 수록됨으로써, 임시교재가 아닌 ‘공식적 교과과정’에 반공주의가 정식으로 등장함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선과 악으로 단순도식화 한 것이었다.⁹⁰⁾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각 개인이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존중하며, 그 정부는 이러한 각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일을 한다’고 하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이상’이 실현되는 것으로 묘사한 반면, 공산주의는 백성⁹¹⁾을 ‘기계나 짐승, 노예처럼 다루고’, ‘국민을 속이고 어둠 속에 가두어’ 놓으며, ‘갖은 음모와 모략을 다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침략을 일삼’기에, 국민의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불쌍한’ 형편이라 하여, 부정적 ‘현실’ 위주로 언급하였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단원은 전시생활 3-1에 실린 내용 일부를 거의 그대로 교과서에 수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국민의 권리’ 부분만 일부 삭제되어 있어 그 의도가 주목된다.⁹²⁾ 이밖에도 「우리를 돕는 유엔」, 「위문편지」, 「서울 탈환」 등 전시교재의 내용 일부가 각 학년 국어 교과서에

89) 전시생활에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되어 있다.

90) 50년대에는 전 교재에 이분법적 이미지의 ‘그림’을 통한 상징 학습 효과가 특히 주목된다. 교사용 교재에 공산주의는 천사와 대비된 악마 이미지, 사나운 곰, 큰 칼을 든 해적 등으로 그려져 있고, 공산주의 세계 주민은 입에 재갈을 물린 채 수많은 짐을 지고 기어가는 노예 등으로 묘사되어 있다. 고학년 교재에도 군인들이 총을 겨누고 있는 가운데 떨어진 투표를 하는 ‘공산주의’ 세계와, 세련된 차림새의 시민들이 자유롭게 투표하는 ‘민주주의’세계를 한눈에 대비해 보여준다. 연령적으로 아직 어린 1,2학년 교재에는 언어를 통한 반공주의 담론이 자체된 반면, 국군 아저씨의 활약상을 보여주는 그림 등 ‘이미지’를 통한 ‘무의식적 반공교육’이 주목된다. 그림은 연령과 국적을 초월한다는 점에서, 시각적 상징 이미지를 통한 반공교육이 한국인의 무의식에 미친 영향력은 깊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91) ‘백성’은 전근대적 봉건시대, 즉 ‘임금’이 백성 위에 군림하던 시대의 용어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92) 삭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자기의 생각을 말로나 글로써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는 권리, 2)법에 없이 재산을 빼앗기거나, 매를 맞거나 갇히거나 하는 일을 당하지 않을 권리, 3)마음대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의논할 수 있는 권리, 4)자기가 믿고 싶은 종교를 자유로 믿을 수 있는 권리.

재수록 되었고, 매해 문장을 손질하거나 논리를 보강하는 등으로 수정 보완을 거듭하며 50년대 내내 반공교육의 논리적 근거로 삼았다.

그런데 전시교재에서 재 수록한 글들은 이성이 마비된 전시 상황에서 집필되었기에, 북한과 공산주의에 대한 무조건적인 적개심과 증오감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는 특징이 있다.

시민들은 공산당들의 상상한 이상으로 악독한 짓에 몸서리를 쳤다. 그들이 우리 겨레가 아니고 한낱 소련의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사람이 아니고 총칼을 든 짐승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모든 애국자들을 눈에 떠는 대로 학살하였고, 아버지를 잡아 죽였고, 오빠를 끌고 갔고, 피 끓는 청년들을 따발총으로 위협하여 의용군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붙들어 갔다. (……)시민들은 유엔 비행기가 날아오면, 비록 자기는 폭탄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공산군을 한 놈이라도 더 없애주는 것을 바랐으며, 단 하루라도 비행기 소리를 못 들으면 불안하여 못 견딜 지경이었다. (……) 어머니는 쓰러진 어린애를 부둥켜안고 울고, 남편은 아내를 찾아 헤매는 모양은 그야말로 지옥 그대로이었다. 93)

전쟁의 원인과 고통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북한의 탓으로 돌리며, 가족주의를 자극하여 공산당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한껏 고취하고 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일반 국민들의 관점이라고 보기 어렵다. 유엔 비행기에 대한 서술 부분에서 ‘자기는 폭탄에 맞아 죽더라도 공산군을 한 놈이라도 더 없애주기를 바랐’다고 하지만, 자기 목숨이야 어찌되든 말든 적군을 한 명이라도 더 죽이기를 원할 정도로 공산군에 강한 증오심을 가진 국민, 특히 어린이가 과연 몇이나 있었을지 의문스럽다.

1952년 5월 5일에 발행된 소학생 작문집 『내가 겪은 이번 전쟁』에는 유엔군 비행기의 폭격에 관한 모티프가 수없이 등장하고 있어 그 위력과 일반 양민들이 느낀 공포감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하는데, 여기 나타난 어린이들

93) 「서울탈환」, 『국어』 6-1, 문교부, 1952.

의 진술은 교과서와 매우 다른 양상이다.

비행기는 우리가 있는 집을 향하여 낮추며 오더니 로켈포를 마구 쏩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연기와 먼지는 우리가 있는 방공호까지 날아오고, 앞이 보이지를 아니합니다. 얼마 후에 비행기 소리도 그치고, 연기와 먼지도 없어진 후에, 할아버지와 사촌들이 있는 집 지붕이 이지러진 것을 보고 어머니는 바빠 방공호를 뛰어 나오시고 우리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지하실로 뛰어 들어가시더니, 얼마 후에 사촌 누이 동생이 동생들과 이모님을 부축해 가지고 모두가 울면서 새까만 얼굴로 나옵니다. 한참 뒤에 작은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과 같이, 지하실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피투성이가 되어 죽은 사촌 동생 셋을 끌어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뜻밖에 일어서 울지도 못 하고 한참은 멍하니 바라보다가, 누가 울기 시작했는지 모두 걸잡을 수 없이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94)

갑자기 부르릉 부르릉 비행기 소리가 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사방에 빨간 불이 나서, 동네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기총 소사 소리가 들려오는데, 방공굴에 들어가지 못한 나는, 그만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고 멍하니 서 있으려니까, 할머니께서 동생 수송이 손목을 잡고 방공굴로 막 뛰어 가시면서, “수남아, 빨리 빨리 방공굴로 들어가자.” 하시는 소리에, 나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할머니를 따라 방공굴로 뛰었습니다. (……) 이틀 날 나와 보니, 하루 사이에 우리 집은 간 곳이 없고, 타다 남은 불덩어리와 이층 베란다에서 아버지와 내가 고이 가꾸던 화분 조각만 보였습니다. (……) 처음에는 죽도 맛이 있더니 점점 먹기가 싫어지고, 집안 식구가 번갈아 앓기 시작했습니다. 내 동생 수송이는 앓으면서, “어머니 사과나 밤이 먹고 싶어…… 좀 사줘”하며 어머니를 졸랐으나 사 먹어 보지도 못하고 그만 영양부족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과일만 보면 이 세상을 떠난 우리 동생 생각이 납니다. 95)

교과서에 실린 담론은 어린이 화자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 발화된 것은 타인의 목소리이다. 제도와 언어 지배력을 함께 가진 특정 계층의 논리가 국

94) 박주용, 윤석중아동연구소 엮음, 『내가 겪은 이번 전쟁』, 박문출판사, 1953.

95) 이수남, 『내가 겪은 이번 전쟁』, 위의 책.

민 전체의 논리로 일반화되어 주어졌고, 분석력과 비판력이 없는 어린이들은 타인의 이데올로기를 자신의 것인 양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 때의 타인은 물론 국가주체로 대표되는 기독교층이거나, 혹은 미국이기도 했다. 예컨대 1951년 겨울공부용 『전시독본』에 실린 「하늘의 짜입차」 단원에는 ‘아메리카에서는 헬리콥터를 농장에서 씨를 뿌릴 때나 목장을 돌볼 때 사용’하며, 많이 있지만 ‘아직 자동차처럼 어느 집에서나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는 내용의, 한국 현실과 무관한 미국 사회의 실정이 실려 있다. 또한 「눈을 보호하자」라는 단원에는 아메리카 안과 박사가 제시한, 방의 넓이에 따라 책 읽기에 적당한 ‘전등’의 밝기는 몇 ‘왓트’인지 제시되어 있어, ‘타자의 담론’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1951년에 ‘전등불 아래서 책을 읽는’ 현실은 대다수 한국 어린이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다.

「일본에 대한 강화조약」 단원은 미국과 일본 사이에 강화조약이 맺어졌음을 설명하며, ‘우리도 이 정신에 따라 일본의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고, 정다운 이웃 나라로 사귀어 서로 서로 잘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로 끝맺고 있다. 36년에 걸친 일제의 한반도 침탈로 인한 피해 자체도 헤아리기 전에, ‘과거’의 일로 돌리며 ‘용서’하고 ‘정답게’ 사귀라는 논리는 피해 당사자인 한국민의 시각에서 결코 나올 수 없다. 자신과 관계없는 ‘그들의’ 일로 바라볼 때 나올 수 있는 발상인 것이다.⁹⁶⁾ 집필자의 국적이 어디든 그 시각은 미국과 동일시되어 있고 한국과 한국민을 ‘타자(他者)’⁹⁷⁾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군과 유엔군에게 ‘남한’과 ‘북한’은 그 차이가 구별되지 않는 동일한 타

96) 1950년대 미국의 동북아정책은 ‘한미일 삼각안보체제의 구축’으로 소련과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97) 타자 [他者, the other]: 자기동일성을 나타내는 ‘동(同:tauton)’, 또는 성질적 통일로서의 일자(一者:to hen)에 대립되는 개념. M.부버나 G.마르셀은 자타의 인격적 관계와 비인격적 관계를 구별하여, 전자의 관계에서 타자는 ‘나’에 대한 2인칭인 ‘너’이며, 후자의 관계에서는 타자가 3인칭으로서의 ‘그’나 ‘그것’이며 거기서는 타자의 인격이 ‘나’에 의하여 대상화(對象化)되고 물화(物化)된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 타자는 3인칭의 의미로 쓰인다.

자에 불과하였기에, B29기로 전투지역과 민간지역, 북한지역과 남한지역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폭격을 퍼부었다. 그리고 미군이나 유엔군의 관점에 자신을 동일시하여 일반 국민들을 타자로 바라본 사람들에게도 누가 폭탄에 맞아 죽든 ‘공산당을 한 놈이라도 더 없애는’ 것이 중요하였을 것이고, ‘단 하루라도 비행기 소리를 못 들으면 불안하여 못 견딜’ 지경이었을 것이다. 타자의 삶이나 죽음보다 ‘전쟁 승리’만이 중요하였기에, ‘예비 병정’인 어린이에게 미리 ‘로켓포’를 그림으로 그려 각 부분 명칭까지 해설해가며 무기 자체를 학습하게 하였을 것이다.

로켓포의 주 목표물은 경전차(탱크), 장갑차, 차량 파괴, 그 밖에 적의 토오치카, 큰 건물, 큰 화기들이다. (……) 포 끝에서 탄알을 채고, 겨눔 거울이 있어서 이 유리 한가운데 목표물이 오도록 방향을 맞추어서 전기 장치로 쏘게 되어 있는 것이다. (……) 이 포는 전체의 길이가 약 153cm이며, 무게는 합금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서 약 5kg정도이며, 사격의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리는 약 50cm에서 700m, 큰 것은 900m이다. 탄알에 국방색을 한 것이 고폭탄이며, 회색을 한 것이 백인탄이며, 푸른색을 한 것은 연습탄이다. 98)

또한 이 시기에 어린이들은 국군은 물론이고, 미군과 유엔군에 대한 감사와 우호의 감정을 가지도록 제도적으로 교육되었다.

저 이리보다도 사나운 중공 오랑캐들을 쳐부수기에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살을 에는 듯한 눈보라 치는 별관과 얼음 위에서 귀한 몸 얼마나 고달프십니까? 따뜻한 나라 평화로운 고향이 얼마나 그리겠습니까? 부모 형제와 귀한 아들딸들이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습니까? 생각할수록 우리들의 가슴은 미어질 듯 아픕니다. (……)우리 대한민국 소녀들은, 자유와 평화를 목숨보다 더 아끼시는 아저씨들의 위대한 승리의 날을 하느님께 비우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99)

98) 대한교육연합회, 겨울방학용 『전시독본』, 1951, 17~19쪽.

99) 「위문편지」, 『국어』 4-2, 문교부, 1952.

유엔군 병사들의 한국전쟁 참전 이유는 세계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였다기보다 개인적 처지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었고, 그들에게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은 구분이 되지 않는 동양인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교과서는 그들을 ‘자유, 평화, 정의’의 수호자로 각인시켰고, 가족주의를 전유하여 어린이들이 마음으로부터 친근한 정을 느끼도록 유도하였다. 그리하여 현실 판단력과 분석력이 없는 어린이는 전시 교재에서부터 교육받은 타인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여 자기 생명력에 반(反)하는 허위의식을 보이는 것이다.

하루는 비행기가 부우웅 떠 와서 우리는 모두 방공호로 들어가려고 나오니까, 조명탄을 다섯씩이나 밝게 켜고 기관총으로 막 내려 쏘는 것이었다.

이렇게 무서운 판에도 유엔군 비행기라 그래도 안심이었다. 100)

방공호에 숨으려는 민간인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기관총 소사를 한 것은 크나큰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이미 반공교육에 길들여진 어린이는 자신과 가족이 몰살당할 뻔한 위해를 당하고도 정직한 분노의 반응을 표현하지 못하고 교육받은 타인의 담론을 발화하는 것이다.

교수요목기에 미국과 유엔군을 미화하여 어린이들에게 환상을 심어주었다면, 1차 교육과정기 교과서는 친미, 서구편향성이 더욱 선명히 두드러진다. 한국전쟁 이전의 교과서와 1차교육과정기 교과서 목차를 비교하면 그 차이를 한눈에 알 수 있다.

<표8> 『국어』 5-2 교과서의 목차비교

1949년 12월 발행	1956년 9월 발행
· 이순신 장군 · 봄소식 · 조선 · 팔려간 말 · 봄이 왔어요 · 산불	가을 · 노래 세 편 · 일기

100) 강희자, 『내가 겪은 이번 전쟁』, 박문출판사, 1953, 85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아씨의 꿈 · 평화한 마을 · 미음드레 · 심청 · 발명 · 황 희 · 제비 낚매 · 사자와 생쥐 · 박물관 · 부여 · 산림의 혜택 · 그물에 걸린 잎 · 첫여름의 구름 · 묶은 화살 · 콜럼버스 · 거미줄 · 유월 풍경 · 전염병 · 황소와 거미 · 제주도 여자 · 고기잡이 · 예방주사 · 박연폭포 · 저녁바다 · 자동차 왕 	<p>아름다운 우리 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말의 아름다움 · 인사와 경어 <p>아름다운 이야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름다운 신호 · 화랑관창 · 테임즈 강의 지하도 <p>음악이야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양의 음악가 · 월광곡 · 쇼팽 <p>적십자 정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팅게일 · 적십자사의 탄생 · 슈바이체르 <p>탐험이야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메리카의 발견 · 극지탐험 · 정으로 맺어진 탐험
---	---

전쟁 이전 교과서에 비해 1차 교육과정기 교과서에는 민족 전통과 관련된 내용이 일체 삭제되고 문학적이고 동심적인 부분 역시 사라진 대신, 과도한 서구 편향성에 교육적 효용성이 뚜렷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민족의 가장 새로운 부분을 이루는 어린이 전체에게 자기가 밭 딛고 있는 땅의 역사와 문화와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하는 대신, 타민족의 정체성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게 한 교과 내용의 경사는 국민들의 무비판적인 친미 친서구적 성향 형성에 크게 영향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전쟁 발발의 가장 큰 원인이 미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외세의 이해관계에 있고, 또 양대 세력에 의존하는 특정 지배계층의 사적 이해관계의 극단적 대립의 결과물이었다는 점에서, 50년대의 반공과 친미는 실상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101)

그런가 하면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교과서에 반복 이데올로

101)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한국현대사2』, 풀빛, 1991.100쪽.

이승만 정권 시기의 극단적인 반공 이데올로기는 단지 개인적인 차원의 성향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필요에서 나온 산물이었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은 1950년 2월 ‘극동경제원조법’에서 “한국이 공산당원이나 북한 정권의 지배하에 있는 당원을 하나 혹은 그 이상 포함하는 연립정부를 세우는 경우 이 원조는 중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1950년대 미국의 대한정책은 소련과 중국을 봉쇄하는 전진기지로 설정하는 것이었다. 즉 남한이 철저한 반공국가로서 존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했던 것이다.

기는 나타나지 않았고, 북한에 대해 한나라(한영토) 한민족 의식을 보여주었다. 전쟁 직전인 1950년 3월에 나온 국어 4-2를 보면 ‘서울구경’과 ‘개성’이 나란히 실려 있고¹⁰²⁾, 아래 내용에서 볼 수 있듯 ‘우리나라’로 칭해지고 있다.

사백 여 년 동안 고려의 옛 서울이었던 개성을 찾아서 역에 내린 것은, 따뜻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이 개성이 지금은 우리나라에 새로운 힘을 돋우어 주는 곳입니다. ¹⁰³⁾

또,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다함께 국부로 추앙받는 ‘손문’을 한 항목(국어 5-1, 1949)으로 학습하는 등, 중국에 대한 기술 역시 적대적이지 않았다. 즉 이 때까지만 해도 반공의 대상이 북한이나 중국이 아니라 소련이었고 냉전 이데올로기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한국전쟁을 계기로 반공주의는 곧 ‘반북’(反北)을 함의¹⁰⁴⁾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싹싹 쓸어내자, 쓰레기와 오랑캐”(국어 5-1, 1953)라는 표어에서 볼 수 있듯 중공군도 인격이 제거된 채 쓰레기와 동급의 ‘쓸어내야 할 물질’로 비하됨을 볼 수 있다.

(3) 전체주의적 시각의 전면화

전쟁 이전의 ‘민족’과 ‘겨레’가 같은 핏줄을 의미하였다면, 전쟁 이후 교과서에서는 ‘남한국가’에 속한 국민에게만 그 자격이 부여되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선 다음에 바치는 세금은, 그 전에 내던 세금과 달라서, 우리겨레가 잘 살기 위하여 공산당과 싸우고, 전쟁에 파괴된 살림을 다시

102) 이 밖에도 경기도 시흥군의 ‘염밭’과 북한 지역의 ‘외금강’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였고,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봄을 맞는 조선과 만주의 풍경을 그린 ‘국경의 봄’, 개성 천마산 관음사의 전설을 그린 ‘소년 조각가’도 함께 실려 있다.

103) 「개성」, 『국어』, 문교부, 4-2, 1950. 3.

104) 강진호, 『역사비평』, 2005. 겨울호.

세우는 데 쓸 것일래요. 우리나라 싸움을 우리가 아니하고 누가 해요. 제가 번 돈이 탄환이 되어 공산군을 무찌르고, 나라살림에 보태게 되면 좀 좋아요. 105)

전쟁 발발 전인 1950년 『국어』 6-1교과서에 실린 「고무신」 단원에는 공산당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밑줄 그은 부분은 51년 교과서에 새로이 첨가되었다. 우리 겨레(우리나라)와 공산당(공산군)을 적대적으로 분리하여 교과서에 명시함으로써, 남한 ‘나라’에 속하지 않은 그들은 같은 ‘겨레’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전시체제부터 50년대 내내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제 하에 교육 정책과 시책이 이루어졌고, 교육은 정치권력에 복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국가는 권위와 정당성을 독점한 채 전체주의 관점을 집중 유포하였다. 국민들이 왜 세금을 내야 하는가를 적극 가르치고 설득하는 위의 단원도, 정당한(정당해 보이는) 교육체계를 통해 국가의 입장(만)을 강하게 주장한 한 사례이다.

“그렇지만 돈이 있어야지요. 보시다시피 남의 땅을 소작하여 살림이 구차하니, 세금 낼 돈이 있어야지요.”

세무관리는 참 딱하다는 눈치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먹고 나머지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살림을 위해서 우선 바쳐야 할 의무입니다. 우리나라도 당당한 대한민국 정부를 세워서, 세계 각국과 같이 남부끄럽지 않은 국가를 이룩하려는 이때, 제일 필요한 것은 재정입니다. 국민이 모두 세금을 바쳐서, 학교를 늘여서 의무교육도 실시하고, 철도를 고쳐 교통을 편리하게 하고, 관청을 두어 사무를 보고, 경찰과 군대로 나라를 평온하게 하는 것은 모두 나라 살림입니다. 우리 살림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모처럼 세운 새 나라가 살림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106)

‘간신히 그날그날을 지내는’ 가난한 집의 아이 병수는, 학교에서 오는 길에

105) 「고무신」, 『국어』 6-1, 1951.

106) 「고무신」, 『국어』 6-1, 1951.

날마다 벌목장의 장작을 날마다 한 짐씩 날라다 주고 받은 돈으로 아버지께 고무신 한 켤레만 사 달라고 부탁한다. 그런데 세무관리가 체납된 세금을 받으러 오자, 병수가 고무신을 사려던 돈을 기꺼이 내어 놓는다는 내용이다.

날마다 힘든 노동을 하면서 고무신 살 돈을 모은 병수의 어린이다운 욕망, 꿈, 기쁨이 소거된 대신, 병수의 입을 빌어 타인의 담론이 발화된다. “제가 번 돈이 탄환이 되어 공산군을 무찌르고 나라 살림에 보태게 되면 좀 좋아요.” 당장 아이의 고무신 한 켤레를 살 돈이 없는 피폐한 형편의 집에 ‘관청을 두어 사무를 보고’ ‘경찰과 군대로 나라를 평온하게’ 해야 함을 당당히 주장하는 세무관리의 논리는, 국민의 ‘삶의 질’이나 ‘권리’에는 관심이 없고 ‘의무’ 이행만을 촉구하는 국가주의 관점을 여실히 반영한다.

각 학년별 교과서의 단원 편성과 내용 자체가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거니와, 전후에 처음으로 교과서에 등장하는 「표어」와 「포스터」는 그 대표적 사례로 손꼽을 수 있다.

자나 깨나 나라 사랑, 자나 깨나 불조심.
받들자 우리 대한, 바치자 나라 세금.
언니들은 일선에서 우리들은 학교에서. 107)

한겨레, 한나라, 한 글로 뭉치자 108)

잡아내자 오열
길이 빛내자 대한민국 109)

속담, 격언 등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 자산이 되는 경험이나 지혜가

107) 「표어」, 『국어』 5-1, 1953

108) 「표준말과 사투리」, 『국어』 4-2, 1956

109) 「표어와 포스터」, 『국어』 4-2, 1956

함유되어 있다면, 표어나 포스터에는 특정인들이 의도하는 이데올로기가 담겨있다는 차이가 있다.

위의 표어는, 국민으로 하여금 자나 깨나 나라를 ‘사랑’하고, ‘받들고’ 세금을 ‘바치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 ‘공부’하라고 세뇌한다. ‘한겨레, 한나라, 한글로 뭉치자’는 표어도, 이승만의 일민주의를 환기시킨다. 그러나 이 한겨레나 한나라 속에 ‘북한국가’와 연관된 국민은 포함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간첩을 잡아 ‘대한민국’을 같이 빛내자는 표어에도 반공주의와 국가주의 이데올로기가 착종되어 있다. ‘나라’ ‘겨레’ ‘국가’ 등 추상적인 관념으로 포장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끝없는 충성과 희생만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국가를 내세운 전체주의 담론은 실질적 반공교육을 위해 따로 편성한 『도의』 교과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이루어졌다. 문교부 추천 국민학교 도의독본 『착한생활』(1955)의 내용 일부를 살펴보자.

“…… 우리들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며 날마다 훈련을 받아, 몸과 마음을 튼튼히 하여 언제든지 명령만 내리면, 오랑캐를 무찌르고 북으로 북으로 진격하여, 백두산 상봉에 태극기를 날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의 책임은 크다. 우리들이 이 말은 책임을 다하여야만, 후방에 있는 온 겨레들이 안심하고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영육아, 너도 열심히 공부하고,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해야만 장차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¹¹⁰⁾

「자유와 책임」은 군인인 오빠가 보낸 편지를 보며, 영육이가 자신도 맡은 일을 힘껏 하리라 다짐하는 내용이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전투 기능 향상을 위해 날마다 ‘훈련’하고, 병사로서 나라의 것인 ‘몸’을 ‘튼튼히’하고, ‘언제든지 명령만 내리면’ 기계처럼 ‘북으로 북으로 진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군인이야말로, 이 시기 국가가 어린이들에게 가장 바람직하게 제시하는 ‘책임 있는’ 국민의 모델임을 알 수 있다.

110) 「자유와 책임」, 『착한생활』, 문교부 도의독본, 1955. 66~67쪽.

다음의 예문도 국가가 원하는 국민의 성격을 명확히 보여준다.

공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기계들은 여러 가지 조그만 부속품이 기계가 돌아가는 것을 돕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치 이 기계처럼, 모든 국민이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해야 좋은 나라가 된다.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공장 일을, 바다에서 고기잡이 일을 하는 사람은 고기잡이를 열심히 해야 한다. 만일, 모두가 나라를 다스리는 일만 맡으려들거나, 모두가 회사에만 다니려고 한다면, 그 나라는 망하고야 만다. 111)

국민 개개인을 개별 주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 존재로만 보고 기계의 부속품과 동일시하는 시각이다. 부속품이란 단지 ‘전체에 속한 소모품’으로서, 꼭 그 자리에 있어야 하긴 하지만 반드시 그 제품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수많은 부속품으로 이루어진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하나의 부속품도 말썽 없이 원래의 제 자리에서 ‘열심히’ 제 기능을 다 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하다. 마찬가지로 전체 국민을 개별 중심 주체가 아닌, 일괄적으로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면, 주어진 계급에서 이탈하거나 특히 상승 지향적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된다. 근대적 제도와 논리로 합리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결국 왕조시대 지배계급의 봉건적 관점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창수야, 자 용기를 내어라.
이 크나큰 군대의 한 병정이여!
네의 책은 곧 무기이며, 너의 반은 곧 소대요,
싸움터는 이 세계요, 승리는 인간의 문명이란다.
창수야! 너는 훌륭한 용사가 되어 다오. 112)

111) 「나는 국민」, 『착한생활』, 위의 책, 74~75쪽.

112) 「너희들의 책임」, 앞의 책, 72쪽.

국민을 ‘추상적 전체의 일부’로만 인식하였듯, 어린이에 대한 국가의 관점 역시 ‘크나큰 군대의 한 병정’으로, 인격 전체가 아니라 그의 ‘기능적 유용성’에 가치를 부여하는 관점이다. 어린이의 개별적 삶, 생명의 주체적 발전 대신, 막연하고 추상적인 그 무엇 ‘위해’ 싸우고, ‘목숨까지도 바쳐야 하는’ 병사의 아이덴티티를 주입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와 민족, 세계 같은 추상적인 거대담론을 끊임없이 들먹임으로써, 비록 어리지만 대단히 중요한 일에 참여한다는 허위의식을 어린이들에게 심어주어 현실 토대에 대한 성찰과 비판의 계기를 제거하고 있다.

한편, 정치적 기반이 취약하였던 이승만 정부는 북한침략으로 인해 상대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국내 정쟁세력을 물리치고 정치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정권 초창기부터 이승만 개인숭배와 우상화 흔적을 교과서에서 찾기가 어렵지 않지만, 전쟁과 휴전 이후 그 성향은 더욱 심해진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일찍이
“몽치면 살고 헤치면 죽는다.”

고 삼천만 겨레의 단결만이 새 나라를 세워서 행복스럽게 살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이 말씀은 우리 겨레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에게도 알맞은 말씀이요, 세계 민주주의 나라에도 공통이 되는 가르치심이다. 113)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미국에 가셔서 싸우시다가, 지금부터 10여년 전에 일본이 물러가자 곧 돌아오셔서,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대통령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유관순 누나와 할아버지들처럼 씩씩한 사람이 되어서 훌륭한 일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114)

그나마 『국어』 교과서에서는 개인 우상화가 교묘하고 자제된 방식을 보인다면, 『도의독본』이나 『반공독본』 등 반공교육을 위한 교재에서는 이승만

113) 「우리 겨레」, 『국어』 6-2, 1952, 10~11쪽.

114) 「삼일절」, 『국어』 2-2, 1959. 78~79쪽.

개인 숭배와 우상화의 극치를 보여준다.

미국 국회 의원들은 리 대통령의 불을 토하시는 것 같은 말씀에 찬성하고 탄복하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며 그칠 줄을 모르고 박수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웅장한 의사당이 뒤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 누군가,

“리승만 대통령 만세!”

하는 소리가 나자, 이에 따라서 사방에서

“대한민국 만세!”

“자유의 여러 나라 만세!”

“세계의 반공의 위대한 지도자 만세!”

하며 고향치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당 안은 글자대로 물 끓듯 하였습니다.

노 대통령의 열렬하신 말씀은 각국 신문 기자, 통신 기자의 손으로 전파를 타고 세계에 널리 퍼져 갔습니다.

리승만 대통령 각하의 훌륭한 말씀에 자유 세계의 여러 나라는 더욱 마음을 합치고 힘을 모으게 되고, 한편 공산당들은 무서워서 떨게 된 것입니다. (……) 이에 감동한 미국의 몇 대학교에서 리 대통령 각하께 박사 학위를 올리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반공 지도자라고 찬양하는 글을 발표하였습니다. 115)

『전시교재』와 『반공독본』은 모두 반공교육을 목적으로 제작 배포한 교재이므로 그 내용이 똑같이 반공주의 일색이지만, 『전시교재』가 급박한 전쟁 상황에서 적대적 힘에 대한 대항적 성격을 가졌다면, 휴전 후 발행된 『반공독본』은 특정 이데올로기의 ‘자의적 조작 유포’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논리적 필연성도 내적 설득력도 갖추지 못한 채 오직 반공 이데올로기의 주입의 ‘목적’만을 드러내는 내용이, 선과 악, 애국과 애족, 세계 평화 같은 추상적 거대담론으로 포장된 채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제도적으로 주어져, 반공주의의 집단적 내면화 과정을 촉진하였던 것이다.

115) 반공독본(문교부 인정), 이문당, 1956, 62~65쪽.

청년은 붉게 타오르는 새벽 햇살을 받아가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노래만 곱게 곱게 부를 뿐입니다. 빨갱이들은 미친 듯이 날뛰며 청년의 목을 얼싸안고 노래를 못하게 막으나, 청년은 빨갱이의 두 팔을 꼭 잡고서,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하고 부르니, 빨갱이 하나가 옆에 총을 가지고 있다가 청년의 허리를 겨냥하여,

“따르륵 따르륵”

내갈겼습니다.

총을 맞은 청년은 그래도 여전히 웃는 낯으로 노래를 계속하며 뒤의 푸른 나무 위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청년의 목숨은 끊어졌으나,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어리어 있었습니다. 116)

50년대 교과서는 나라와 민족, 자유와 평화 같은 추상적 거대담론을 앞세워 ‘전체’를 위한 국민 개개인의 희생과 봉사를 당위로 가르쳤고, 어린이의 참여를 촉구하였다. 실상 전쟁을 일으킨 주요 원인 제공자이면서 이승만은 전쟁으로 인한 희생과 고통은 국민에게, 잘못과 책임은 북한 공산당에 전가함으로써 모든 ‘어둠’은 타자의 몫으로 돌리고, 자신은 선·정의·자유 의 화신으로 ‘빛’을 독점하며 정치적 정당성과 국가권력을 장악하고자 하였다. 이런 현실에서 교육은 독자성을 지니지 못한 채 전체주의 사고를 제도적으로 주입하여 어린이의 개별성을 억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승만을 유관순과 나란한 애국 투사로 떠받들고 세계의 반공 십자군을 이끄는 위대한 반공 지도자로 미화하는 데서 볼 수 있듯, 정권에 영합하여 왜곡된 정보와 지식을 무책임하게 확산시키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학교와 교실 차원에서 이루어진 반공교육 실천 환경은 어린이들의 반공 이데올로기 내면화를 촉진하였다. 조회 시간의 반공 교육, 반공주간 설정, 반공 포스터 그리기, 반공 표어 및 반공 글짓기 대회, 반공 웅변대회,

116) 「동해물과 백두산이」, 『반공독본』, 위의 책, 20~21쪽.

국군 위문 활동 등, 학교 별로 다양한 반공주의 행사가 시행되었고, 학교단 위뿐 아니라 시·도 단위, 전국단위까지 확대되었다.

반공 교육 생활화의 구체적 실현 양상을 보여주는 당시 현상논문의 일부를 살펴보자. 아래 표는 경남 선영국민학교의 반공·방일교육 실천 안을 연중 학기별, 계절별, 월중별로 작성한 것 가운데, 3학년의 6월중 실천 안이다.

<표9> 경남선영국민학교 반공·방일교육의 자료와 실시계획안(1957)¹¹⁷⁾

단원	6·25사변과 낙동강	기간	自6월1일 至6월 30일 3주간 (245분)
지도목표	6·25사변 6주년을 맞이하여 6·25사변을 상기시키고 공산주의의 침략적 근성과 6·25때 겪은 공산주의의 무도함을 재인식시켜 공산주의 정치의 흉악성을 알게함을 목표로 함.		
환경설치 및 자료	○6·25사변도 및 6·25사변사 책 ○6·25를 상기시킬 수 있는 포스타 ○6·25때 부서진 우리고장의 건물 및 교량의 사진		
반공방일 생활실천 강조점	○6·25는 공산주의가 불법 남침한 것이다. ○6·25전에 북한은 전쟁 준비를 했다. ○6·25때 공산주의자는 많은 양민을 죽였다. ○지금도 북한은 전쟁준비를 하고 있다.	예상되는 중요행 사	○6·10만세기념일 ○반공포로석방기념일 ○6·25기념행사 .교내옹변대회 .교내전시회 (6·25포스타) (6·25작문글씨)

학교생활의 반공환경 구성이 문교부의 교육정책에 명시된 사항은 아니었지만, 50년대에 반공 교육은 생활영역에 뿌리를 내렸다. 반공 교육이 정부에 의해서만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각 학교장이나 교사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던 것이다.

“지배문화는 지배계급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 기여한다(지배계급 모든 구성원 사이의 소통을 촉진시키고, 그들을 다른 계급성원으로부터 구분함으로써),

117) 이수곤, 「반공·방일교육의 방안」, 『문교월보』, 34호, 1957, 46쪽.

지배 문화는 전체 사회의 허구적 통합에도 기여하는데, 그리하여 피지배계급들을 무관심(허위의식)으로 이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구분들(위계들)을 확립하고 이들 구분들을 정당화함으로써 기본 질서의 정당화에 기여하게 된다”¹¹⁸⁾고 할 때, 민족의 ‘유년기 전체’에 교과서를 통해 ‘제도’적이고 ‘생활환경’적으로 주어진 반공 ‘이데올로기’는 성인이 된 후에도 무의식으로부터 당연하여 의문시 되지 않는 억견(doxa)의 상태를 유지하게 하고¹¹⁹⁾ 정치에 무관심한 성향을 갖게 함으로써, 기득권층 위주의 사회질서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게 하는 심리적 토대 형성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118) 피에르 부르디외, 정일준 옮김,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 새물결, 1997, 96~97쪽.

119) 피에르 부르디외, 위의 책, 57쪽.

다양한 종류의 시장이 있듯이, 다양한 종류의 자본(‘경제적’, ‘문화적’, ‘상징적’)이 있으며, 장들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의 하나는 특정한 종류의 자본을 다른 자본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최대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보존하는 전략 쪽으로, 즉 기존의 구조 자체가 의문시되지 않는 억견(doxa)상태를 유지하는 쪽으로 나아가려 한다.

제Ⅲ장 아동문학과 반공주의의 상관성

1. 1950년대 동화 · 아동소설

동화와 아동소설은 같은 산문문학이면서도 장르 속성이 다르다.

동화는 신화적 세계관을 이어받은 전통적 장르이고, 소설은 근대에 탄생한 문학 양식이다. 소설이 자아와 세계(사회)의 관계를 사실적, 현실적, 객관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데 비해 동화는 시적, 은유적, 상징적인 방법으로 ‘진실’을 말하고자 하며, 주로 인간 내면의 발달—궁극적으로 인간의 자기실현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특징을 갖는다. 자기실현은 다른 말로 개성화(Individuation)라고도 하는데, 이는 그 사람 자신이 된다는 뜻이다.¹²⁰⁾ 또 자아와 세계의 관계로 살펴보면, 동화에서는 처음에는 열등하던 자아가 결말에는 세계와 화합하거나 세계의 우위에 있게 되는 반면, 소설에서는 세계가 자아의 우위에 있으며 상호 끝까지 대립한다는 차이를 보인다.¹²¹⁾

어린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없고,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신처럼 생명이 있고 생각한다고 여기며, 이러한 물활론적 사고는 사춘기가 될 때까지 남아 있다. 베텔하임에 따르면 현실 그대로의 이야기는 어린이의 내면적 경험에 위배된다. 어린이는 그런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

120) 이부영, 분석심리학—C.G. Jung의 인간심성론, 일조각, 2002..119~125쪽.

“자기실현이 되면 될수록 그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갖출 것이다. 그렇다고 반드시 원만하고 선하다고 사람들로부터 칭찬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가 속하고 있는 사회의 윤리관에 비추어 때로 이기적이라는 평을 받고, 때로 냉정하다는 평을 받고, 때로 일관성이 없다고 비난받을지도 모른다. 다만 그의 머리에는 집단적 투사에 의하여 생기는 명성이라는 후광이 없고, 구태어 스스로 그 후광을 만들고자 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만일에 누가 그것을 만들어 씌워주면 구태어 거부하지도 않는다. 그것이 인생에서 대수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평범하나 분수를 아는 사람이다. 그는 그가 하여야 할 바를 마음속에 물으며, 그것이 그가 가야 할 길이면 그렇게 간다.”

121) 2005년 4월에 필자가 만난 일본 靑山대학아동문학교수이자 평론가인 시미즈 마사코 여사는 소설과 다른 동화의 특징으로 ‘희망’의 유무를 들었는데 정확한 통찰로 본다. 이 때의 희망은 내적 세계관이지 작위적 해피엔드 구조를 일컫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이고 그로부터 무언가를 얻을 것이다. 하지만 명백한 사실을 뛰어넘는 수많은 개인적 의미를 그 속에서 추출해내지 못한다. 사실에 대한 지식이 ‘개인적 지식’으로 바뀌어야 총체적인 인성에 도움을 준다.¹²²⁾ 동화 장르는 이처럼 ‘어린이가 세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인 환상을 주요한 속성으로 가지며, 어린이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주관적’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여지를 준다. 어른문학과 달리 아동문학에서 동화 장르가 변함없는 생명력을 갖는 것은 어린이들의 내적 성장 발달에 동화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며, 점차 성장할수록 객관적 현실을 사실적으로 대면하게 하는 소설의 역할이 필요해진다.

그런 면에서 1950년대 아동 산문문학의 창작 양상은 매우 흥미롭다. 전쟁 직후 일반 소설가들이 대거 아동문학 창작에 참여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사실주의 기법의 아동소설만을 창작한 반면, 아동문학 전문 작가들은 전쟁 이후 열정적으로 동화 창작에 매진하였다. 강소천, 이원수, 김요섭, 박화목, 이주훈, 박홍근 등이 바로 그들인데, 전쟁 이전에 주로 동시를 썼거나 몇 편의 동화를 발표하는 데 그쳤던 이 그룹은 전쟁 직후 약속이나 한 듯 ‘환상’과 ‘희망’을 주요 특질로 하는 동화 창작에 몰두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문학이면서도 일반문학과 다른 아동문학의 특수성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이라 생각된다.

일반 소설가들이 전쟁 직후 대거 아동소설을 창작하게 된 까닭은, 물질적 기반이 파괴된 현실에서 경제적 이유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¹²³⁾ 전쟁은 인간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모든 가능성(밝고 어두운)들을 일시에 ‘현실화’시켰

122) 브루노 베텔하임, 김옥순, 주옥 옮김. 『옛이야기의 매력 1』, 시공주니어, 1998, 90쪽.

123) 김송, ‘決戰下の 片想’, 新潮, Vol.1(1951.6) 83~84쪽, 이재철, 『현대아동문학사』, 429쪽에서 재인용. “어제밤은 밝은 새여 苦役하니 머리가 아프고 따분하다. 값싼 원고나마 써야만 살겠기에 방송 드라마를 한 편 쓰노라면 밤을 새웠던 것이라. 며칠전 소설을 쓰려고 서둘렀다가 드라마편이 고료도 낮고 제재도 알맞을 것 같아 육십칠매를 단숨에 쓴 것이다. 육십칠매에 이만원 이내라는 고료인데 이 육십칠매나마 쓰기에 여간 精力이 들지 않는다. 그러니 아모리 생활이 급박하기로서니 <국수밥> 짜내드시 영겁히 쓸 수도 없는 노릇이다.”

으며 이에 따라 작품 제재의 폭발적인 확장을 가져왔는데, 일반 소설가들의 대거 참여로 1950년대의 적나라한 생활상이 아동소설의 장에 폭넓게 수용될 수 있었다. 전쟁 이전까지의 창작동화 목록이라고 해 봐야 영성(零星)하던 실정에, 이들의 활발한 집필은 한국 창작동화의 외연과 내포를 크게 확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양적 팽창은 미학적 가치와는 별개로 동시대에 대한 문학사적 ‘증언’이라는 측면에서 긴요한 의의를 가지며, 계용묵의 「오리알」(『새벗』 57. 6)이나 손창섭의 「장님 강아지」(『소년세계』 58. 1.) 「돌아온 썰리」(『소년세계』 58. 11), 「싸움동무」(『소년세계』 59. 3) 등 객관적 현실과 그 현실에 대응하는 인물의 성격을 치밀하고 힘 있게 그려낸 작품들은 아동소설의 지평을 확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치열한 문학적 긴장을 유지한 아동소설은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 현실 세태를 피상적으로 묘사하는 차원에 머물렀으며, 흥미를 유발시키는 소재와 줄거리에 의존하는 안일함을 보여주었다. 일반소설에서 상당한 수준의 미학적 성취를 보여주는 작가들조차 현저히 질이 떨어지는 아동소설을 양산한 데는 ‘애들이’ 읽는 글이라 가벼이 여긴 면도 없지 않았다 하겠다.¹²⁴⁾ 전문 아동문학인 역시 생계를 위해 한 줄의 글이라도 더 써야 하는 입장은 같았지만¹²⁵⁾, 먼저 어린이 입장에서 그들 심정과 욕망을 대변하고 그들의 성장발달에 미칠 영향을 항상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일반 소설가들의 글과 차별성을 가진다.

전쟁과 이로 인한 카오스적 혼란과 역동성은 1950년대 아동문학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인적 자원의 재배치이다. 전쟁 이전에 한반도 전체에서 활동한 아동문학인이라고 해 봐야 불과 이삼십 명을 헤아릴 정도였는데, 전쟁과정에서 유능한 작가들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¹²⁶⁾되

124) 대표적 사례로 58년 1월부터 59년 6월까지 『새벗』에 연재된 박경리의 「은하수」를 들 수 있다.

125) 강소천과 생전에 가까웠던 아동문학인 서석규에 따르면, 소천 역시 열손가락에 청탁서 종이를 감아 실로 묶어놓고, 차례로 하나씩 풀어서 보고 집필하여 설 새 없이 원고를 넘겼다고 한다.

126) 40년대 후반 활발한 창작활동을 하였던 최병화, 강승한, 임원호의 경우 전쟁 중에 사망하였고, 노랑근

는가 하면 좌익 계열의 작가들이 대거 월북¹²⁷⁾함으로써 인적 자원의 손실을 가져왔다. 단순히 체제를 달리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월북 작가들이 문학적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한 채 도태되고 말았기 때문에 손실이 된다.

그러나 전쟁이 반드시 부정적 영향만 미친 것이 아니라 작가의 창작 에너지를 외적 내적으로 추동하기도 했다. 강소천, 김요섭, 박화목, 박홍근, 이주훈 등이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월남하지 않았다면, 마해송, 이원수 등이 전쟁과 분단과정에서 남다른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그리고 경제적인 또는 사회적인 다양한 이유로 작가들이 집필 활동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형편이 아니었다면, 이들 작가들이 그토록 창작에 몰두하였을지는 의문스럽다.

50년대 아동문학의 가장 큰 특징으로 손꼽히는 통속화 상업화¹²⁸⁾ 역시, 부정적 가치 평가 이전에 카오스적 역동성의 표출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휴전 이후 만화를 필두로 하여 모험 탐정소설, 순정소설, 명랑소설 등 오락성 위주의 통속 대중 소설이 전에 없이 쏟아져 나와 독자들을 매료시켰다.¹²⁹⁾ 의무교육의 확대로 문자해독이 가능한 어린이가 50년대에 갑작스럽게 늘어난 반면, 물자가 터무니없이 부족하였기에 어린이 청소년이 읽을만한 마땅한 책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다. 따라서 눈에 띄는 활자가 있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읽어대는 자발적 독자층이 폭넓게 형성되던 시기에, 만화와 대중소설이 양산되었다면 그 나름의 문화적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근

은 전쟁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다.

127) 윤복진, 현덕, 송창일, 송순식, 박인범, 임서하, 임원호, 박아지, 신고송, 양미림, 송완순 등.

128) 이원수, 「아동문학과 저속성」, 『대한일보』 1956. 10. 5.

“흔히 아동들은 대중 소설- 통속소설적인 소년 소설을 기억에 남기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진정 자기네 마음을 굳세게 해 주었다든지 정의에 뿌리를 박게 해 주었다든지 하는 그런 작품을 기억하고 있을지 의문이다.”

이원수, 「소년운동의 문학적 형태」, 『문예』, 1956. 6, 76쪽.

“연장(年長) 아동을 성인 통속소설의 독자로 만드는 한편, 연소(年少)한 아동들에게는 소위 만화 그림 얘기책의 대량 생산이 그들을 끌고 가므로 하여, 정상적인 독서 생활을 그르치고 아동문학의 쇠퇴(衰微)를 보게 한 결과를 가져왔다.”

129) 김래성, 『쌍무지개 뜨는 언덕』, 1952. 박계주, 『날개 없는 천사』, 1956. 조혼파, 『알개진』, 1956. 등의 순정소설, 명랑소설 등은 이 시대 어린이 청소년 독자들을 폭발적으로 열광시켰다.

대 자본주의 시스템이 어린이 책 분야에서 본격 가동하기 시작한 양상이겠으며, 내적 위안과 즐거움을 필요로 하는 그 시대 독자의 취향과 욕구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말초적 흥미에 반응하는 어린이의 미분화된 정서 탓도 있겠지만 전통 문학이 독자의 내적 요구에 응답하지 못한 측면도 있을 수 있고, 어린이들의 미약한 자아로 마주 응시하기에는 지나치게 과도한 전후 현실과, 무엇보다 사고의 다양성을 억누르는 시대 분위기의 탓이 컸을 것이다.

‘형상적 바탕도 없이 반공을 맹목적으로 내세우고’ ‘공산주의라면 무조건 나쁘다는 식의 생경한 사상성을 그대로 드러낸 작품’이 양산¹³⁰⁾된 반면 비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¹³¹⁾ 현실은, 실제 생산된 창작품보다 비평 담론이 더욱 치열하였던 해방공간의 아동문학 문단 분위기와 뚜렷하게 대비된다. 비판적 사고와 표현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모두의 입을 ‘닫게’ 만들었기에, 극성스런 상흔이 어린이들 정신에 해악을 끼치는 사태¹³²⁾가 벌어져도 대부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념의 통일로 인한 사유의 단일성과 비판력 상실이야말로 1950년대 한국 창작동화의 성격을 원천적으로 규정하는 최대의 한계라 하겠다.

2. 매체별 반공의 규율 양상과 특성

130) 이재철, 『현대아동문학사』, 앞의 책, 450쪽.

131) 이주홍, 「아동문학은 진진하고 있는가」, 『아동문학』 6집, 1962, 54쪽.

“도무지 말이 없기로 습관이 들어 온 아동문학입니다. 말을 해야 할 경우에도 모른 듯 입 닫아 버리고 말을 해보려 해도 말할 자리가 만만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중략) 우리 아동문학 분야는 너무도 오랫동안에 걸쳐 나오면서 평론이 없는 창작활동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132) 한정동, 「아동문학의 현상」, 『동아일보』, 1955. 1. 25.

“(漫畫책 같은 것은) 비속한 것을 그도 남의 것을 고대로 따다가 되는대로 그려놓은 것들이 거리에 범람해 있고 진실성 있는 양심적 산물은 그야말로 쌀에 뉘만치도 얻어 보기가 힘들다고 보여진다.”

1) 잡지

해방 이후 발간되었던 아동잡지로는 『소학생』(1947. 8~1950. 6), 『소년』(1948. 8~1950. 6) 『어린이나라』(1949. 1~1950. 5), 『아동구락부』(1949. 3~1950. 6)등이 있었는데, 한국전쟁의 발발로 일시에 폐간되고 말았다. 급박하던 전쟁이 해를 넘기며 소강상태를 보이던 1952년 1월에 비로소 기독교계통의 잡지 『새벗』이 창간되었고 같은 해 7월에 『소년세계』가, 9월에는 주로 외국명작을 축약 소개한 『어린이 다이제스트』 및 부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잡지 『파랑새』가 각각 창간되었으며, 11월에는 중학생을 주 독자로 삼은 『학원』이 창간되었다. 이러한 잡지들 또한 여건이 허락되어서라기보다, 전란의 참극과 공포로 인해 철저히 고갈된 어린이 정서를 순화시켜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싸우고 같이 공부해서 같이 자라’기 위하여¹³³⁾ ‘갖은 짓을 다해서 돈벌기에만 눈이 뒤집히는 세상에서 싼 값의 좋은 잡지를 만들어 내겠다는 밑지는 계획’ 하에 ‘약바른 이들의 비웃음을 받으며’¹³⁴⁾ 시작한 일이었다.

1950년대 중반 이후로 『학생계』, 『어린이동산』, 『새동화』, 『초등학교 어린이』, 『소년생활』, 『착한 어린이』 등의 잡지가 연이어 출판되고 얼마 못가 폐간되는 일이 되풀이 되었다. 이원수와 강소천이 각각 주간을 맡았던 『소년세계』와 『새벗』에 비하면 이들 잡지들은 발행 기간도 짧았지만 성격 면에 있어서도 문학잡지라기보다 오락성 또는 학습을 위한 부교재적 성격이 강하였다. 따라서 모든 면에서 50년대의 대표적 아동 잡지라 할 수 있는 『소년세계』와 『새벗』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부산지역에서 발행한 『파랑새』와 십대 초반 어린이 청소년이 함께 읽었던 『학원』 일부를 함께 검토한다.

133) 편집자, 「새벗 한뫼맞이 회고」, 『새벗』 1953.1, 39쪽.

134) 이원수, 「편집을 마치고」, 『소년세계』 1952.1, 51쪽.

『소년세계』는 1952년 7월 피난지 대구에서 이원수, 김원룡 등에 의해 창간되어 1956년 10월 폐간되었다. 집필에 참여할 전문 아동문학인이 극소수에 불과한 형편이기도 했고, 전시상황이었기에 종군작가들이 필진의 대부분을 이루었다. 전쟁이 발발하자 전시체제로 들어간 한국 문단에서는 전시 하 문학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났는데, 문인들의 애국심이 강조되고 전의를 고취시키는 ‘선전문학’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되풀이 강조되었다. 작가들의 종군활동은 이처럼 일종의 국책문학을 요구하는 사회적 문단적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주 임무는 집필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거나 전쟁 상황을 후방에 알려주는 일이었다. 『소년세계』 지면에도 국군의 활약상이 화보나 기사 형식으로 수시로 실렸다.

지난 밤 열시 40분경 적들이 크리스마스 고지를 향해 1개 소대의 병력으로 공격해 오는 것을 6915부대(1602부대 예하) 1대대 2중대 2소대의 박장용 하사와 이태성 일등병이 청음반(廳音班) 근무를 하다가 그 눈보라 속에서도 적들을 발견하여 대대본부로 빨리 전화 연락한 결과 우리편에서는 적들보다 먼저 공격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중략) 어떻게 하면 우리 국군이 그렇게 침착하고 또 용감할 수 있는가도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임준장은 웃으면서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우들이 마음만 합심하면 무서울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대답해 주었다. (중략) 후방 같으면 얼어 죽는 사람이 적지 않게 생길 영하 25도의 치위 밑에서 어떠한 적탄에도 까딱 안할 견고한 참호 속에서 그들은 칩다는 말 한마디 없시 언제나 적진만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135)

종군작가들의 아동소설 창작 역시 50년대 초반에는 종군활동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시기적 특성상 반공 의식을 적나라하게 표출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필자에 따라 반공 이념의 유무와 강약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소년세계』는 문학 중심, 어린이 독자 위주의 편집과 함께 일정한 질적 수준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1955년 11월호를 마지막으로 이원수

135) 박영준, 「1220고지의 모습」, 『소년세계』, 1953. 4

주간이 떠난 뒤, 수록 작품의 급격한 질적 저하와 함께 노골적 우경화 색채가 발견된다. ‘대감격반공소설’이라는 제호 하에 반공 자체가 목적인 소설을 버젓이 실는가 하면, ‘꼬마시사교실’이라는 이름으로 본격 반공 교육이 시작되었고, 학무과장을 비롯하여 정부 관련 인사들의 글이 주로 실리며 이승만 개인 우상화 현상마저 보이다 56년 9, 10월 병합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되었다.

『새벗』은 1952년 1월 피난지인 부산에서 강소천, 이종환, 최석주, 홍택기 등에 의해 창간되었고, 50년대와 60년대에도 비교적 꾸준히 발행되었으며, 정간과 속간을 여러 차례 거치며 현재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새벗』은 기독교 계통에서 발행한 잡지이기 때문에 아동문학뿐 아니라 ‘성경이야기’, ‘이달의 말씀’, ‘성경 그림이야기(만화)’등을 정기적으로 연재하였고, 매해 12월에는 전체 편집을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꾸미는 등 종교적 색채가 뚜렷했다. 주요 필진은 임인수, 박화목, 이주훈, 박경중, 유영희, 박홍근, 한낙원, 등 월남 기독교인을 중심¹³⁶⁾으로 한 아동문학인들과, 이영희, 신지식, 황영애, 홍은순 등 여성 신예작가들의 활약이 새롭게 눈길을 끈다. 또한 손창섭, 방기환, 김이석, 김 송, 박영준, 손소희 박경리 등 몇몇 소설가들은 50년대 후반에도 아동소설을 꾸준히 발표하였다.

상업성과 통속성이 극에 달하였던 시기였지만 『새벗』에 수록된 작품들 역시 대체로 일정한 질적 수준을 갖추었고, 반공 이데올로기를 직접 표출하는 작품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전시와 전쟁직후에 발간된 『소년세계』가 혼란기의 시대상과 역동적 현실을 생생히 반영하였다면, 『새벗』은 탈시대적, 현실 시공간 초월적 성격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가진다. 잡지 자체의 종교적 성향 때문이기도 하겠고, 전쟁의 충격에서 어느 정도 회복되는 단계에 접어든 시기적 특성이기도 하겠는데, 문학 내적 요소는 안정되고 세련된 양

136) 임인수를 제외한 나머지 작가는 모두 북한 출신이고, 성공회 교회집안에서 성장하여 70년대에 성공회 사제가 된 이주훈을 제외한 나머지 작가는 모두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상을 보이지만 현실 인식은 훨씬 미약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다양한 형식의 지면을 통해 미국의 우호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점도 특히 두드러지게 눈에 띄며, 57년 4월호부터는 ‘시사’ 코너를 신설하여 지속적인 반공, 방일 교육을 실시함을 볼 수 있다.

**요즈음 북한 괴뢰 집단에서 무장 간첩을 우리 나라에 보낸 것이 자주 잡히는데
어째서 그런 간첩을 보내는지요?**

북한 공산 괴뢰가 간첩을 보내는 것은 우리나라의 군사 정치 경제 등의 비밀을 알아 내어 북한에 연락하고 또한 무기로 살인을 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을 어지럽히려는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뼈저리게 겪은 6·25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도 북한 괴뢰는 요즈음 같이 간첩을 많이 보냈단다. 그들은 먹고 살기 힘든 백성들을 잡아 가두어 비밀 교육과 훈련을 시켜 돈과 무기를 주어서 남쪽으로 보내는 것이며 이들 간첩은 여기 저기 숨어서 우리의 비밀을 탐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들 흉계를 조심하여 말조심을 하여야 하고 수상한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는 여러분은 군경 아저씨들께 연락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언제나 숨어서 넘어오는 간첩들을 잡지 못하면 우리는 편안히 살 수 없으며 또 언제 어느 때 공산괴뢰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것이다. 137)

문교부의 반공 방일 교육정책이 잡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양상인데, 그 내용이 대단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이다. 아직 이성적 판단력을 갖추지 못한 어린이들에게 간첩을 신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뼈저리게 겪은’ 6·25와 같은 전쟁이 다시 터지게 될지 모른다는 내용은 일종의 위협으로 볼 수 있고 어린이들의 공포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최태호, 윤형모, 홍웅선, 최병철 등 문교부 관계자들의 글도 유난히 많이 실렸으며,¹³⁸⁾ 59년 4월호에는 ‘각 과목 공부 어떻게 할까?’ 라는 제목으로 각

137) 백운길, 「우리나라와 세계의 움직임」, 『새벗』, 1958. 8.

138) 『새벗』 주간인 강소천은 문교부 편수국의 최태호, 전쟁 이전 편수관이었던 박창해 (연세대 교수)와 각별히 돈독한 사이였고, 월남하여 문교부 편수국에서 교과서 편찬 일을 도왔다.

과목의 문교부 편수국 담당자들의 글을 특집으로 신는 등 학습을 위한 지식 정보의 분량이 크게 늘었음을 볼 수 있다.¹³⁹⁾ 이는 50년대 초반의 잡지와 비교하여 확연히 달라진 성격인데, 사회적으로 과열된 입시 경쟁 분위기가 잡지 편집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파랑새』 잡지는 1952년 9월에 부산에서 창간되었고, 편집인 겸 발행인에 김두일, 주간에 김용호인데 아동문학계에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다. 동 시기에 창간 발행된 『소년세계』나 『새벗』에 비해 활자가 큼직하여 어린이가 읽기에 적합하고, 문예물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공작실’ ‘실험실’ ‘잡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나의 어린시절’ ‘웃음보따리’ 등 다양한 코너를 마련하여 정보와 교양, 오락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추구한 말 그대로의 ‘잡지’라 하겠다. 참여 작가를 보면 부산지역 출신의 이주홍이 매호 아동소설을 연재하긴 하였으나, 『소년세계』나 『새벗』과 달리 전문 아동문학인의 주도나 참여 없이 김말봉, 조연현, 손동인, 안수길, 장만영, 손소희, 김광주, 오영수, 김 송 등 일반 문인들로만 필진이 구성되었고, 당대어린이의 생생한 삶을 증언하는 작품도 보기 어렵다. 국가주의 경향이 한층 농후하며, 정부 수반의 움직임이나 정책에 대한 즉각적이고 호의적인 반응과, 친미 성향 또한 동 시기에 발행된 타 잡지에 비해 두드러지게 눈에 띈다. 김홍주, 홍웅선, 최태호 등 문교부 편수관, 심수보 문교부 장학관, 사학자 이선근(54년에 문교부장관이 됨), 신익희 국회의장, 오경인 전국 교육감회 회장, 박태진 해군 정훈감실보도과장 등 정부 관련 인사들의 글이 번갈아 수록되었는데, 한결같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어린이들이 잘 자라줄 것을 기대하였다.

139) 이원수가 『아동문학』 1964, 12월호에서 소천을 ‘교육적 아동문학’의 근원지로 칭하며, ‘현실의 부정적인 면을 개인악(個人惡)에 의한 것으로만 돌려, 어린이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려’ 했고, 그것은 ‘아동교육적인 면에서 가장 타당한 태도라는 보장을 받는 것이었으며, 그 보장은 행정관리층의 것이기도 했다’고 주장한 데는, 소천이 교육관계자들과 각별한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던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 판단된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공산 침략군을 물리치기 위한 전투가 끝나지 않은 채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학교와 집을 잃고 불우한 처지에 있으나, 조국의 재건은 분명히 여러분에 달려있음을 간직하고 깨끗하게 군세게 그리고 씩씩하게 또 한해를 값있게 살아 나갑시다. 140)

잡지의 성격은 수록된 글들을 통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데, 봉래 국민학교 6학년 어린이의 글을 손대지 않고 그대로 신는다는 편집실의 알림이 붙어 있는 다음 글을 보면 아동잡지로서 『파랑새』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창호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돈을 벌 테니 너는 염려 말고 학교에 가서 공부해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창호는 눈물이 핑 돌았다.

“형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렇지만 형님은 더 큰 일이 있어……형님.”

“응? 더 큰 일이라니.”

“저는 이제부터 혼자 고학할 테니 형님은 군대에 입대하셔서 어머니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 주세요. 네?”

“오냐! 그러자 그러면 나는 일선 너는 배움으로.”

두 형제는 다시 한번 안고 울었다. 141)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여의고, 형은 집안 살림을 팔아 술만 마시는 바람에 학교에도 못 다니는 어린아이가, 자신은 고학을 할 테니 형은 입대하여 부모님의 원수를 갚으라고 한다는 내용은 지극히 비현실적이며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필자 어린이는 자신의 생각으로 쓴 글이라 여기겠지만, 반공 교육을 한점 의문 없이 수용하여 특정 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자신의 것으로 굳게 믿은 결과라 하겠다. ‘나라를 위해’ 개인적 삶을 희생할 것을 권하는, 어린이의 개별 생명에 반하는 이런 글을 장려하는 편집진의 의식은 어린

140) 박태길, 「새해를 맞으며」, 『파랑새』, 1953. 1월호

141) 정영길, 「나라의 기둥」, 『파랑새』, 1952. 10월호

이와 아동문학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득권층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문화적 매개체 역할에 충실하였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이상으로 잡지의 전반적인 성격을 살펴보고, 이번에는 잡지에 실린 동화·아동소설 가운데 반공 모티프의 작품을 집중 분석해보기로 한다.

(1) 50년대 잡지와 반공주의

50년대 잡지에 실린 동화와 아동소설 가운데, 강도(強度)와 관계없이 반공 이데올로기가 발견되는 작품 목록만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표10> 반공 이데올로기 표출 작품 (★: 종군작가, ☆: 월남작가, ◎: 기타작가)

순서	이름	제목	발표지	시기	장르	비고
1	김광주	자라나는 새싹	소년세계	52. 8.	소설	★
2	박화목	부영이와 할아버지	"	"	동화	★ ☆
3	박영준	푸른 편지	"	52.10.	"	★
4	김광주	어머니와 아버지	파랑새	52.12.	소설	"
5	김 송	즐거운 날	"	53. 1.	"	"
6	박계주	소녀와 도깨비 부대	학원	53. 1.	"	"
7	최인옥	싸우는 병정	소년세계	53. 2.	"	"
8	최태응	창길이의 꿈	"	"	"	★ ☆
9	장수철	우정의 꽃	"	53. 3.	"	☆
10	박영준	밥이야기	파랑새	53, 3.	"	★
11	김영수	고아원의 남매	소년세계	"	"	"
12	유주현	시계와 달밤	"	53. 5.	"	"
13	장수철	바다와 구름과 언덕과	"	53. 6.	"	"
14	김영일	꽃이 피면	"	53. 7.	"	◎
15	박계주	38선상의 소	"	53. 8.	"	★
16	강소천	준이와 백조	"	53. 9.	동화	☆
17	유주현	앵무새의 편지	"	54. 1.	소설	"
18	최태응	옥색조개껍질	"	54. 2.	"	"
19	강소천	통수와 거울	"	54. 5.	동화	"

20	장수철	먼 곳의 아버지	"	55. 4.	소설	"
21	김영일	푸른언덕	"	55. 5.	소설	◎
22	마해송	앙그리께(2)	"	55. 6.	연작소설	★
23	박영만	코스모스와 귀뚜라미	"	55.11.	소설	◎
24	박우보	녹색태극기의 비밀 (1)	"	56. 1.	연재소설	☆
25	박우보	녹색태극기의 비밀 (2)	"	56(2,3)	"	"
26	김장수	봄이오면 슬퍼지는 소녀	"	56. 8.	소설	★
27	김장수	별하나 나하나 나도 외롭다	"	56. 10.	연재소설	"
28	장수철	갈매기의 추억	새벗	57. 4.	소설	☆
29	방기환	발소리	"	57. 7.	"	★
30	장수철	언덕에서 맺은 우정	"	58. 8.	"	☆
31	임인수	단풍잎 편지	"	58.10.	"	◎
32	박우보	달님이 본 것	"	59. 2.	"	☆

<표5>를 참고하여 1950년대 잡지에 발표된 반공주의 작품의 특징과 의미를 정리해 본다.

① 한국전쟁 이전에는 반공 문학의 개념 자체가 없었다. 한국 아동문학의 반공주의는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생성된 성격이며, 세계 어느 나라의 문학과도 다른 한국 아동문학만의 특성 형성에 깊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

아동잡지가 처음 발간되기 시작한 1952년 후반부터 1953년까지 1년 남짓한 기간에 무려 16편의 반공주의 작품이 발표되었고, 55년까지 총 23편이 발표되어 50년대 전체 반공주의 작품의 3분의 2 이상이 전쟁 중이나 전쟁 직후에 발표된 점은 반공문학의 목적적, 임의적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종군 작가단 소속 일반문학인들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반공문학을 처음 창작하였고, 이후에는 전문 아동문학인들에 아동문학의 장에 반공담론이 지속적으로 전파 확산되어 감을 볼 수 있다.¹⁴²⁾

② 『소년세계』에 가장 많은 반공주의 작품이 발견되는 까닭은 시기적으로

142) 장수철의 경우 물리적 시간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강한 반공주의를 표명하며, 71년에는 무려 11권에 이르는 체계적인 반공전집을 정성환과 함께 송강출판사에서 펴내기도 한다. 반공전집 각권의 내용은 이렇다.

1 : 북한실정, I 2 : 북한실정, II 3 : 6.25실화집 4 : 반공작품집 5 : 반공포로이야기 6 : 반공투사이야기 7 : 북으로 끌려간 제일교포 8 : 간첩을 막읍시다 9 : 월남전쟁이야기 10 : 반공논문 용변집 11 : 반공상식 문답집

전쟁기에 발행이 되었고, 검토 텍스트가 52-56년까지 5년간 발간본으로 『새벗』(57-59), 『과랑새』(52-53)보다 분량이 많았으며, 정통 문학잡지 『소년세계』에 매호 가장 많은 작가가 참여하여 가장 많은 창작품을 발표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반공주의 작품도 많았다. 그리고 필진의 성향과 분포가 폭넓다 보니 시대적 현실과 보편적 문단 정서가 가장 사실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반공주의 작품은 거의 대부분 종군작가와 월남작가에 의해 창작되었다. 각 작가를 그룹별로 다시 나누어 개인별 작품 발표 편수를 살펴보자.

<표11> 작가별 반공 모티프의 작품 발표 편수

	종군작가	작품편수	월남작가	작품편수	기타작가	편수	비고
1	김광주	2	장수철	5	김영일	2	
2	박영준	2	강소천	2	박영만	1	
3	최인욱	1	박우보	3	임인수	1	
4	최태응	2					
5	김영수	1					
6	유주현	2					
7	박계주	2					
8	김장수	2					
9	방기환	1					
10	김 송	1					
11	마해송	1					
12	박화목	1					
	총	18		10		4	32편

최태응과 박화목은 종군작가이기도 하고 월남작가이기도 하다. 그런데 전시 또는 전쟁 직후에 발표한 작품이므로 종군작가에 포함시켰다.

표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종군작가단 소속 작가들의 반공소설 창작 비율이 높은 까닭은, 애국심에서 뿐 아니라 생활의 필요성¹⁴³⁾, 사상적 위험으로부터

143) 김우중, 『한국현대소설사』, 성문각, 1989, 318~320쪽.

전쟁 당시 문인들이 대구, 부산 등지로 피난 와서 실직하여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가련한 신세가 되어 있었는데, 이런 작가들 중에서 몇 사람이 전선 종군을 하였으며, 대개는 후방에서 군 기관지의 편

터 안전¹⁴⁴⁾ 등 다양한 이유로 당대 활발히 문필활동을 하던 소설가들이 종군 활동에 대거 참여했기 때문에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¹⁴⁵⁾ 군 소속이거나 애국심, 공산주의에 대한 개인적 적개심¹⁴⁶⁾ 등의 동기로 종군작가단 활동을 한 작가들이 주로 적극적인 반공의식을 보였으나, 여타의 동기로 참여한 작가들도 정부 지원 하에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였으므로 반공주의는 전제조건이었다. ¹⁴⁷⁾

월남인들의 공산주의와 북한에 대한 강한 적대감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의식상의 특성’이며, 이들은 전쟁과정을 통해 형성된 정부 지지세력 가운데 하나였다.¹⁴⁸⁾ 월남 작가의 반공주의 작품 창작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월남 작가들의 반공주의는 상실 체험과 삶의 기반 확보라는 두 측면의 동기를 가진다. 기독교에 대한 공산당의 탄압은 많은 기독교인 월남 작가들을

집과 강연 등으로 정훈활동에 종사함으로써 침식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한다.

144) 최정희, ‘피난대구문단’, 『해방문학20년』, 앞의 책, 104쪽.

“서울에 왔다 갔다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군복을 입지 않고선 기차를 탈 수도 없었으며, 도강은 더욱이 어려웠던 때다. (중략) 피난지 대구나 부산에서든 그 어려운 고비를 겪으며 영등포까지 왔다가 한강을 넘지 못해서 영등포에 하차하는 사람들을 목격하곤 군복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정희의 경우 친일과 부역혐의를 모두 갖고 있었기에 사상적 안전과 지속적 작품 활동을 위해 종군작가단에 가입할 필요가 있었다.)

145) 한국문인협회편, 『해방문학20년』, 정음사, 1996, 89~101쪽.

종군작가단은 육군 30명, 해군 약 15명, 공군 약 16명으로, 대략 60명 정도였다.

146) 김팔봉, 「총을 메어보지 못한 대신」, 『육군』, 71호. 신영덕, 『한국전쟁과 종군작가』, 국학자료원, 2002, 33쪽에서 재인용.

“6• 25때 서울서 내빼지 못하고 빨갱이들한테 붙들려서 타살을 당했다가 이렇게 목숨이 살아나 가지고 내가 병원에 들어눴서 생각한 것은 이번 전쟁은 <소비에트 역사의 해체>까지 가서 끝을 내야겠는데 과연 유엔군이 거기까지 전쟁을 밀고 나가줄 것인가 아닌가 의심스러운 점이였다. 그러다가 1,4후퇴를 부득이 하고서 대구에 피란해 있을 때 <육군종군작가단>이 결성되었다. 그때 내 나이가 30만 되고 몸을 제대로 쓰기만 했었다면 그때 나는 총을 메었지 종군작가단에 들어가지 아니했을 것이다.”

147) 종군작가들이 발표한 소설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반공사상 및 애국심을 고취하는 전쟁독려 소설이고, 다른 하나는 전쟁기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데 치중하거나 전쟁의 비인간상을 비판하는 소설이다. 전술한 작가들 외에는 아동소설에서 대체로 후자의 입장을 취한다. 그리고 일반소설에서 전쟁독려소설을 쓴 종군작가들도, 아동소설에는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서인지 이념과 무관한 작품을 창작한 경우가 많았다.

148) 강인철, 「한국전쟁과 사회의식 및 문화의 변화」,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앞의 책, 215쪽.

반공주의자로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일제 강점기에 관리나 지주였다면, 재산 형성과정의 정당성에 관계없이 인민군에 토지와 재산을 몰수당하고 목숨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였을 수도 있다. 또 공산주의 이상과 실제 전쟁과 통치 과정에는 간극이 있었고, 개개인의 경직된 사고나 사적 욕망은 비이성적이고 잔혹한 사태를 초래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서로 다르더라도, 가족과 재산과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상실한 체험은 많은 월남인을 반공주의자로 만들기 충분했다. 또 하나, 남한사회에서 북한출신이 같은 국민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자신이 붉은 색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상시 증명해보일 필요가 있었고, 나아가 반공이 사회 지배이데올로기인 시대에 보다 선명한 반공의 표명은 사회적 입지 확보에 도움이 되었다.

기타작가의 경우 김영일은 일제 고등계 형사였기에¹⁴⁹⁾ 인민군에게 우선적 처단대상자였고, 따라서 애국심이나 이념적 소신에 관계없이 반공주의자의 진영에 서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박영만의 경우는 작가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어떤 그룹에 속하였건 1950년대 한국 전쟁 체험 작가들의 반공주의는 시대적 배경이 있고 경험적 이유가 있기에, 60~70년대의 반공주의 작품과는 분명 그 심급이 다르다. 따라서 반공 이데올로기가 함유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뭉뚱그려 가치평가를 할 수는 없고, 각각의 내용에 따라 의미를

149) 조애실 수상집, 『차라리 통곡이기를』, 전예원, 1977, 53~55쪽. 이재철, 『아동문학평론』, 62호에서 재인용.

‘金村英一 (가네무라 에이이찌)가 다가서서 물었다. (중략) “조애실! 내가 가끔 책을 차입해줄 테니 그 속에서 읽어요. 나도…… 실은 문학을 하는데…….” 나는 깜짝 놀랐다. 문학가가 어찌 고등계 말단 형사 노릇을 하며 그래도 사색에 잠길 수 있는 요소, 사물에 대한 관찰력도 보통 사람하고는 좀 다를 텐데 어떻게 동족의 손에 고랑을 채우려 들었던 말인가.’

→ 이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갖게 하는 글이 김영일 작품에서 여러 부분 발견되는데, 한 예를 들어본다.

“허 마구 날뛰던 101번지 감이야.”

“101번지 감이 뭐야?”

삼돌이도 아는 게 많은 데 이건 몰랐다.

“서대문 형무소가 101번지란 말이다.”

(김영일, 『푸른동산』, 계진문화사, 1963, 237쪽.)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2) 작품의 양상과 특성

① 전쟁체험의 극대화

전시에 반공주의 아동소설을 적극 창작한 작가로는 김광주, 박영준, 최인욱, 장수철, 유주현, 최태응, 박계주 등을 들 수 있다.

김광주의 「자라나는 새싹」은 아동문학잡지에서 최초로 발견되는 반공주의 소설로, 종군활동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목적소설이다.

이 글은 ‘원 세상 사람들이 모다들 똑같이 말들을 합니다.’라는 소년 화자의 말을 서두로, 이어질 발언을 일반화시키며 시작된다. 화자는 ‘오랑캐들과 무지막지한 공산군들이 미쳐 날뛰는 슬픈 세상’임을 강조하며, 이 모든 것이 ‘같은 살과 피와 같은 뼈를 타고 난 한나라 동포에게다 총부리를 들이대고, 그 무지무지한 탱크차를 앞세우고 쳐들어 온’, ‘저 밭쌀스러운 공산당의 탃’으로 규정한다. ‘웃음의 꽃밭을 이루고 즐거웁고 근심 모르는 날을 보내던’ 화자의 가족은, 아버지가 실종되고 할아버지마저 ‘놈들에게 붙잡혀’가는 바람에 부산으로 피난을 가 하꼬방 한칸을 짓고 할머니와 어머니가 빈대떡 장수를 하여 근근히 살아간다. 그런데 일년 뒤 아버지가 부상병이 되어 육군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아버지는 찾아간 가족들에게 문을 열어 주려 하지 않는다.

“……아무도 들어오지 말어…… 그대루 …… 그대루……돌아가 주오 …… 한쪽 다리가 병신이 된 것은 오히려 참을 수 있지만 ……이 얼굴을…… 이 반쪽이 깨어져 버린 얼굴을 어린 것들이 본다면 …… 안되 ……난 아내도, 어린 것들도 만나지 않을 터이오 …….”

병실 안에서는 아버지의, 말을 못하고 흐느껴 우시는 소리가 들려나왔습니다.

병실 밖, 문 앞에서는 어머니의 발을 구르시며 우시는 울음소리.

저희들 남매도 덩달아 어머니의 팔에 매달려서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50)

화자는 양담배 장수를 하며 돈을 모아 일년 뒤 학교에 갈 결심을 하며, “어서 어서 한 푼이라도 돈을 벌어서 아버지를 병신을 만든 원수, 우리집안을 망쳐논 원수, 우리 할머니 어머니를 고생시킨 놈들의 원수를 꼭 갚아야만 하겠습니다.”라는 말로 결말을 맺는다. 한 푼이라도 돈을 버는 것과 원수를 갚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되지 않으며, 작가는 작품 자체의 내적 개연성에 개의치 않는다.

전쟁과 그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북한에 전가하며, 화자는 북한 침략으로 인한 ‘현재의 고통’을 강조하는 데 힘을 기울인다. 할아버지가 관청에 나가셔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해방된 지 불과 몇 해 지나지 않은 시대 상황과 할아버지의 연령으로 미루어볼 때 일제시대 때부터 관리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버지 역시 전쟁발발 이전에 육군소령이라 하였으니, 해방 이전 식민지 시절에 이미 군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승만 정권은 일제시대 때의 군과 경찰조직을 거의 그대로 물려받아 같은 민족을 괴롭혔던 친일분자와 부패한 관료들을 거의 그대로 유임시킨 반면, 인민군은 그들 친일관료와 군인 경찰을 주적으로 분류하여 일차적 처단대상자로 삼았다. 따라서 화자의 집안이 단순히 북한과 정치적 적대관계에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당대의 기득권층일수록 몇몇치 못한 전력을 가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민족 앞에 얼마나 결백한 입장인지 따져볼 필요도 있다. 그러나 전후좌우 맥락은 생략한 채 가족의 ‘피해’ 사실과 북한의 ‘악행’만 되풀이 강조하며, 독자의 ‘체험’을 감상적으로 자극하는 방식으로 일부 계층의 체험을 전체 민중의 체험으로 일반화시킨다.

150) 김광주, 「자라나는 새싹」, 『소년세계』, 52. 8.

‘모든 동무들의 행복되고 즐거운 가정이 너 나 할 것 없이 똑같이 단숨에 서리를 맞
어 쓰러지듯이’ 저의 집안도 그놈의 “육, 이오” 통에 하룻밤 사이에 시커먼 어둠과 무
서운 공포 속으로 떨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151)

유년기에 가족과 가정은 어린이의 생존과 직결되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체험의 폭이 좁고 지식이 부족한 어린이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공감할 수
있는 가족주의를 전유하는 것처럼 독자의 마음을 쉽고도 확고하게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따라서 감상적 가족주의를 통해 독자의 감정을 뒤흔들
어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무의식적으로 고취하는 양상은 이후 다른 반공주
의 아동소설에서도 일정한 패턴을 이룬다.

내 아버지를 죽이고 그리고 내 팔과 다리를 상하게 한 놈들! 그놈들만 아니었더라면
내가 왜 이런 병신이 되었겠습니까? 남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나는 한 손을 마
음대로 쓰지 못합니다. 아마 총알에 힘줄이 다쳤나 봐요.

어머니!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의 원수를
갚고야 말겠습니다. 152)

북한으로 납치돼 간 아버지도 그림기는 하지만 좀체로 돌아오실 것 같지도 않을뿐더
러 살아 계신지 이미 돌아가셨는지 알 수가 없으니 얼마만큼 잊어지기까지 했다. 생각
을 한다면야 서울 용산 폭격에 파편을 맞으시고 준호 눈 앞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가
장 그림고 또 불상해서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저절로 쏟아진다. 153)

감상적 가족주의와 함께 나타나는 또 하나의 공통적 패턴은, 전쟁 이전에는
부유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으나 공산침략으로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해졌
다는 도식이다.

151) 김광주, 앞의 글에서.

152) 박영준, 「푸른편지」, 『소년세계』, 52. 10.

153) 유주현, 「시계와 달밤」, 『소년세계』, 53. 5.

해방이 되었지만 36년에 이르는 일제 침탈로 조선과 조선인의 삶은 참혹하게 유린된 상태였고, 40년대 후반에는 좌우익 대립과 국가폭력으로 나라는 혼란에 휩싸여 있었다. 이런 시기에 부유하고 안락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던 어린이는 소수에 불과하였을 터인데, 반공주의 작품에서는 으레 일반적인 가정의 형태로 전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아동문학의 반공주의 그 최초 형태는 서민대중의 삶 속에서 자연스레 생성된 담론이 아니고, 특정 지배 계층의 이데올로기를 문화매체를 통해 아래로 전파 확산시킨 것임을 알 수 있다. 어린이들은 직접 겪은 ‘전쟁 체험’의 의심할 바 없는 진실성에 미루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반공 담론의 정형화된 패턴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바와 같이 반공주의 아동문학은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형성되었다. 김동리는 전쟁문학의 개념을 정리하며 ‘국가가 전쟁 중일 때 문인이라고 해서 조국을 떠나 문학만을 지킬 수 없으며, 문인이란 특권으로 국민의 권외에 설 수도 없다’며, ‘문인은 총검을 대신하여 붓으로 자유와 조국을 위해서 싸워야 하므로, 전쟁 수행을 위한 무기로서의 문학은 용인된다’¹⁵⁴⁾고 하였고, 김팔봉은 전쟁문학의 방향으로 다섯 가지 지침을 제시하며 ‘전쟁의 목적은 승리함에 있으며, 문학도 승리 없이는 존재하기 불가능한 것이었기에, 전시 문학의 불가결한 요소는 철석같은 전우애, 동포애, 조국애의 발양과 열화 같은 적개심의 양양’에 있다¹⁵⁵⁾고 하였다.

마침내 이쪽에서도 사격은 시작되었습니다. 적에 대한 공격이 치열하면 할수록 적의 편에서도 한사코 기를 쓰며 덤벼들었습니다. 피아 간에는 거의 쉴 새 없이 무수한 총탄을 마주 보고 퍼부었습니다.

봉수는 자기도 모를 황홀한 마음이 가슴에서 파도치는 순간, 머리 위로 어깨 너머로 수없이 내닫는 적의 탄환을 헤치며 헤치며, 두 팔에 힘을 모아 쉴 새 없이 방아쇠를

154) 김동리, 「전쟁과 문학의 근본문제」, 『협동』 35호, 1952, 50쪽.

155) 김팔봉, 「전쟁문학의 방향」, 『전선문학』 3호, 1953. 2. 참조.

잡아 당겼습니다. 최후의 최후까지 조국의 운명을 붙들고 늘어질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 뿐이라는, 마치 자기가 세기(世紀)의 영웅이나 된 듯한 느낌을 가슴 속에 지니며, 봉수는 성 내 표범처럼 총탄의 소낙비 속을 번개같이 내달았습니다.

적을 무찌르고 나라를 바로잡으려는 오직 한 생각, 그의 앞에는 죽음이 무섭지 않았습니다.¹⁵⁶⁾

전쟁의 광기에 사로잡힌 비이성적인 감정상태를 황홀경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 작품은, 전쟁을 미화하고 개인의 희생을 독려한다. 실제 현실이 아닐 때, 혹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 숭고하고 장엄하기까지 한 장면이지만, 나의 일 그리고 내 살붙이 피붙이의 일로서 생각하면 한 목숨의 살고 죽는 문제를 그리 단순하고 아름답게 묘사할 수는 없는 일이다. 더구나 누가 시작하였으며,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를 따져보면 희생에의 요구가 국민 개개인에게 얼마나 부당한 일인지 금방 드러난다.

문학의 무기화는 궁극적으로 독자의 무기화를 의도한다. 전쟁 승리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바칠 인적 자원의 양성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최초의 반공주의 소설은 한결같이 전쟁 상황 자체에 압도된 채 현실의 고통을 드러내며 적개심을 한껏 고취하는 양상이다. 평소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없던 작가들이 특정 목적에 따라 아동문학 장(場)을 손쉽게 전유하였기에, ‘어린이’의 고유성이나 ‘아동문학’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¹⁵⁷⁾

② 국가주의와 체험의 변형

156) 최인욱, 「싸우는 병정」, 『소년세계』, 53. 2.

157) 20세기 내내 작품의 ‘내용’, 실제로는 창작 ‘의도’를 어린이 독자나 문학성의 우위에 두어온 한국의 아동문학의 특수한 담론은, 중군작가들이 반공주의 아동소설을 창작하였던 태도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1950년대 아동잡지에서 국가주의는 다양한 양상으로 발화되었는데,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인물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작품화하여 어린이에게 읽힌 것이었다. 안중근, 이순신 등 순국선열들의 삶은 물론이고, 잔다르크나 유관순, 화랑 관창 등 동서양의 10대 청소년 영웅들의 장렬한 애국심은 역사소설로, 전기로, 창작동화로, 만화로, 영화로까지 만들어져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주어졌다.

1954년 3월호 『소년세계』에 실린 노천명의 시와 박계주의 「애국소설」의 일부를 각각 살펴보자.

①

三月이 오면 이 땅에 三月이 오면

골짜기 산등세 불붙듯 변질

진달래 꽃망을 부풀어 오르듯

우리들 가슴 속 용솨음치는

三一의 정신- 민족의 맥박-

(중략)

조국의 독립을 찾아 매운 싸움 있었나니

울안의 홍도화는 유관순의 녀인가

三月은 장한 달 이 나라의 아름다운 달

거리 거리 골목 골목

독립 정신이 출렁거리는 달 158)

②

나는 8·15 해방 뒤 최초로 「순국의 처녀(殉國의 處女)」라는 제목으로 유관순 이야기를 경향신문에 발표했고, 3·1절인 그날 밤 전국에 방송을 했다. 그리고 그 뒤 중등국정교과서에 유관순전을 새로 써서 실리는 한편, 한 해 뒤엔 유관순 기념비 건립

158) 노천명, 「3월의 노래」, 『소년세계』 1954. 3.

기념특집호를 내는 『새한일보』 잡지에도 발표한 일이 있다. 이 내 글이 퍼짐으로 해서 영화사에서는 전기로 각각 유관순전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제 나는 유관순과 같은, 그러나 이번에는 소녀가 아니고 남자로 나타나는 “순국의 소년열사(殉國의 少年烈士)”이야기를 여기에 소설화하여 발표하기로 한다. 159)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유관순을 기린 노천명의 시는, “이 아침에도 대일본특공대는 / 남방 거친 파도 위에 / 혜성 모양 장엄하게 떨어졌으리 // 어뢰를 안고 몸으로 / 적기(敵機)를 부순 용사들의 얼굴이 / 하늘가에 장미처럼 핀다 / 성좌처럼 솟는다.”¹⁶⁰⁾ 며 조선인 출신 가미카제 특공대를 기리며 본인이 썼던 친일 시와 국가주체만 달라졌을 뿐 동일한 세계관과 시작(詩作)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박계주의 창작 태도 역시 동일한 전체주의 관점에서 국민의 희생을 찬미한다.

‘추상적 공동체’인 국가를 내세워, 이들 전체주의 사교의 문인들은 개인의 권리와 가치를 옹호하는 대신 획일적인 공동 목표에 순응하는 ‘국민’을 길러내는데 일조하였다. 이러한 국가주의 사교는 일제의 군국적 전체교육과 체제순응적 황국 신민을 만들기 위한 규율을 그대로 물려받은 ‘일본식 사교’의 잔재이자, 차후 군사정권에서 일사불란한 ‘국민동원’을 통한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한 문화적 기반이기도 하며, 근대화의 기치 아래 수많은 개인적 권리와 가치를 무시하고 희생을 장려하는 전통의 기원이 되기도 한다.

위의 문인들의 경우 전쟁 발발로 인한 대응적 차원 이전에 이미 전체주의 사교에 젖어 있음을 볼 수 있고, 반공주의 역시 한점 의문 없이 수용하여 전쟁을 신성시하고 국가를 신화화하는 담론을 생성하였다. 위의 노천명의 시나 특히 박계주의 진술을 통해 전쟁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국가 신화’ 창조의

159) 박계주, 「최후의 송가」, 『소년세계』 1954. 3.

160) 노천명, 「군신송(軍神頌)」, 『매일신보 사진판』, 1944. 12.

매일신보가 ‘대동아전쟁’ 3돌 특집 기념호로 내 사진판에는 가미카제로 희생된 군인들의 사진들 아래 아름다운 희생을 찬미하는 노천명 의 ‘군신송’이 실려 있다. 희생된 대원들은 김본정신(金本定信) 일등병, ‘김성의휘(金城義輝) 병장’ ‘김광창정(金廣昌貞) 상등병’처럼 창씨개명한 조선인들로 보인다.

과정을 확인할 수 있거니와, 아동문학에 ‘국군’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주요 인물’로 부각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나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의무와 책임만 지는 가장 대표적인 국민인 국군이 아동문학에서 주요 인물로 형상화되기 시작한 것은 전쟁 직후부터이며, 한결같이 용감하고 친절한 긍정적 이미지로 그려지게 되는 것이다. 국군을 미화한 대표적 사례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소녀를 구출한 장진호 소위의 용감무쌍한 활약을 그린 박계주의 「소녀와 도깨비 부대」¹⁶¹⁾를 들 수 있으며, 장수철의 「언덕에서 맺은 우정」¹⁶²⁾에 이르면 따돌림 당하던 아이가 단지 오빠가 국군이라는 사실만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까지 한다.

이 마을 아이들에게는 국군 아저씨를 형이나 오빠로 가지고 있는 아이가 없었다.

“왜 그런지 그 애가 부러워지는 것 같구나.”

희숙이가 비로소 말을 꺼냈다.

“정말이야! 그 애가 갑자기 훌륭한 애같이 보여.”

“그럴 줄 알았더라면 진작 같이 놀아줄 걸 그랬지?”

“응 그토록 같이 놀아달라구 그러던 걸! 어쩐지 안 됐다 애?”

아이들은 저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소녀 아이한테 새삼스럽게 우정을 느끼는 것이었다. ¹⁶³⁾

이들 작가들은 자신의 의도를 독자에게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전달하는데 골몰할 뿐 작품 자체의 내적 개연성이나 리얼리티에 관심이 없다.

“……정말 우리 식구는 그 소 없이는 못 살아요. 어서 돌려주세요. 인민군 아저씨!”

울며 울며 그냥 애걸하고 애걸했으나

“따라오면 죽인다.”

161) 박계주, 『학원』 2권 1호, 1953. 1.

162) 장수철, 『새벗』, 58. 8.

163) 장수철, 「언덕에서 맺은 우정」, 『새벗』, 58. 8.

한 마디를 남기고는 비탈진 길을 돌아 수림 속으로 사라지려 한다. 거기에는 이북 농군들이 서서 구경하다가

“황재했다. 대한민국 놈들 손해 봤구나!”

하고 좋아서 야단들이다.

(중략)

“악을 악으로 갚아서야 쓰겠니. 너도 소를 잃었을 때 울었던 생각이 나겠구나. 나도 내 가슴이 몹시 아프던 것이 잊혀지지 않는다. 어서 가져다주어라.”

하고 손자의 손에 소 고삐를 다시 쥐어준다.

만수는 아무 말이 없이 소를 이끌고 삼팔선을 향해 걸어간다.

(중략)

만수가 그들 앞에 나타나 소를 넘겨주고 돌아설 때 소 고삐를 받아 쥐던 아들은, 두 팔을 치어 들며,

“대한민국 소년 만세!”

하고 소리친다. 아버지도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따라 두 손을 치어 들며,

“대한민국 소년 만세!”

소리를 합하여 외친다. 164)

남한의 소년이 개울에서 목욕을 하는 사이에 풀을 뜯기던 소가 38선 이북으로 넘어가자, 이를 발견한 인민군이 인정사정없이 몰고 가버린다. 그러나 얼마 뒤 우연히 38선 이남으로 북한이 넘어 오지만 소년은 소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감동한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 소년 만세’를 합창한다는 이야기이다.

박계주의 이 작품은, 남/북을 선/악으로 도식화하였고 인민군뿐 아니라 이북의 농군들마저 처음에는 악한 존재로 설정한 반면, 남한 사람은 악행에 대해서도 선행으로 대하는 도덕적으로 우월한 존재로 등장한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행을 베풀어 감화를 시킨다는 주제는 보편적 원리로서 진리이지만, 이 작품에서 구성한 시간과 공간의 장에서는 ‘진’이 아닌 ‘위’의 구성에

164) 박계주, 「38선상의 소」, 『소년세계』, 53. 8.

기여할 뿐이다. 38선 이남의 아이가 38선 이북에 사는 아이에게 소고뼈를 쥐어주고, 이에 감화한 이북 농민들이 만세를 부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황당한 내용이다. 책상에 글을 그어놓고 서로 ‘삼팔선’을 넘지 말라고 하는 어린이 놀이 수준의 의식에 활자의 권위를 부여하여, 현실적 판단력이 부족한 독자로 하여금 마치 진실인양 믿게 하였다. ‘반공’의 당위성과 작의의 중요성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작가는 독자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탁월한 ‘기량’으로, 수많은 어린이들의 뇌리에 북한과 인민군, 국군에 대한 고정된 상(象)을 형성시키는데 기여한 것이다.

박계주가 피상적 ‘흥미’를 추구하며 현실을 왜곡하였다면, 최태웅은 「옥색조개껍질」에서 특정 계급의 논리로 현실의 왜곡을 정당화 한다.

어쩌서 춘실이 먹는 밥은 입김만 세계 불어도 푸실푸실 흠어질 것 같은 조밥뿐이냐고, 영복이는 어린 마음에도 견딜 수 없어서 자기의 밥그릇을 들고 나가서 바꾸어 먹기를 얼마나 했으며 때로는 아주 춘실이만은 데려다가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다른 집들을 보면 춘실이네와 비슷한 작인들 서푼집 사람네가 앞장을 서서 당장 주인집에다 대고 몇 십 년이나 몇 대를 두고, 피땀을 흘리도록 일을 시키며 부려먹었다는 말과 그 값으로 이제는 경을 좀 쳐야 한다고 마약 두들겨 패기도 하고 집을 내놓고 도망을 치는 집들도 있었습니다.

다행이 춘실이네는 워낙 착하고 욕심이 없고 인정이 많은 사람들이오, 의리가 굳고 경우가 밝았던 까닭에 남들이 무어라고 하거나 세상이 갑자기 어떻게 변했다거나 주인집 사람들에게 대해서 지난날의 감정이 있었다고 해서 마구 분풀이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더구나 어른들과 어른들 사이는 둘째로 쳐 놓고 언제나 한결같이 자기의 친동생과 다름이 없이 오히려 춘실이 잘못해서 싸움도 하고 말썽을 부리기도 하는 것을 조금도 나무래지 않고 마치 자기 책임이나 되는 것같이 웃으며 달래주면서 도와준 영복이의 생각을 하면 그저 고맙기만 기쁘기만 했습니다. 165)

165) 최태웅, 「옥색조개껍질」, 『소년세계』, 54. 2.

노비제도는 1984년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지만, 해방 후에도 달리 사유재산이나 생활방편이 없는 사람들은 소작을 하며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습적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흔했다. ‘몇 십 년이나 몇 대를 두고’ 노비를 부려온 지배자의 입장과, 태어날 때부터 사회적 계급의 질곡에 얽매어 ‘피땀 흘리게 부려먹음을 당해온’ 피지배자의 입장은 명백히 다를 수밖에 없다.

맑스 사상을 떠나 전근대적인 봉건적 신분제도의 질곡은 타파되어야 마땅하며, 특히 일제 강점기에 그리 막대한 부를 누렸다는 것은 일본의 절대적인 비호와 협력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해방공간에서의 지주와 소작인의 대립을 단순히 ‘악하고, 욕심 많고, 인정 없고, 의리 없고, 경우 없는’ 소작인의 ‘분풀이’로만 몰아갈 수는 없는 일이다.

개별 국민이 처한 입장에 따라 좌우익 투쟁과 공산주의에 대한 관점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최태응의 글은 명백히 지주의 관점을 대변하고 있다. 소설의 초반부는 지주의 집이 얼마나 많은 ‘세간을 차지’하고 있는가의 세세한 묘사에 바쳐지며, 이어서 그런 집안에서 귀여움을 한몸에 받는 영복이가 행랑채 춘실이에게 얼마나 인정 있게 대해주었는가가 긴 분량으로 서술된다. 그러다 해방이 되어 세상이 바뀌었지만 ‘다행이’ 춘실이네는 다른 소작인들처럼 주인집에 보복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영복이가 잘해준 생각에 그저 ‘고맙기만 기쁘기만’ 하다는 것이다.

이 소설은 지주집 아이의 ‘인정’을 크게 부풀려 미화한 반면, 현실적 삶의 토대인 물질과 계급 문제의 부조리와 거기서 발생하는 끝없는 억압과 착취의 구조는 은폐하고 있다. 춘실이 자신도 어린아이 입에도 불구하고 ‘주인집 젓먹이 조카애들을 업어주고, 설거지 밥그릇을 닦고, 큰 배가 나루터에 오는 날은 밤을 꼬박 새며’ ‘위낙 쉴 틈 없이’ 일을 해야 하고, 몰래 놀러 나가더라도 했다가는 아버지에 들켜 벼락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때 봉건제도 하의 노비 생활과 다를 바 없다.

어릴 때부터 피지배자의 삶을 살며 노역에 시달리는 춘실이와 그 가족의 생활은 강자의 약자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만, 작가는 피지배자의 복종과 충성을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로 규정한다. 철저히 지배계급에 동조하는 입장에서, ‘몇 백 년 여러 십대를 전해 내려오며 행복스럽게 살던 개인의 재산을 빼앗긴’ 데 대한 분노와 적개심만 적나라하게 표출할 뿐이다.

 빠연히 건달로 떠돌아 다니던 동네 싸움패 놈팽이 녀석네가 사돈의 팔촌까지 떼거리로 이사를 해서 안방 건넌방을 다 차지하고 뽐뽐스럽게도 한창 제철이 들어 무르익는 과일들을 자기네 물건이나 다름이 없이 척척 따먹고 나머지를 팔아먹기까지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점점 손길을 퍼는 쏘련의 흉측스러운 거짓말쟁이 붉은 강도떼들의 사냥개와 같은 앞잡이 공산당들은 죄 없는 동네 사람들을 언제 어느 겨를에 남몰래 잡아다가 귀신도 모르게 죽이려는 속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국전쟁과 공산당에 대한 체험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계급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반공주의 아동소설의 창작에 앞장 선 작가들의 경우 이처럼 기득권층의 논리와 관점만을 대변하는 양상이다. 그리고 당대 현실을 자의적으로 은폐축소하거나 왜곡하는 방식으로, 개인적 작의 전달에만 충실함을 볼 수 있다.

③ 통속화와 상업주의

1950년대 초반 반공주의 작품은 전쟁 상황에 대한 임시적 대응양상이었기에 전시문학의 성격상 목적성이 앞설 수밖에 없었다. 반공의식을 강화하고 전의를 고취하여 기왕 벌어진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당위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적 필연성 없이 지배 이데올로기인 ‘반공’의

정당성을 내세워 기득권층의 논리로 현실을 자의적으로 은폐 왜곡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반공 자체를 위한 반공을 주장하게 되며, 심지어 전후 아동문학의 상업화 통속화 흐름에 영합하고 선도하는 양태마저 보인다.

이미 다 아는바와 같이 백담정은 6·25사변 전까지도 군 수사 기관의 고급 장교로서 눈부신 활약을 거듭해 온 분이다. ‘빨갱이 잡이 귀신’이란 별명으로 불리워 왔을만큼 악독한 괴뢰 간첩단을 속속드리 잡아치우는 데는 예누리가 없었다.

그 후 예비역으로 돌아가지고 지금은 순진히 사설탐정으로서 국제 간첩단이 이라던가 혹은 그밖의 어떤 중대한 범죄 사건이 벌어질 때에만 당국과 협력해서 활약하고 있는 중이다.

(중략)

“건 모르는 말씀입니다. 빨갱이 놈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가장 흉악한 무리들이 아닙니까.”

“거야 그렇죠만 설마 어린 애들까지 가져갈까요.”

“먼저 제 애기부터 좀 들어보세요. 가령 두 소년이 놈들에게 붙잡혀가지구 평양으로 끌려갔다고 합시다. 그 다음 날 저녁 괴뢰 방송에선 이런 소리가 흘러 나올게란 말예요. ‘친애하는 남한 학생동무 여러분 저희들은 북한에 와 있습니다.’라구 아시겠어요?”

“뭐? 뭐라구요? 천만에 말씀 그게 무슨 될 말입니까?”

“될말 안될말이 어데 있답디까? 게다가 심리작전을 위한 만행이죠.”¹⁶⁶⁾

전쟁 직후 한국사회에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했고, 아동도서 출판계에도 영리만을 목적으로 삼는 출판업자들에 의해 어린이 정서에 유해한 불량 만화, 외국 명작을 엉터리로 개작·번안한 도서, 해적판 탐정물 등이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왔다. 김래성, 정비석, 박계주, 조흔과 등의 오락적 대중소설이 큰 인기를 얻는 등 독자들은 전반적으로 흥미 위주의 통속성에 탐닉하는 경향이었는데,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반공주의가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양상이다.

166) 박우보, 「녹색태극기의 비밀」, 『소년세계』, 56. 2*3합병호.

전후 사회에는 폭력과 속임수와 온갖 범죄가 난무하였으며, 어린이가 집을 떠난다는 것은 위험한 모험을 의미했다. 이 시기에 탐정, 모험 소설이 큰 인기를 얻은 것은 일본판 번역도서의 영향도 컸지만 어린이들이 현실의 악에 노출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시대 환경의 탓이 컸다. 50년대 후반에 창작되기 시작한 흥미 위주의 비현실적인 모험, 탐정물은 6~70년대를 거쳐 80년대까지도 발견되며, 악당은 흔히 ‘간첩’으로 설정되곤 하였다.

한국전쟁 후 ‘반공’은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당위로서의 이데올로기가 되었기 때문에, 강한 반공주의자일수록 사회적으로 더욱 떳떳한 ‘반공적 선민의식’이 있었다. <대감격 반공 소설>이라는 표제를 당당히 내건 아동소설이 등장하게 된 데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이 있다. 소년세계 56년 8월호에 실린 김장수의 ‘봄이 오면 슬퍼지는 소녀’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인민군에게 주인공의 아버지가 총살당하는 선정적인 장면으로 시작하여 고학하는 하는 소녀를 동정하여 자기 집에서 지내도록 해 준 장관 비서관의 인정에 우는 것으로 결말을 맺는다.

땅땅땅 세 사람의 장총에서 일제히 불을 뿜었다. 아버지의 심장을 향하여---

“앗 헤…….”

이런 비명을 남겨 두시고 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리고 비실비실 모래사장 위에 주저앉고 말았다. 혜경의 이름도 불르지 못하고 아버지는 영영 죽고 마셨다.

그들은 아버지의 시체를 산에 묻고 아직도 혜경이와 어머니의 눈물도 말리지 않은 어떤 날 찾아와서 집을 내놔! 반역자의 재산은 몰수한다. 이렇게 말했다. 울고불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소용이 없음을 번연히 아시면서도 어머니는 그들을 부르고 늘어졌었다.

끝내 그들은 혜경이 모녀를 내쫓고 말았다. 입은 것뿐이었다. 개나 돼지를 내쫓는 그러한 악독한 짓을 이들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는 것이었다. 167)

167) 김장수, 「봄이 오면 슬퍼지는 소녀」, 『소년세계』, 56. 8.

휴전을 한 지 3년이나 된 시점에서 문학으로서의 밀도를 전혀 갖추지 못한 선정적 반공소설을 발표한 것은, 시대적 필연성이나 작가정신과 무관한 개인적 의도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아동문학의 반공주의는 어린이의 실제 삶의 토대와 관계없이 위로 부터 주어진 목적문학으로 출발하였고, 기득권층 관점을 대변하는 작가들에 의해 그들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고 설득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지속적으로 생성된 ‘승리자의 담론’은 통속 대중화의 길을 거쳐, 차츰 ‘습관적, 만성적, 자연적’ 이데올로기로 어린이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2) 단행본

전체 단행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韓國兒童文學書誌」¹⁶⁸⁾1950년대 부분을 주요하게 참조하고 일부 수정 보완하여 아동 단행본 도서(산문) 목록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였다.

<표12>1950년대에 발행된 아동 도서(산문)의 성격 분류 ¹⁶⁹⁾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계
창작(선집)	3	3	9	8	18	10	11	5	15	7	89
번역(번안)	2	6	6	3	9	9	6	2	8	9	60
전래동화	1		1	1	1			2	1	4	11
역사(위인)	1			1	1	1	2		2	1	9
교육(독본)		1	1		3	2		1	1		9
종교	1		1		3				1	1	7
어린이문집				1							1
기타	1			2	5		1		2		11
계	9	10	18	16	40	22	20	10	30	22	197

168) 이재철, 『세계아동문학사전』, 계몽사, 1989, 501~504쪽.

실증적 자료에 의거한 아동문학 서지 정리는 현재로서는 이재철의 연구가 유일하다. 6·25때 자료가 소실되고 아동문학 연구가 전무하였던 환경이라 「韓國兒童文學書誌」역시 완벽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나마 50년대의 자료가 다소나마 남아있는 70년대부터 전문가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만큼, 이 자료를 통해 당대 출판 실태를 상당부분 해명할 수 있다고 본다.

169) 네모 칸 안의 숫자는 낱권이 아닌 1종(種)을 가리킨다. 전집인 경우 수십 권이 1종에 포함될 수 있다.

위의 표를 보면 한국전쟁 기간인 1950~1953년까지는 출판 현황이 저조하고, 전쟁 발발 직후 및 전투가 치열하였던 1950~1951년에는 특히 출판이 미미함을 볼 수 있다. 전쟁 직전인 1948년에 21종, 22종이 발간된 데 비교하면 60% 이상의 감소를 보이는 것이다.

전쟁 발발 초기에는 출판물을 펴낼 상황이 아니었던 만큼 1950년에 나온 도서는 대체로 6월 25일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¹⁷⁰⁾ 1951년에 발행된 아동도서들도 번역(번안)물과 전래동화 그리고 해방 이후 한글 습득을 위한 국어 교육 차원에서 발행하였던 교육적 ‘독본’류, 전쟁 현실이 요구하는 『전시독본』 등 전시에도 판매 가능한 성격의 책들만 유통됨을 볼 수 있다.

그러다 1952년에 전체 아동 도서 발행이 두 배로 늘어나고 특히 창작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격렬하던 전투가 다소 진정되어 정치 사회적 질서가 수습 기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때 출판된 창작집은 대체로 1940년대 후반에 아동잡지에 인기리에 연재되었던 작품을 엮어서 펴낸 것으로, 아동문학계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상업적 동인이 빠르게 작동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이 때도 아동문학 작품이 아주 창작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잡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군작가군에 의해 창작된 시의성을 띤 작품이 대부분이었고, 그 질적 수준이 미비하여 성과물을 즉시 책으로 엮어낼 형편은 아니었다.

몇몇 作品을 除外한 大概는 뼈와 바다가 앙상하게 드러나 보였다. 表現하려는 理念이 作品 全體 속에 完全히 消化되지 않은 채로 눈에 띄었다. 그러지 않으면 그 觀照와 表現이 千篇一律적으로 甲의 것이나 乙의 것이나 大同小異하고 特色이 없었다는 點을 否定할 수 없다. 어느 時期에 있어서는 즉 素材의 刺戟이 強烈한 지음에는 作品이 어느 程度로 되는 것도 避치 못할 事情이지만 이미 急迫한 興奮은 가라앉고 民心이 冷靜

170) 이 시기 박태원, 최병화의 소설이 각각 나온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박태원은 월북하였고 최병화는 월북도중 사망하였다.

하여지고 있는 昨속에 있어서는 그러한 作品 形態는 止揚할 때가 온 것이다. 171)

휴전을 하고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시작한 1954년에는 정부 수립 이후 가장 높은 아동도서 발간 비율을 볼 수 있다. 전체 발행도서 가운데 창작 동화·아동소설집의 발행이 45%에 이르러 아동문학의 활성화가 이루어진 듯 보이지만, 대중성과 시의성에 의존하는 흥미 위주 창작물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아동소설시대의 개막= 아동도서의 상업지향성 작동이라는 두 코드를 함축한 지표로 읽으면 된다. 출판업자들이 “별로 수지가 신통치 않다 하여 아동물의 출판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아동문학인의 증언¹⁷²⁾으로 미루어보더라도, 이 시기 출판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어린이’나 ‘문학성’보다 ‘대중성’(영리성)이 우선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줄거리 위주의 이야기책이 지닌 흥미성과 이에 대한 독자의 뜨거운 반응은 1940년대 말에 이미 확인된 바 있으며¹⁷³⁾, 그때 이미 자본주의 원리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갑작스레 전쟁이 일어나 출판이 일시적으로 마비되었으나, 휴전과 함께 시장성이 아동도서 출판의 정상화를 빠르게 추동하는 양상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서구의 검증된 책을 독자의 입맛에 맞도록 적당히 번역(번안)하여 펴내는 손쉬운 방법이 여전히 가장 선호되었으며, 특히 ‘기타’의 항목의 약진이 돋보인다. 이 항목은 개별 저자가 없는 ‘편집부 엮음’, 출처가 모호한 ‘재미난 이야기’ 등, 저자와 장르가 불분명하며 출판사의 이윤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획물이 대부분으로서, 상업지향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지표가 된다.

만화를 비롯하여 흥미 위주의 저급한 읽을거리는 ‘아동도서’로서 목록이 작성되지 않아 위의 표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고에서 그 실태를 정확히

171) 최요안, 「작품경향의 검토」(하), 『경향신문』, 1951. 11. 6.

172) 박화목, 「兒童文學雜考」, 『연합신문』, 1953. 5. 16.

173) 정인택, 「애독자가 좋아하는 시인 소설가와의 좌담회」, 『소학생』. Vol.71. 1949.10. 28~33쪽.

과약할 수는 없다. 다만 아동문학인들의 한결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통해, 통속오락물의 범람을 짐작할 수 있다.

漫畫책 같은 것은 도둑놈의 行跡 같은 것이나 되지도 않은 漫談式이며 엉터리의 漫行 같은 것이나 모험(모험은 때로 좋은 것도 있느니만큼 다 나쁘다고는 보지 않는다) 등이며 其他 卑俗한 것을 그도 남의 것을 고대로 따다가 되는대로 그려놓은 것들이 거리에 汎濫해 있고 眞實性 있는 良心的 產物은 그야말로 쌀에 누만치도 얻어 보기가 힘들다고 보여진다. 174)

한편 우리 兒童文化界를 一瞥할 때 極히 寒心하지 않을 수 없다. 幾個의 兒童雜誌가 나오기는 하나 왜 그리 發展性을 보여 주지 않는지. 勿論 漫畫 등의 여러 가지 兒童을 相對한 漫畫책들이 거리에 汎濫하고 있으나 이것으로는 도저히 兒童糧食으로서의 所期의 成果를 거둘 수 없는 것만은 두말할 것도 없다. 175)

1954년에 1차 교육과정이 시작되고 국민학교 의무교육이 이루어지면서,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뜨거워지자 아동도서의 상업성은 재빨리 ‘교육성’을 앞세우기 시작하였다. 모든 종류의 도서가 ‘교육’과 연계되어 논의되었거니와, 『세계 명작 교육 동화집』(1953), 『얘기 독본』(1954), 『표준 소년 문학 독본』(1955)등, 여타의 동화집에 비해 ‘교육적 본보기’로서의 권위를 부여한 도서 명칭들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름과 일치되는 ‘이야기책의 본보기가 될만한’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지는 의문스러우며, 대다수는 여타의 책들에 비해 구매자의 눈길을 우선적으로 끌고자 하는 상업적 효과를 노린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이영철(李英哲)의 경우 『성공한 이들의 소년 시대』(1950), 『표준 소년 문학 독본』(1955), 『참 재미있는 한국 동화집』(1958) 등 부모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그럴싸한 제목의 ‘읽음집’들과, 『미련이 나라』(1957)등의 전래동화집, 『이소프 얘기책』(1959)등 번역(번안)도

174) 한정동, 「아동문학의 현상」, 『동아일보』, 1955. 1. 25.

175) 陸海均, 「兒童讀物과 學校教育」, 『동아일보』, 1955. 8. 25.

서를 40년대 후반부터 매해 활발히 펴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창작의 고통을 감수하기보다 정신적 열매들을 손쉽게 거두어 포장 판매하는 데 더욱 재빠른 모습을 보여주거니와, 한정된 공간에 이러한 류의 책들이 대량 판매됨에 따라 창작문학의 존립기반이 더욱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전쟁의 폐허에서 생존하는 일 자체가 힘겨웠던 시기라, 작가적 순수성을 유지하기란 너무나 할 것 없이 쉽지 않은 터에 말이다.

良心이니 愛國이니 불으짓는 것도 어느 程度 自己와 그 家族들이 最低生活을 保持할 수 있는 環境에서였지 굶주려 가지고는 그러한 精神도 混亂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¹⁷⁶⁾

소설가들이 종군작가단에 대거 가입한 데는 생존 자체가 힘겨웠기에 국가로부터 받는 일정한 지원¹⁷⁷⁾이 적지 않은 이유가 되었다면, 이어서 김래성의 『꿈꾸는 바다』, 『비밀의 가면』 등 변안 개작물을 필두로 아동물의 상업적 위력이 확인되면서,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급한 오락물이 흥수를 이루게 되었다.

일반 소설가는 물론이고, 전문 아동문학인들도 순수 창작집 외에 번역이나 기획물을 다수 펴내었는데, 「아동문학서지」를 참조하여 작가와 목록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76) 김송, 「決戰下의 片想(나의 도피일기장에서)」, 『해방문학 20년』, 정음사, 1966, 148쪽.

177) 최정희, 「피난대구문단」, 『해방문학20년』, 정음사, 1966, 103~104쪽.

“蒼空俱樂部에선 유니폼이나 구두뿐이 아니고 쌀, 광목도 配給을 받았다. 한가마니씩 나오면 내 境遇엔 남아 돌아가서 어려운 避難民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다.”

<표13> 아동문학인들의 창작집 외 단행본 출간 현황 178)

번호	이름	제목	출판사	출판년도	장르	비고
1	김요섭	• 이상한 램프	창조사	1952	번역	
		• 암골왕	문성당	1954	"	
2	강소천 · 최태호	• 어린이문학독본	문화교육출판사	1954	교육	
3	이원수	• 동키호테	동명사	1954	번안	
		• 아버지를 찾으러	신구문화사	1955	번역	
		• 국민학교 글짓기본 (1-6)	*	1958	교육	
		• 손오공의 모험	신구문화사	1959	번역	
		• 안델센 동화집	계몽사	1959	번역	
		• 인어 아가씨	신구문화사	1959	번역	
4	마해송	• 씩씩한 사람들	문교부	1955	교육	
5	윤석중 (새싹회)	• 이솝 얘기책	학교문고간행회	1956	번역	
		• 발명왕		"	"	
		• 위인전		"	"	
6	김성도	• 안데르센 동화집	어린이사	1959	번역	전3권
		• 그림동화집	형설출판사	"	"	
7	한낙원	• 이상한 나라의 에리스		1959	번역	

이 표 역시 자료적으로 완전하지 않지만, 1950년대의 아동문학계 현황을 특징적으로 시사한다. 강소천 · 최태호가 함께 어린이 문학독본을 펴낸 데서 두 사람의 관계를 주목할 수 있는데, 강소천은 51년 월남한 후 부산에서 문교부 편수관으로 있던 최태호를 만나 그의 부탁으로 교과서 편찬을 도왔고, 50년대 내내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교육관계자와의 친분과 강소천 문학의 교육성은 따로 살펴봐야 할 것이며, 손쉽게 번역서를 엮는 대신 50년대 내내 쉽 없이 창작집을 펴냈다는 점에서 강소천을 상업성을 추구한 작가인 듯 언급한 발언들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마해송의 『씩씩한 사람들』도 문교부에서 펴낸 것으로 보아, 『반공독본』처럼 어린이들에게 널리 주어진 일종의 독본으로 추정된다. 윤석중도 ‘학교문고간행회’의 이름으로 번역도서를 여러 권 펴냄을 볼 수 있다. 마해송

178) 이재철, 『세계아동문학사전』, 계몽사, 1989, 501~504쪽. 기본 자료에서 추출 분류,

과 윤석중 역시 종군작가로 군 기관에 소속되어 활동하였고, 종군기와 동요 등을 전시교재와 교과서에 실었으며, 당대 정권과 순항관계를 가지며 전후의 문화계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에 비해 부역문인으로서 반공청년단에 쫓기는 등 생명조차 위협받았던 이원수는 김영일 김팔봉 등의 도움으로 겨우 ‘선처’를 받을 수 있었기에, 김동리를 필두로 한 종군작가단 출신의 반공주의 작가들이 대부분인 문인협회 등 문화계에서도 소외된 위치에 있었다.¹⁷⁹⁾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권장되는 반공주의 입장에 선 작가들은 떳떳하게 활동할 수 있었지만, 이원수의 경우 그럴 처지가 못 되었기 때문에 어린이 잡지 《소년세계》를 편집하는 것으로 문학의 장을 일정하게 지키는 정도였다. ‘정민’ ‘이동원’ 등의 필명을 번갈아 쓰며 어느 때보다 많은 동화를 창작 하였지만 단행본은 펴내지 못하였고, 번역(번안)서를 더 많이 출간함으로써 생활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전문 아동문학인들은 오락적 흥미나 상업성 자체를 지향하지는 않았다. 생존과 생활이 문제였던 만큼 번역(번안)서나 여타의 기획물은 펴내기도 하였으나, 어떤 종류의 글이든 어린이 독자와 아동문학의 고유성을 먼저 염두에 두었고, 일정한 질적 수준을 유지하였다.

(1)1950년대 단행본 현황

앞에서 단행본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이번에는 순수 창작집 발간 현황을 따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1950년대 아동문학계의 지형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고, 상대적으로 반공 이데올로기를 강하게 드러낸 작가와 작품을 조명해보도록 한다.

먼저 「한국아동문학서지」를 참고하여 창작 단행본 목록표를 만들면 아래와 같다.

179) 2005.가을. 아동문학인 유경환, 이영호 개별면담시 증언.

<표14> 1950년대 발행 창작 단행본 목록 (동화·소년소설·기타)

(일반문학가 : ★, 아동문학가: ☆, 기타: ◎)

번호	저자	제목	출판사	발행년 도	종류	비고
1	박태원	소년탐정단	글벗집	1950	아동소설	★
2	장만영	꽃피는 시절	범우사	"	아동소설	★
3	홍은순	은방울	*	"	동화	☆
(3권)						
4	김 송	귀여운 어린이	수도문화사	1951	아동소설	★
5	최병화	즐거운 자장가	명문당	"	아동소설	☆
6	방기환	싸우는 어린이	향학사	"	전시동극본	★
(3권)						
7	강소천	조그만 사진첩	다이제스트사	1952	동화	☆
8	김래성	쌍무지개 뜨는 언덕	청운사	"	아동소설	★
9	김소운	착한어린이	수도문화사	"		★
10	김 송	방랑하는 소년	동아출판사 (再版)	"	아동소설	★
11	여운교	봄 여름 가을 겨울	호남어린이사	"	동화집	☆
12	염상섭	채석장의 소년	평범사	"	아동소설	★
13	유영희	천사가 지키는 아이들	기독교아동문화사	"	동화집	☆
14	이종택	갈매기의 노래	새벗사	"	아동소설	☆
15	최태호	아름다운 이야기	세종문화사	"	동화	☆
(9권)						
16	강소천	진달래와 철쭉	다이제스트사	1953	동화	☆
17	강소천	꽃신	한국교육문화협회	"	동화	☆
18	마해송	떡배단배	학원사	"	동화	☆
19	박성하	하얀 새	명세당	"	그림동화	◎
20	윤석중(편)	내가 겪은 이번 전쟁	박문출판사	"	소학생작품집	☆
21	이원수	숲 속 나라	신구문화사	"	동화	☆
22	이원수	오월의 노래	신구문화사	"	소설	☆
23	이정호	애국 소년	글벗집	"	아름다운 얘기책	☆
(8권)						
24	강소천	소년문학선	경진사	1954	선집	☆
25	강소천 * 최 태호 공저	어린이문학독본	문화교육출판사	"	문학독본	☆
26	강소천	꿈을 짚는 사진관	흥익사	"	동화	☆
27	김 송	고향 없는 아이들	청춘사	"	소설	★
28	노량근	날아다니는 사람	한성도서(재판)	"	동화	☆
29	노량근	눈 먼 소녀	한성도서	"	동화	☆
30	박화목	밤을 걸어가서 아이	정음사	"	소설	☆
31	방기환	빛나는 소년용사	문교사	"	동극본	★
32	방기환	언덕길 좋은 길	상문사	"	소설	★

33	방인근	소영웅	문성당	"	모험소설	★
34	방정환	동생을 찾으러	글벗집	"	모험소설	☆
35	방정환	七七단의 비밀	글벗집	"	모험소설	☆
36	이주홍	아름다운 고향	남향문화사	"	소설	☆
37	이주홍	피리부는 소년	세기문화사	"	소설	☆
38	정비석	호롱불	동국문화사	"	소설	★
39	최인욱	일곱별 소년	학원사	"	소설	★
40	최정희	장다리꽃 필때	학원사	"	아동소설	★
41	함처식	꼬마십자군	대한기독교서회	"	동화	☆
(18권)						
42	강소천	달 돌는 나라	*	1955	장편동화	☆
43	강소천	바다여 말하여 다오	*	"	장편동화	☆
44	마해송	씩씩한 사람들	문교부	"		☆
45	박영준, 안수길, 정비석 공저	소년소설집	글벗집	"	소설	★
46	박화목	부엌이와 할아버지	기독교문화관	"	동화	☆
47	송대현	마음의 꽃	맥구문화사	"	동화	
48	이주홍	비오는 들창	현대사	"	동화, 동극, 소설집	☆
49	임옥인	아름다운 시절	*	"	소설	★
50	최태호	리터영 할아버지	기독교아동문화사	"	동화	☆
51	한국아동문학회 편	현대 한국아동문학선집	동국문화사	"	동화, 아동소설 선집	☆
(10권)						
52	강소천	종소리	대한기독교서회	1956	동화	☆
53	강소천	해바라기 피는 마을	대경당	"	소설	☆
54	모기윤	백두산의 꽃	*	"	소설	☆
55	박계주	날개없는 천사	학원사	"	소설	★
56	신지식	하얀 길	산호사	"	소설	☆
57	원흥균	까막동이	시청각교육사	"	동화	◎
58	이두환	발자취	기독교아동문화사	"	위인동화	◎
59	이희복	해바라기	학우사	"	소설	◎
60	임춘갑	아름다운 우정	종로서원	"		◎
61	조훈파	알개전	학원사	"	소설	★
62	황광은	날아가는 새 구두	대한기독교서회	"	동화	☆
(11권)						
63	강소천	무지개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57	동화	☆
64	김요섭	따뜻한 밤	고려출판사	"	동화	☆
65	김요섭	깊은 밤 별들이 울리는 중	백영사	"	동화	☆
66	손동인	병아리 삼형제	한글 문예사	"	동화	☆
67	여운교	아버지의 선물	향문사	"	동화	☆
(5권)						
68	강소천	인형의 꿈	새글집	1958	동화	☆

69	김래성	똥똥이의 모험	문구당	"	소설	★
70	김상덕	파리의 인형	인문각	"	동화	☆
71	대구아동문학회	달뜨는 마을	문예사	"	동화	☆
72	마해송	모래알 고금	가톨릭출판사	"	동화	☆
73	마해송(편)	소년소녀문학선집	신태양사	"	동화, 소설	☆
74	박경종	노래하는 꽃	인문각	"	동화, 소설	☆
75	신지식	감이 익을 무렵	성문각	"	동화	☆
76	안동민	이상한 꿈	신생사	"	동화	☆
77	유영희	즐거운 동산	신생사	"	동화	☆
78	이영희	책이 산으로 된 이야기	신교출판사	"	동화	☆
79	이주홍	후라이 대감의 모험	글벗집	"	소설	☆
80	정비석	파랑새의 꿈	글벗집	"	소설	★
81	정비석	마음의 꽃다발	세광출판사	"	소설	★
82	이영철	쌍둥밤	글벗집	"	동화	☆
(15권)						
83	강소천	꾸러기와 몽당연필	새글집	1959	동화선집	☆
84	김상덕(편)	한국동화집	송문사	"	"	☆
85	김요섭	오 멀고 먼 나라여	청록문화사	"	소설	☆
86	마해송	앙그리께	가톨릭출판사	"	소설	☆
87	이원수	참새 잡던 시절	신구문화사	"	소설	☆
88	이주홍	외로운 짝보	세기문화사	"	동화	☆
89	최요안	은하의 곡	학원사	"	소설	☆
(7권)						
(총 89권)						

1950년대 어린이 잡지에 일반 소설가들이 대거 작품을 발표하였던 것에 비해 단행본 출판으로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 시기 어린이 책의 성격분석을 위해 위의 표에서 일반 소설가들의 작품집만 따로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15> 일반문학인의 아동도서 단행본 발간현황

순서	발행연도	저자	제목	종류	비고
1	1950	• 박태원 • 장만영	소년탐정단 꽃피는 시절	소설 소설	
2	1951	• 김 송 • 방기환	귀여운 어린이 싸우는 어린이	소설 전시동극본	
3	1952	• 김래성	쌍무지개 뜨는 언덕	소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소운 • 김 송 • 염상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착한 어린이 방랑하는 소년 채석장의 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설 소설 	
4	19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 송 • 최인욱 • 최정희 • 정비석 • 방기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향 없는 아이들 일곱 별 소년 장다리꽃 필 때 호롱불 빛나는 소년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설 소설 소설 동화 ? 	
5	19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영준/안수길/정비석 • 임옥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년소설집 아름다운 시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설 소설 	
6	19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계주 • 조흔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날개 없는 천사 알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설 소설 	
7	19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래성 • 정비석 • 정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돌이의 모험 파랑새의 꿈 마음의 꽃다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설 소설 소설 	

위의 표에서 1950년의 박태원의 『소년탐정단』, 1952년 김 송의 『방랑하는 소년』, 염상섭의 『채석장의 소년』은 모두 1940년대 후반에 잡지에 연재되었던 작품이며, 「한국아동문학서지」에 의거할 때 한국전쟁 후 집필되고 발간된 최초의 단행본은 1951년 발행된 전시독본 방기환의 『싸우는 어린이』(1951)로 나타난다. 그런가하면 1952년 출판된 김래성의 『쌍무지개 뜨는 언덕』은 어린이 청소년 대상의 오락 대중 소설의 인기와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확고한 기원이 될 것이다.¹⁸⁰⁾ 1954년에 종군작가 출신의 김 송, 정비석, 최인욱, 최정희의 작품집을 볼 수 있는데, 최인욱의 『일곱 별 소년』은 제목으로 미루어 볼 때 북두칠성의 전설을 번역(번안)한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50년대 후반에는 박계주, 조흔파, 김래성, 정비석 등 대표적인 대중 소설가들의 이름만 발견된다.

1950년대 아동잡지와 신문 등 각종 지면에 아동소설을 발표한 시인, 소설

180) 이 책은 6,70년대에 두 번이나 영화화 되며 엄청난 인기를 누렸고, 1990년에 만화로 개작되었으며, 2002년에 다시 단행본을 다시 발간하였다.

가는 해야될 수 없이 많았지만, 위의 표를 보면 단행본으로 펴낸 경우는 50년대에 발행된 전체 동화·아동소설집의 20%에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고, 그나마 중반 이후에는 상업성이 높은 대중 오락적 작품의 목록만 눈에 띈다.

이러한 현상은, 전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이 되자 일반문학인들이 일제히 아동문학의 장(場)으로 들어와 발표지면이나 원고료 등의 실리를 얻고, 휴전이 되어 사회 문화가 안정되자 빠져나갔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 일반문학인이 아동문학을 하였다는 자체가 시비 거리가 될 수는 없는 일이나, 누가 지속적으로 어린이들 곁에서 그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과 생각을 대신 표현하고 그들 영혼에 양식을 주었는가는 중요하게 따져져야 한다. 주 장르가 무엇이든, 어린이 편에서 글을 쓰고 책을 펴냈다는 것은 어린이와 아동문학에 마음과 시간을 쏟았다는 징표이겠으나, 단지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으로 삼는다면 결과적으로 아동문학 장(場)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일반문학과 똑같이 심혈을 기울여 아동소설을 창작한 소수의 작가도 있지만, 대부분의 소설가들은 몸매 익힌 글재주를 잠시 아동문학의 장에서 풀어 생활의 방편으로 삼다가, 여건이 다소 좋아지자 모든 면에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일반 문학의 장에서 창작을 하고, 그러면서 손쉬운 번역(번안)만 아동도서는 기회 닿는 대로 펴내어 실리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김래성, 정비석 등 대중 소설가들은 번역(번안)도서 역시 쉽 없이 펴내어 인기리에 쇠를 거듭하였거니와, 조풍연, 전영택, 계용목, 박목월, 박두진, 장만영, 안수길, 김 송, 박영준 등 수많은 일반문인들이 50년대에 각종 번역(번안)물이나 전래동화 모음집 등을 펴낸 것을 볼 수 있다.

안 그래도 전쟁 후의 혼란한 사회에서 ‘출판 장사꾼’들이 유명회사를 차리고 조악한 아동도서를 양산하는 풍토에, 필력을 갖춘 소설가들이 재난을 당한 어린이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글을 쓰는 대신 손쉬운 번역(번안)과 기획

물 출판에만 가세하거나, 통속 오락적 대중물의 붐을 조성하여 아동도서 출판의 상업성만을 부추기는 현실은 아동문학인들로 하여금 비판과 불만을 토로하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특히 近來文學에 있어서도 量으로 본 大體的 京鄕이 低俗輕薄에 흐르고 있는 것은 讀書力이 旺盛한 少年少女에게 커다란 惡影響을 주는 結果를 가져오고 있다. 少年少女들은 그들이 잘 읽을 수 있는 國文書籍을 虎視眈眈 찾아 읽으려 하는 것이다.¹⁸¹⁾

대중소설의 오락성은 독자로 하여금 일상의 긴장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게 하고 즐거움과 활력을 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어린이 자신의 현실적 삶을 정직하게 응시하고 인식하게 하는 대신 흥미를 위한 흥미라는 작품 자체 내의 닫힌 순환 구조에 함몰되게 하여 시간과 영혼을 소모시킨다는 부정적 측면도 크다. 그런 점에서 영양 없는 ‘달콤하고 자극적인’ 맛으로 출판 ‘시장’을 휩쓰는 대중물에 대한 아동문학인의 경계와 비판은 타당하였다. 다양성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아동문학의 장이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었으면 모르겠거니와, 이제 막 산문문학이 본격적으로 싹을 내미는 시기에 상업성을 지향하는 책들이 아동도서 출판의 한정된 공간을 지나치게 잠식함으로써, 순수창작을 지향하는 작가와 출판사의 존립을 어렵게 하여 결국 아동문학의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주요 아동문학인들의 창작집 발간 현황을 분석해보자.

<표16> 1950년대 아동문학인 발간 창작집 현황¹⁸²⁾

순서	발행 연도	저자	제목	출판사	종류
1	1952	• 강소천 • 유명희 • 이종택	조그만 사진첩 천사가 지키는 아이들 갈매기의 노래	다이제스트사 기독교아동문화사 새벗사	동화 동화 동화

181) 이원수, 「童話와 兒童文學과 成人」, 『동아일보』, 1955. 6.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태호 • 여운교 	아름다운 이야기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름다운 이야기 호남어린이사	동화 동화
2	19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소천 • 강소천 • 마해송 • 윤석중(편) • 이원수 • 이원수 • 이정호 	진달래와 철쭉 꽃신 떡배단배 내가 겪은 이번 전쟁 숲속나라 오월의 노래 애국소년	다이제스트사 한국교육문화협회 학원사 박문출판사 신구문화사 신구문화사 글벗집	동화 동화 동화 어린이작품 동화 동화 기획동화
3	19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소천/최태호 • 강소천 • 박화목 • 이주홍 • 이주홍 • 함처식 	어린이문학독본 꿈을 찍는 사진관 밤을 걷어가는 아이 아름다운 고향 피리 부는 소년 꼬마십자군	문화교육출판사 흥익사 정음사 세기문화사 대한기독교서회	독본 동화 소설 소설 소설 동화
4	19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소천 • 강소천 • 마해송 • 박화목 • 이주홍 • 최태호 • 한국아동문학회 	달 돌는 나라 바다여 말하여 다오 씩씩한 사람들 (문교부) 부엉이와 할아버지 비 오는 들창 리터영 할아버지 현대 한국아동문학선집	* * 문교부 현대사 기독교아동문화사 동국문화사	동화 동화 독본 동화, 동화 동화 선집
5	19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소천 • 강소천 • 모기윤 • 신지식 • 황광은 	종소리 해바라기 피는 마을 백두산의 꽃 하얀길 날아가는 새 구두	대한기독교서회 대경당 * 산호사 대한기독교서회	동화 소설 소설 소설 동화
6	19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소천 • 김요섭 • 김요섭 • 손동인 • 여운교 	무지개 따뜻한 밤 깊은 밤 별들이 울리는 종 병아리 삼형제 아버지의 선물	대한기독교교육협회 고려출판사 백영사 한글문예사 향문사	동화 동화 동화 동화 동화
7	19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소천 • 김상덕 • 대구아동문학회 • 마해송 	인형의 꿈 파리의 인형 달 뜨는 마을 모래알 고금	새글집 인문각 문예사 가톨릭출판사	동화 동화 동화 동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해송(편) • 박경중 • 신지식 • 안동민 • 유명희 • 이영희 • 이주홍 	소년소녀문학선집 노래하는 꽃 감이 익을 무렵 이상한 꿈 즐거운 놀이동산 책이 산으로 된 이야기 후라이 대감의 모형	신태양사 인문각 성문각 신생사 신생사 신교출판사 글벗집	동화, 소설 동화, 소설 동화 동화 동화 동화 소설
8	19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소천 • 김상덕(편) • 김요섭 • 마해송 • 이원수 • 이주홍 • 최요안 	꾸러기와 몽당연필 한국동화집 오 멀고 먼 나라여 앙그리께 참새 잡던 시절 외로운 짚보 은하의 곡	새글집 승문사 청록문화사 가톨릭출판사 신구문화사 세기문화사 학원사	동화 동화선집 소설 소설 소설 동화 소설

위의 표를 보면, 일반 소설가들의 단행본 장르가 거의 ‘소설’인데 비해, 아동문학가들이 펴낸 단행본은 대부분 ‘동화’로 한눈에 대비됨을 볼 수 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문학인에 비해 아동문학인들은 어린이의 발달단계를 먼저 인식하고 창작하였음을 보여준다. 유년기의 특성인 ‘물활론적 사고’는 어린이의 전(前)논리적 신화적 세계인식을 반영하며, 인생의 초반부에는 ‘희망, 용기, 꿈’ 등 내적 성장을 위한 보다 많은 ‘정신적 에너지’의 비축이 요구된다. 독자의 이러한 특성을 전문 아동문학인들은 익히 체득하고 있기에 자연스럽게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형식과 내용을 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억압된 시대적 분위기의 영향이 컸다. 소설 장르는 객관 세계와 개별 주체의 관계를 ‘사실적, 현실적’으로 보여주는데 다른 문학 장르와 차별화되는 힘과 고유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일반 소설가들이 있는 현실을 보다 거칠고 적나라하게 그려낸 반면, 아동문학인들은 현실의 정면 직시와 객관적 형상화를 회피한 면이 크다. 전쟁과 분단 과정에서 한반도의 어린이들이 겪

182) 박태원, 최병화, 노량근, 방정환 등의, 한국전쟁 이전에 발간된 책의 재판은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있던 현실을 사실적이고 솔직하게 표현한 작품을 찾을 길이 없다는 것은 어린이의 편에서 문학을 한 인적 자원이 너무 적었던 탓이자, 아동문학인들의 언어가 더욱 억압된 양상임을 보여주기도 한다.

개별 저서 발간 현황을 보면, 강소천이 매해 1-2권씩 총 11권을 펴내었고 이주홍 5권, 마해송이 4권의 창작집을 발간하였다. 김요섭과 이원수가 3권, 최태호, 박화목, 유영희, 여운교, 신지식이 각각 2권의 저서를 펴냈고, 그 밖에 윤석중, 이정호, 함처식, 황광은, 모기윤, 손동인, 이영철, 김상덕, 박경중, 이영희, 안동민, 최요안 등이 각 1권씩 펴냈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강소천은 명실 공히 50년대의 대표 동화작가였다. 문교부 관계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 것은 단순히 사적 유대관계 차원이 아니라 당대 체제의 선호를 받았음을 의미하며, 매해 창작집을 펴낸 사실은 어린이 ‘독자’와 ‘출판사’의 선호 역시 높았음을 보여준다. 마해송 역시 2권의 장편을 비롯하여 4권의 저서를 펴냈는데 그 중 『씩씩한 사람들』은 문교부에서 간행하였음을 볼 때 반공독본으로 추정되며, 그의 이름을 앞세워 『소년소녀문학선집』을 펴낼 정도로 ‘문화적 권위’를 지닌 위치임을 알게 해준다.

이에 비해 이주홍은 6권의 창작집을 펴냈지만, 시간적으로 과거의 이야기(『아름다운 시절』)나 공간적으로 농촌의 세태 또는 전통적 이야기(『피리부는 소년』, 『비오는 들창』), 대중적 오락성을 추구한 이야기(『후라이 대감의 모험』)등, 당대 현실 시공간으로부터 일정하게 거리를 둔 작품을 창작하였다. 해방 전 조선 프롤레타리아 문학가 동맹 회원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음을 볼 때, 사회의식이 없었다기보다는 반공의 이념으로 통일된 현실에서 일정한 거리를 둔 집필활동을 하였다고밖에 할 수 없다.

월남 작가인 김요섭도 3권의 동화집을 펴내며 50년대에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시인이기도 했던 그는 주로 시적 기법이 높은, 상징과 환상을 주요 특질로 하는 동화를 선보인 작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김요섭은 동시대의 아

동문학인 가운데서 식민지 현실과 한국전쟁 및 분단 현실 등 ‘당대 역사’를 가장 일관되게 응시하고 작품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만 사실주의 기법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논자들이 외적 특성만을 주목해 왔던 것이다. 김요섭은 월남 기독교인으로서는 드물게 반공 이데올로기는 보이지 않았으나, 피폐한 전후 현실에서 서민층 어린이들의 현실과 거리가 먼 부유층의 감상적 취향을 그린 작품을 창작하여 비판을 받기도 했고, 이국 취향을 강하게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원수는 전쟁 이전에 누구보다 활발한 활동을 하며 아동문학계에서 분명한 입지를 가졌던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50년대에 창작집은 세 권 펴내는 데 그쳤다. 그 중에서 『숲 속 나라』는 전쟁 이전인 1949년에 『어린이나라』에 연재하였던 작품을 단행본으로 펴낸 것이었는데, 자주정신을 강조하며 새로운 이상적 사회를 건설해가는 내용의 이 작품은 사회주의 사상과 관련지어 발간 당시는 물론이고 그 뒤에도 종종 ‘색깔’ 논란을 일으켰다. 「오월의 노래」는 1947년부터 쓰기 시작하여 50년에 『아동구락부』에 연재를 하다가 전쟁으로 중단되었던 작품을, 뒷부분을 완성하여 펴낸 것이었다. 「참새 잡는 시절」도 「오월의 노래」 목차 중에 그 제목이 있는 것으로 봐서 같은 내용을 제목을 바꾸었거나 개작하여 펴낸 것으로 추정된다. 편집주간으로 있었던 『소년세계』 등 여러 잡지에 동화와 아동소설을 50년대 내내 씬 없이 발표하였지만, 60년대에 비로소 단행본으로 묶어내었다는 점에서 강소천과 여러모로 비교가 된다.

아동문학인의 수가 극히 한정되어 있던 50년대에, 강소천, 김요섭을 비롯하여 박화목, 유영희, 박경중, 함처식 등¹⁸³⁾ 월남 기독교인 작가들의 두드러진 활동도 눈에 띄이는 특징이다. 종교와 문화는 가장 열려있고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월남인들이 연고가 없는 남한 사회에서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183) 50년대에 창작동화집은 펴내지 않았지만, 박홍근, 이주훈, 장수철, 박우보, 한낙원 등 월남 작가들의 활발한 활동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적 입지를 세우는 데 효율적인 분야였고, 남한질서에 편입되기 위해 타자인 월남인의 입장에서 더욱 치열하게 활동할 수밖에 없었기 활약 또한 두드러졌다고 하겠다. 그런데 남한 정부와 미국과 기독교와 반공주의는 따로 뗄 수 없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기에, 월남 기독교인의 반공 친미, 친정부적 성향은 충분히 예측이 되며, 개인차는 있지만 남한 작가에 비해 대체로 이러한 성향을 일정하게 보인다.

한편 1955년 ‘한국아동문학회’에서 『현대 한국아동문학 선집』을 펴낸 사실을 볼 때 휴전 후 아동문학인들이 가시적 단체 활동을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¹⁸⁴⁾ 일제시대부터 해방공간에서도 아동문학단체 역시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 대립을 하였는데, 전쟁 후 이념의 통일이 이루어진 남한 사회에서 좌파 계열의 부재나 침묵 속에 아동문학단체 역시 처음으로 ‘외적으로’ 통일된 형태를 보이는 것이다. ‘한국아동문학회’가 장르 구분 없이 아동문학인들이 모두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였다면, 산문 작가들만으로 결성한 ‘한국동화작가협회’ (회장 마해송, 회원 강소천, 김요섭, 방기환, 이종환, 임인수, 홍은순 등)는 따로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어린이 헌장’을 기초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였고, 정부에서 일부 수정 보완하여 1957년 5월 5일에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을 공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어린이는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 나갈 새 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히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

1. 어린이는 인간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2. 어린이는 튼튼하게 낳아 가정과 사회에서 참된 애정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184) ‘한국아동문학회’는 1953년 1월 10일에 마해송, 강소천, 이원수 등 18명의 아동문학인이 창립하였고, 5.16후 해체되어 문인협회 아동문학분과에 소속되었다.

3. 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4. 어린이는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
5. 어린이는 위험한 때에 맨 먼저 구출하여야 한다.
6. 어린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악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7.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한다. 병든 어린이는 치료해 주어야 하고 신체와 정신에 결함이 있는 어린이는 도와주어야 한다. 불량아는 교화하여야 하고 고아와 부랑아는 구호하여야 한다.
8. 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며 도의를 존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9. 어린이는 좋은 국민으로서 인류의 자유와 평화와 문화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185)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어린이를 위한 복지제도가 전무한 실정에서 아동문학인들이 상징적 의미부여를 통해 어린이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키고, 아동 복리법과 제도 마련을 촉구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그 밖의 특징으로는 여성 아동문학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신지식이 56년과 58년에 각각 서정적 아동소설집을 펴내고 이영희가 58년에 감각적 동화집을 펴내는 등, 본격 여성 동화작가들의 등장과 활약이 돋보인다. 또 58년에 ‘대구아동문학회’가 동화집을 펴낸 것을 볼 때, 지역 단위의 아동문학모임도 활성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50년대 중반 이후에 신인들이 속속 등장하고 한국 아동문학은 전쟁기의 혼란상에서 벗어나 차츰 문학적 다양성과 질적 수준을 갖추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185) 서석규, 「어린이헌장과 어깨동무 학교」, 『강소천 선생 40주기 기념 추모의 글모음』, 교학사, 2003, 26쪽. 서석규에 따르면 어린이헌장 기초가 거의 강소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한다.

(2) 반공주의의 두 양상

위에 정리된 결과를 토대로, 단행본 가운데 반공 이데올로기 함유 작품집 목록만을 따로 작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17> 반공 이데올로기 함유 작품집 목록

순서	발행연도	저자	제목	종류	비고
1	1951	방기환	싸우는 어린이	전시동극본	
2	1952	강소천	조그만 사진첩	동화	
3	1953	이정호 윤석중(편)	애국소년 내가 겪은 이번 전쟁	기획 어린이 작품	
4	1954	방기환	빛나는 소년용사	전시동극본	
5	1955	강소천 마해송 박화목	꿈을 짚는 사진관 씩씩한 사람들 부영이와 할아버지	동화 전시독본 동화	
6	1956	강소천	해바라기 피는 마을	동화	
7	1958	박경종	노래하는 꽃	동화, 소설	
8	1959	마해송	앙그리께	소설	

50년대 단행본 자료를 완벽하게 파악하지는 못하였으나, 상당수 텍스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잡지나 교과서 매체에 비해 반공주의 작품집은 그리 많지 않았다. 즉각적 발표가 가능한 잡지나 국가의 제도 매체인 교과서에 비해 단행본을 펴내려면 시간이 걸리는 면도 있지만, 대부분의 반공소설이 구호적이고 문학성이 결여되어 있어 책으로 묶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방기환의 『싸우는 어린이』, 『빛나는 소년용사』 등의 전시동극본은 휴전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종군활동의 결과물이겠고, 공군작가단 단장이었던 마해송의 『씩씩한 사람들』 역시 문교부에서 펴낸 것으로 미루어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발행한 저서로 보인다. 윤석중의 『내가 겪은 이번 전쟁』은 소학년 산문집인데, 육군본부 작전국 소속으로 미8군 사령부에서 문관으로 근무하는 종군작가의 입장에 있으면서 어린이들의 글을 공모하고 뽑았기 때문에,

역시 국가의 공식적 관점을 기준으로 선택과 배제가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박화목 역시 평양으로 종군활동을 하고 종군기를 발표하는 등 상당히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으나, 공산당을 ‘나쁜’ 사람들로 표현하는 정도이지 작품에서 심한 양가치적 사고를 보이지는 않았다.

마해송의 『앙그리께』는 해방을 맞아 일본에서 부모를 따라 귀국하였으나 곧 버려진 고아 ‘영애’를 중심으로, 그런 영애를 거두어 준 민애네 가족이 겪은 6·25 이야기를 쓴 장편 소설이다. 정갈한 문장과 품위 있는 묘사로 이 소설은 한국전쟁기의 한 단면을 사실적으로 실감나게 보여주지만, 안정되게 살아가던 한 가정이 전쟁으로 인해 어떤 고생을 하게 되었는지, 자신들을 그렇게 만든 공산당이 얼마나 나쁜지 알려주는 기독교 계층의 6·25이야기라 할 수 있다. 일제시대에 이어 전후 한국 문화계에서 중심적 위치에 있었던 마해송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반공주의 이념을 상당히 형상화한 이 작품은 당대 어린이와 이후 아동문학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된다.

강소천의 단편 동화들 가운데서 「통수와 거울」, 「방패연」, 「꿈을 찍는 사진관」 등 초기 작품에서부터 반공주의 모티프는 간간히 발견되지만, 반공 의식 고취의 목적성보다 북한에 두고 온 고향과 가족들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분단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공산주의자에 대한 미움의 감정으로 표출하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공산군의 기독교 탄압과 이로 인해 반공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며, 타계한 해인 1963년에 발간한 마지막 동화집 『그리운 메아리』에 이르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듯 절박한 그리움만큼 적나라한 반공의식을 볼 수 있다. 강소천 작품은 어린이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반공주의를 내면화시키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으리라 짐작된다.

박경중 동화집 『노래하는 꽃』에는 모두 16편의 작품이 실려 있는데, 그 가운데 「철이는 살아있다」, 「노마의 편지」, 「노래하는 꽃」 세 편에서 반공주의를 볼 수 있다. 특히 말미에 ‘이북 고향땅을 생각하며’라는 메모를 덧붙

불인 「철이는 살아있다」는 공산당에 대한 작가의 적개심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50년대 반공문학의 전형을 보여준다. 여기서 전형이란 ‘공산군=악/국군=선’의 도식 위에 구체적 개별 생명인 어린이의 ‘희생’을 ‘태극기’ ‘애국가’로 상징되는 전체주의적 추상적 이미지로 신화화 하고 기독교 계층의 담론을 일반화시키는 등, 반공 아동소설들이 보여준 일정한 성향들을 함축적이고 집약적으로 보여준다는 뜻이다. 박경종은 그 자신 기독교인이자 부유한 지주계급 출신으로 전쟁과 월남 과정에서 공산당에 대한 부정적 체험이 컸고, 따라서 상실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반공주의는 근원적 작품세계를 이룬다. 월남 이후 한국 문인협회 아동문학분과 위원장, 한국 아동문학가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아동문학계의 주요 원로의 위치에 있었던 만큼, 그의 작품 역시 반공주의 확산에 영향을 주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박경종은 동요와 동시 장르 창작에 더욱 주력하였던 만큼, 본고에서는 50년대의 대표적 동화작가로서 가장 분명하게 반공주의 입장을 보여준 마해송, 강소천의 작품을 중점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마해송은 일제 강점기에 한국 최초의 창작동화로 손꼽히는 「바위나리와 아기별」을 창작하였고, 고한승의 『무지개』(1927)에 이어 한국에서 두 번째로 『해송동화집』(1934)을 펴내어 문학으로서의 아동문학 형성에 기여하였으며, 「토끼와 원숭이」 등 현실 비판적 관점의 작품 창작을 통해 낭만성과 감상성에 머물렀던 기존 동화의 지평을 한 단계 확장시켰다. 그리고 강소천은 한국전쟁이라는 미증유의 참상을 겪은 어린이들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그들 내면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사랑의 정서와 현실 긍정적이고 희망찬 내용의 동화로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위로와 꿈을 주었다. 두 작가의 생애 전반에 걸친 문학적 성과나 한국 아동문학에 끼친 영향은 전체적으로 적실히 평가되어야 함이 마땅하며, 다만 본고에서는 1950년대 창작품에 한정하여 반공주의 관련 내용을 자세히 고찰함을 목적으로 함을 밝혀둔다.

① 마해송의 『앙그리께』

『앙그리께』는 1955년에 잡지 『소년세계』에 연작 형식으로 첫머리 2회가 연재되었다. 그해 8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한국일보』에 60회를 연재하였고, 1956년 6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경향신문』에 82회를 연재하여 끝을 맺었으며,¹⁸⁶⁾ 1959년 1월 가톨릭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발간하였다. 이 책의 줄거리는 이러하다.

영애는 열 살로, 민애네 집에서 사는 ‘식모’이다. 민애네 식구는 어머니, 아버지와 열한 살 민일이, 열 살 민수, 여덟 살 민애 외에 할머니 한 분이 있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 한 동네 살았던 아주머니인데, 오갈 곳이 없는 처지여서 모시고 산다.

그런데 어느 날 전쟁이 났다. 민애네 삼형제와 어머니는 남쪽으로 피난을 떠나고, 아버지도 집을 떠나 회사 사람들과 함께 가고, 할머니와 둘이 서울 집에 남겨졌던 영애는 그만 공산군에 끌려가게 된다. 한편 트럭을 얻어 타고 피난을 가던 민애네 가족은 많은 고생 끝에 대구에 도착하여 셋방을 얻는다. 민일리와 민수는 신문장사를 하다가 대구로 내려온 아버지와 만난다.

영애는 공산군에 끌려 다니면서 그들이 저지르는 여러 가지 만행을 목격한다. 그러다 어느 날 밤 탈출을 감행하고, 간신히 숨어든 집에서 공산군에 쫓겨 죽어가던 이상호 씨의 유언을 듣게 된다. 영애는 국군의 눈에 띄어 군부대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그런 영애를 구중사가 가까이 돌봐준다. 대구의 민애는 북한에서 피난 온 아랫방 옥순언니와 가깝게 지내는데, 휴일이면 친구인 구정숙 하사가 놀러온다. 구중사와 구하사는 남매사이로, 서로 헤어져 소식을 모르다가 나중에 영애로 하여 부모님까지 온 가족이 재회를 하게 된다.

영애는 의정부 이상호씨의 가족을 찾아가 유언을 전해주고, 그곳에서 ‘양갈보’ 순이를 데리고 함께 서울로 돌아온다. 할머니는 그 때까지 천주교인인 뒷집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고 있었고, 휴전이 됨에 따라 피난 갔던 가족들도 모두 돌아와 3년 만에 온 식구가 재회를 한다. 이 때 영애의 친어머니가 나타나지만 영애가 함께 가기를 거부하고, 민애네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된 영애를 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한다.

186) 마해송, 『앙그리께』, 가톨릭출판사, 1959, 263쪽.

이 작품의 주요 주인공은 영애이다. 영애는 일본에서 태어나 다섯 살 때 해방을 맞아 부모를 따라 한국에 나왔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자 어머니는 곧 개가를 하였고, 새 남편이 자신과 딸에게 폭력을 일삼자 그 원인의 하나인 딸을 버리게 된다. 영애의 정체성은 해방과 전쟁기의 거대한 역사적 소용돌이 한복판에 유기된 고아로서, 민족 구성원 가운데 가장 무력한 ‘약자’였다.

그런데 작가의 시선은 민애네 가족의 입장과 관점에만 머물러 있다. 예컨대 주인공 영애와 민애네 가족 사이는 위계와 차별이 있지만, 작가는 이 사실을 자명한 현실로 제시할 뿐 하등 문제 삼는 시각을 보여주지 않는다. 연작 첫 단원을 ‘영애네 집’으로 이름 붙였지만, 영애는 ‘민애네 집’ 식모아이일 뿐이다. 그런 영애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확인시켜주는 사람은, 자신도 이 집에 몸을 의탁하고 있는 ‘마산 할머니’이다. “영애야! 어서 밥해라!” 밥 때가 가까워지면 마산 할머니는 누구보다 먼저 영애를 재촉한다. 주인집 식구를 대신하여, 주인집 어른들 귀에 들리게끔, 마산 할머니는 영애를 독촉하고 나무라는 것으로 위계 서열의 중간 단계에 있는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 마산 할머니가 자진하여 ‘아름답지 않은’ 주인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인은 침묵 속에서 너그러운 상전으로서의 여유와 품위를 유지한다.

예컨대 전쟁이 터져 공산군이 들어오자 영애는 이웃에 사는 날품팔이 짱구 아버지한테 놀라운 말을 듣는다. “영애가 피난을 왜 가? 영애는 가만히 있으면 인제 집주인이 될 걸.” 이 말을 들은 영애는 입밖에 절대 내어선 안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서도 민애에게 말하고, 민애는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말한다. 얼마 뒤 공산군이 아이들이 팔던 담배와 파배기를 뺏고 늦게까지 잡아두었다가 돌려보내자, 할머니는 영애를 흘겨보며 쏘아 붙인다. “영애야! 어서 네가 안방에 살고 우리들을 줌 먹여 살려다우!”

열 살짜리 아이에게 일곱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시 그 따위 소리를 하기만 해보란 뜻이다. 영애의 탓도 아닌데, 공산군의

횡포에 대한 화풀이를 힘없는 영애한테 한 셈이다. 네 아이가 같은 일을 당하였어도, 세 아이는 염려의 대상일 뿐인 반면 영애는 화풀이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공산군이 무산자 계급을 옹호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계급에 속하는 영애를 공격한다. 실은 마산 할머니 자신도 대표적인 프롤레타리아 계층이면서, 주인의 편에 서서 부르주아의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을 알아서 먼저 대변함으로써, 주인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덕망 있고 너그러운’ 이미지를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화들짝 놀란 영애는 ‘집 주인이 아니라 집 보다 더 좋은 것을 준대도 그 놈들의 세상이 되었다가는 큰 일’이라고 생각한다. ‘주어진 현실을 바꾸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영애에게 주어진 현실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민애네는 아랫방으로 내려가서 살고 영애 심부름 해 줄 걸…….”

“어마나! 정말? 그럼 밥은 누가 짓구?”

“민애 엄마가 지어야지!”

“빨래는?”

“그것도 민애 엄마!”

“우리 어머닌 그런 거 못해!”

“그래도 해야지!”¹⁸⁷⁾

위의 내용으로 보아, 영애가 자신을 포함한 일곱 식구의 밥과 빨래를 도맡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다섯 살부터 민애네 집에서 살기 시작하였는데, 열 살이 된 지금 ‘우리 어머닌 그런 거 못’한다는 인식을 당연하게 보여줄 만큼 영애는 다른 식구들을 위해 ‘밥 하고 빨래하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 즉 민애네 집에 살게 되긴 했지만 영애는 민애네 가족들의 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고 그들을 위해 섬 없이 희생과 봉사를 해야 하는 자리에 있어왔다는 뜻이다.

187) 마해송, 『앙그리께』, 앞의 책, 19쪽.

예비적 고찰에서 살펴보았듯이, 해방 공간과 전쟁 이후 한반도에는 기아 미아 고아들이 대량으로 발생하였고, 아동복리를 위한 어떤 법도 제도도 없는 상황에서 수많은 어린 소녀들이 식모로 부림을 당하며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학대를 당하였다. 영애 역시 그 아이들 가운데 하나였지만, 이 작품에는 영애의 현실은 조명되지 않으며 어떤 소외감도 고통도 나타나지 않는다. 사회의 비리나 부정부패에 유독 관심이 많은 마해송이어서, 『앙그리께』에도 부패한 고아원 원장을 그의 자녀로 하여금 비판하게 하거나, 영애의 꿈에서 까마귀들이 ‘사사오입’을 들먹이며 싸우게 하는 등¹⁸⁸⁾ 현실 풍자와 비판 의식을 보인다. 그러나 50년대 신문에 심심찮게 등장하던 식모 학대나 어린이 노동 착취에 대해 작품 내에서 어떤 문제의식도 보여주지 않으며 주인집의 ‘온정’과 ‘시혜’만 부각하는 마해송의 글쓰기는, 작가의 관심축이 개별 어린이 보다 어른 ‘사회’에 있고¹⁸⁹⁾ 서민이나 빈민보다 기득권층 관점에서 서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작가의 이러한 의식은 공산주의에 대한 인식 표현에서 더욱 잘 알 수 있다.

“근데 그놈들은 왜 좋은 사람들을 보는 대로 죽여요?”

“그건 …… 여태까지 노동자나 농민 농사 짓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잘 살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고 돈 있는 사람이나 토지를 가진 지주에게 구박을 받고 살아 왔다고 해

188) 마해송, 『앙그리께』, 앞의 책, 158~159쪽.

집도 가족도 없이 국군부대를 따라 다니던 열 살짜리 아이가, ‘사사오입’이니 하는 꿈을 꿀 리도 없다. 신문에 연재되고 있던 작품이라, 영애라는 인물을 내세워 작가 자신의 생각을 대변시킨 것이라 하겠다.

189) 어린이가 아닌 어른사회를 지향하는 마해송 문학의 특징은 이재철의 『현대아동문학사』에도 정확히 지적되어 있다.

“순수한 아동세계란 그의 작품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성인사회에 종속된 ‘성인 속의 아동’이라는 관념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중략) 전자의 <성인사회에 대응되는 아동>도 성인 사회의 현상에 준하는 행동만 허용되어 처음부터 독자적인 개성이 주어져 있어서는 안 되거나, 또는 사회의 그 부류에 속하는 인간들이 가지는 개성에 따라 행동하도록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또한 후자의 <사회나 성인에 학대받는 아동>은 한결같이 약자의 입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복종적인 행동만이 가능한 울타리 안에서 형상화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작품에 등장하는 본래적 아동은 성인 사회에 대해서 추호도 반발할 수 없고, 아동 자체로서 가져야 할 개성이나 권리도 가지지 못한 채 기형적인 아동만이 좌충 우돌할 뿐이었던 것이다.” (141~142쪽)

서…… 한번 세상을 바꾸어 살자는 것인데 토지를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집에서 내어 쫓고 노동자 농민들에게 주어서 잘 살게 해준다는 것인데 말이 그렇지 실상은 그렇지 않다. 노동자나 농민은 더 못살게 되었고 장사도 할 수없고 똑 공산당원 놈들만 잘 사는 세상이라나다. 그래서 사상이 좋은 사람이나 공부가 있는 사람은 모두 죽여버려야만 다시 고개를 들 사람이 없고, 노동자 농민들을 마음대로 소 부리듯 부려 먹을 수 있다는 것이라나다. 그래서 전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 사람이나 재산이 있어서 잘 살던 사람이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그놈들의 말을 고분 고분 듣더라도 얼마 안 가서는 무슨 트집을 잡든 트집을 잡아서 죽어 버리는 거야…….”

“아유 망할 자식들! 맘뽕가 아주 나쁜 놈들야! 어쩐지 나도 그놈들을 보기만 해도 징그러워. 사람이 아니고 마귀지.”¹⁹⁰⁾

작가는 영애의 입을 빌어 공산당이 ‘좋은 사람들’을 보는 대로 죽인다고 하였는데, 북한군의 주요 처단 대상자는 친일, 친미, 반공주의자, 지주나 부르주아로 분류된 사람들, 특히 노동자를 착취한 사람들이었다. 남한 국가기구의 핵심 구성원인 군인, 판검사, 경찰간부, 우익단체나 정당의 간부 등도 ‘적’으로 취급하여 처형하고, 말단 관리나 중간적인 인물들을 면밀하게 검사하여 ‘인민’으로 편입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며, 이승만 정부에 반대한 사람은 ‘인민’으로 취급하자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¹⁹¹⁾ 물론 전쟁 후 무법천지가 되면서 재판의 절차도 없이 마구잡이로 처형하는 일도 많이 있었고, 생과 사의 결정이 이념적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소의 인간관계, 인격, 타인과의 원한 여부 등 사적이고 우연한 요소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인민재판이야말로 ‘혁명’과 ‘인민의 지배’를 빌미로 한 ‘자의적 권력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현장¹⁹²⁾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렇다 하여도, 인민재판을 당한 사람을 다 ‘좋은 사람들’로 묘사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 사람, 재산이 있어서 잘 살던 사람, 공부를

190) 마해송, 『앙그리께』, 103~104쪽.

191) 김동춘, 『전쟁과 사회』, 앞의 책, 157~158쪽.

192) 김동춘, 위의 책, 161쪽.

많이 한 사람'은 '고분고분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처단'한다는 식으로 진술한 것은 옳지 않다. 일제 때 북쪽에서 침략자의 편에 서서 동족을 착취하는데 앞장서며 개인적 권력과 부를 추구했던 인물들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모두 남쪽으로 달아났는데, 그런 사람까지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 사람'의 반열에 올려놓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일이 된다.

마해송의 반공주의는 사적 체험에서 연유한다. 6·25가 일어났을 때 그는 남하하지 못하고 서울에 남아 있었는데, 누군가 그의 이름이 자수대상자 목록 '첫 번째'에 올라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이다.

나는 이마빼기를 정통으로 얻어맞은 것 같았다.

6월 25, 6일째 남쪽으로 피난을 떠나지 못한 것은 내 탓만은 아니었다. 라디오는 끝까지 '국군이 공산군을 격퇴하고 있으니 시민은 안심하라!'고 외쳤던 것이다. 그 밤이 새자 서울 장안은 공산군의 천지가 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공산군인들 설마 나를 어떻게 하랴'하는 은근한 기대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드러난 일이라고는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8·15 해방을 고향에서 맞이했을 때도 나는 나서지 않고 방을 지키고 있었다. 일본에서 일곱 달 앞서 귀국해서 들어앉았던 것을 고향 사람들은 높이 평가했던 모양이었다. 지금 따지면 좌우 양편의 고향 인사들이 내 집으로 모여들었던 것이다. 시청과 경찰서와 모든 기관을 접수하는데 나더러 위원장이 되라는 것이었다. 나는 끝까지 나서지 않았다. "일본에서 20여 년을 지낸 사람이 무슨 염치로 또 한몫 보겠소? 고향을 지키고 고향에서 싸워온 깨끗한 사람들이 나서야 할 것이요!"하고 응하지 않았다. (중략) 장안 사람이 휩쓸어 올라가도 나는 구두를 신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일에 앞장서서 날뛰지 않았다는 것이 죄목이 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대부분의 시민이 모두 자수해야 할 판인가?

내가 쓴 글들도 그런 일에는 상관인 없는 것들이었다. 새나라 새 살림은 어린이를 먼저위해야 할 것을 호소했고 개명한 나라 사람들의 살림살이와 예의범절과 상식을 소개하기에 힘썼을 뿐이었다. 그런 것도 인민군들에게는 죄목이 되는 일이란 말인가?

자수자 명단 —자수시켜야 할 사람의 명단— 심문해야 할 사람의 명단 첫머리에 내 이름이 있더라는 소식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중략)

“망할 놈들! 그 속에 나를 넣어! 내가 벌 받아야 할 대상이라면 벌 받지 않을 백성이 없겠구나!”

분하기도 했지만 떨렸다. 한여름 복중이었다.

‘네놈들만 아니면 모두가 처벌 대상이란 말이나?’¹⁹³⁾

한국 전쟁 이전에 마해송은 반공주의자는 아니었다. 일본에서도 전기파(戰旗派)좌익작가인 후지사와 타케오와 밀접한 친분을 유지하였고, 서울로 돌아온 뒤에 중도좌파지로 분류되는 『자유신문』 객원 기자로 칼럼을 연재하며 사회 비판적인 동화(토끼와 원숭이, 떡배단배) 내용으로 미군정에 필화를 겪는 등¹⁹⁴⁾, 전쟁 이전에 딱히 우익적 편향성은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여 9·28 수복 때까지 사선을 넘는¹⁹⁵⁾ 체험을 한 뒤 국방부 정훈국 자문 일을 맡고 공군 중군작가 단장을 맡는 등 확고한 반공주의자로 바뀌게 된다.

그런데 ‘내가 벌 받아야 할 대상이라면 벌 받지 않을 백성이 없겠구나.’ 하는 마해송의 진술에서, 자신은 거리낄 것이 없다는 의식을 볼 수 있다. 이는 “일본에서 20년여 년을 지낸 사람이 또 무슨 염치로 한 몫 보겠소?”라고 한 앞의 진술과 어긋난다. 대외용 겸양의 말과 달리, 자신의 일본 생활이 달리 문제된다고 여기지 않은 듯하다. 물론 작가의 말처럼 ‘드러내 놓고’ 일본을 찬양하거나 동포를 박해하는 일은 없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조국을 침탈한 일본 제국주의의 문화계 중심에서 활약¹⁹⁶⁾한 것이 그리 떳떳한 일이라 될 수는 없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고 목숨까지 바쳐 독립을 위해 싸운 사람들이 있고, 일제의 착취로 국토와 민족이 함께 고통을 당하며 피폐해갈

193) 마해송, 『아름다운 새벽』, 문학과 지성사, 2003, 174~176쪽.

194) 원종찬, 「해방 전후의 민족현실과 마해송」, 마해송탄생 100주년 세미나 발제원고, 2005.

195) 마해송, 『아름다운 새벽』, 앞의 책, 181쪽.

196) 마해송은 도쿄에서 발행되는 『문예춘추』의 초대 편집장, 선전부장 등을 지내다 1930년 『모던 일본』의 사장으로 일인(日人)직원을 거느리고 발행부수 10만을 돌파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때, 일제의 잡지를 만들며 개인적 풍요를 누렸으니 말이다.¹⁹⁷⁾ 인민군 자수대상자 목록에 마해송이 첫 번째에 올라 있었던 까닭도, 그의 진술처럼 ‘그들이 부를 때 응하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니라 그의 개인적 삶 때문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볼 수 없다. 자신은 ‘새 나라 새 살림은 어린이를 위해 할 것을 호소하는 글을 쓰고’ ‘개명한 나라의 예의범절과 상식을 소개한 일’밖에 없다는 당당한 진술에서는 성찰의 태도를 발견하기 어렵다.

물론 그것이 마해송의 입장이고 진실이었을 수 있다. 시대적 개인적 요소들로 하여 일본에서 자리 잡고 살았지만 조선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자 하였고 힘닿는 대로 고국과 동포들을 돕고자 하였을 것이다. 1939년 11월과 1940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모던일본』 임시증간호인 『모던일본 조선판』을 발행한 것과 함께 ‘조선예술상’을 제정 운영한 것을 그 사례로 들 수 있겠다. 그러나 원종찬은 『모던일보 조선판』 1호의 「조선판에 한마디」 코너에는 당시 내선일체를 지휘한 미나미 지로(南次郎) 총독의 다음 글을 인용하며, 그 일이 시국에 부응하는 것이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번 사변을 계기로 ‘조선’의 모습은 미증유의 중대함으로 전 국민의 목전에 놓여 있다. 약진조선의 이천삼백만 민중은 혼연일체가 되어 흥아국책(興亞國策) 달성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때 ‘조선판’의 간행은 참으로 시기가 적절하며 또한 내선일체에도 기여할 바가 많다고 믿는다.¹⁹⁸⁾

197) 마해송, 『아름다운 새벽』, 앞의 책, 215쪽.

“스승은 부인과 딸과 아들의 이름으로 내 뱃을 보장해 주었다. 신세진 사람들에게 조금씩 주식을 고루 나누고 나니 내 앞으로는 이만 오천여 원의 주가 남았다. 사업은 날로 발전했다. 5대 잡지 중의 하나라는 말도 들었고 3대 잡지에 든다는 말도 들었다.”(215쪽.)

마중기, 『아버지 마해송』, 정음사, 2005. 276쪽.

“꼬치 안주와 오뎅, 초밥과 스시, 청주와 정종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 동서양을 가로지르며 온갖 귀한 음식 이야기를 먹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써내려 간 글은 지금 읽어 봐도 신기하고 재미가 있다. 철마다 다른 한국의 전통음식에 대한 글, 서양음식도 프랑스, 소련, 영국, 독일 음식을 가려 가며 음식 먹는 각국의 예의범절부터 어떤 순서로 먹어야 제맛을 알 수 있는지, 심지어는 각국의 조리용기와 그릇까지 설명한 것을 읽으면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얼마나 화려하게 식도락을 즐기고, 고국에서는 또 얼마나 싸고 맛있는 곳을 찾아 어떻게 잡수셨는지에 다시금 놀란다.”

사회 환경적 구조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적 선의가 가능했지만, 그러한 선의가 결과적으로 지배자를 돕는 일이 되기도 했다는 뜻이 된다. ‘조선예술상’이 친일문인 양성에 기여한 점도 지적할 수 있으리라.

그보다도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마해송의 공산주의 체험은 진실이었지만 한국 전쟁에 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체험 가운데 하나였을 뿐이며, 그 체험을 민족 전체를 위해 정당화할 수 있는 것으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는 점이다.

옛그제 날자로 맥아더 장군이 파면이 되어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말이 돌아왔다. 영애도 잘 아는 맥아더 장군이였다. 6·25에 공산군이 38선을 침범하여 서울을 점령했을 때에 재빨리 미국이 지원을 오고 유엔군이 지원을 오게 된 것도 맥아더 장군이 한 일이라고 들었고 공산군이 일사천리로 대전까지 밀고 내려가서 낙동강을 건너려할 때에 B29·99기를 몰고 와서 전멸을 시키고 9월 15일에는 용감하게도 인천으로 작전 상륙하여 공산군의 허리를 끊어 버린 것도 맥아더 장군이 한 일이라고 들었고 백두산까지 몰고 올라가게 한 것도 맥아더 장군이 하게 한 일이라고 듣고 있던 영애는 영애대로 놀라는 것이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엔군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¹⁹⁹⁾

맥아더와 유엔군을 민족의 구원자로 여기는 시각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맥아더의 해임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 사람은 바로 이승만이었고, 그는 맥아더의 비판자들을 겨냥하여 미국이 원자폭탄을 왜 사용하지 않는지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²⁰⁰⁾ 그러나 한홍구는 원자폭탄의 사용을 전제로 한 맥아더의 만주 폭격 구상이 실현되었다면 이는 한반도의 통일이 아니라 즉각 제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일이었다고 말한다. “맥아더는 합동참모본부에 원자

198) 모리아이 타카시, 「마해송론-재일기간과 작품의 풍자성에 대하여」, 마해송문학연구모임 자료집, 『제3회 마해송 문학 이야기 마당』, 2004, 6쪽.

199) 마해송, 『앙그리께』, 앞의 책, 160쪽.

200)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상)』, 역사비평사, 1999. 254쪽.

폭탄을 투하해야 할 목표 지점으로 한두 곳이 아니라 무려 26곳을 선정하여 보고하면서 즉각적인 원자폭탄 투하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것도 1차로만! 이런 위험한 발상을 한 맥아더를 해임한 것은 한반도를 위해서나 세계평화를 위해서나 천만다행인 조치였다”²⁰¹⁾는 것이다. 마해송이 맥아더 해임과 관련된 상황을 얼마나 폭넓게 파악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쟁과 반공에 관한 국가와 동일한 시각을 유지함을 볼 수 있다.

한편 김동춘은, 한국전쟁에 관한 ‘공식화된 기억’에는 특정 세력의 입장이나 이해관계를 일반화하려는 ‘이데올로기의 효과’가 분명히 개입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압제 하는 앓’은 지난 50년 동안 특정세력에게 엄청난 기득권과 특권을 허용해 주었으며, 자신의 체험과 공식적인 전쟁 인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감히 말할 수 없어 침묵하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한을 가져다주었다. ‘6·25’라는 전쟁에 대한 남한 지배층의 독점적 해석과 공식적인 낙인은 단지 역사해석에서의 독점을 떠나 그 자체가 중요한 ‘지식권력’, 현실 정치권력, 그리고 기득권 재생산의 정신적 기초가 된다.

(중략)

‘압제하는 앓, 공식적인 앓’ 앞에서, 이와 배치되는 경험과 기억은 침묵 당하고 지워져야 했다. 국군과 경찰, 미군에 의해 희생당한 수많은 사람의 가족들은 당한 것도 서러운데 ‘빨갱이’ 가족으로 낙인찍혀 연좌제가 있던 1980년대 초반까지 온갖 고통을 당하며 살아왔다. 국군으로 참전했다가 이유 없이 즉결 처형당한 사람들의 가족들, 전쟁통에 상처를 입었지만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평생 고생해 온 이름 없는 국군병사들도 부지기수이다. 이들은 입을 열지 않는다. 자신의 체험이 ‘공식 체험’과 배치되고, 자신의 체험을 말하는 것이 박해와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압제받는 체험’ ‘부인된 기억’이라 할 수 있다.²⁰²⁾

201) 한홍구, 『대한민국사: 단군에서 김두한까지』, 한겨레신문사, 2003. 209~210쪽.

202) 김동춘, 『전쟁과 사회』, 25~33쪽.

한국전쟁에 관한 공식화된 기억에는 특정 세력의 입장이나 이해관계를 일반화하려는 ‘이데올로기의 효과’가 분명히 개입되어 있다고 말한다.

마해송의 전쟁 체험은 ‘공식적 삶’과 일치하였기에, 그는 ‘주관적’ 체험을 의문 없이 ‘일반화’시켰다.²⁰³⁾ 문단에서의 확고한 위치만큼 그의 작품은 어린이들에게 더 많이 권해졌을 것으로 생각되고, 공식 기억과 배치하는 어린이/어른의 경험과 기억을 굴절 또는 소거시키는 데 일조하였으리라 짐작된다.

또한 작가 스스로는 의도한 적이 없을지라도, 작가의 변화된 입지도 주목된다. 일제 시대에 문화계 한복판 ‘빛’의 자리에서 있었기에 해방으로 자칫 ‘그늘’의 위치에 설 수도 있었으나, 전쟁 때 보여준 그의 애국심은 가까스로 지켜낸 ‘자유대한’에서 다시 ‘빛’의 자리 한가운데 서게 하였다. 해방 공간에서 활동을 삼갔던 그는 한국문학가협회 초대 회장, 한국아동문학가협회 회장, 동화작가협회 회장 등 한국 문단의 중심에서 활약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마해송은 전쟁 중 일본으로 돌아갈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고, 그렇게 하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알면서도 ‘존망의 위기에 처해있는’ 조국을 외면할 수 없고 ‘거룩한 대열에 앞장은 서지 못하더라도 한몫 끼기 위해’ 종군활동을 하였다. 실제 행적으로 보아 애국적 신념은 진실하고 확고하였다고 믿어지며, 그랬기에 전쟁기와 휴전 이후 혼란을 틈타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사욕을 채운 수많은 기회주의자들에 대한 분노와 비판의식을 「모래알 고금」이나 「꽃씨와 눈사람」 같은 작품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그런 면에서 그의 반공주의는 사익을 챙기기에 급급했던 일부 기득권층의 반공주의와는 심급이 다르고, 이미 전개되어버린 전쟁 상황에서 삶을 위해 사적인 삶을 포기할 수 있었던 정신은 역사나 이데올로기와 관계없이 귀하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담론이든 자유롭게 발화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마해송의 반공주의도 여러 ‘입장’ 속의 하나로서 큰 의미를 갖지 않았겠지만, 다른

203) 아동문학인으로서 처음으로 자유문학상을 수상(1959)한 작품이자, 현재까지 단행본으로 나와 추천도서로 권해지고 있는 『모래알고금』(우리교육, 1999)에도 동일한 인식의 반공주의 모티프가 등장한다. “김창덕이란 형님의 도장이 찍혀 있으니 아버지는 돈을 갚아주어야 했습니다. 빛을 갚아주고 또 땅을 팔고 또 땅을 팔고 했습니다. 해방이 되는 해 형은 새빨갱이가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형은 땅이고 집이고 모두 팔아버리고 어디론지 또 가버렸습니다.”

종류의 담론이 억압되고 소거된 상황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그의 주관적 체험이 공식적 지배 이데올로기와 일치하였기에, 약자를 억압하고 특정 계급의 지속적 이익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한 셈이기 때문이다.

② 강소천의 『그리운 메아리』

『그리운 메아리』는 1963년에 나온 강소천의 마지막 장편 동화이다.²⁰⁴⁾ 엄밀한 의미에서 50년대에 나온 작품은 아니지만, 강소천이 한국전쟁으로 월남하여 50년대 내내 열정적으로 동화창작에 매진하다 60년대 초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외적 시간에 따른 기계적인 분절보다 50년대 문학의 종결 지점으로서 이 작품을 분석대상으로 삼음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월남 이후 초기 작품부터 그의 동화에서 반공주의 모티프는 일정하게 발견되었지만, 작품 자체의 미학적 원리에 따라 주제를 전체적으로 구현하는 가운데 체험적 반공 의식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었지 반공을 목적으로 앞세우지는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작품 구조와 관계없이 반공 의식을 주관적으로 드러내는 양상이 강해지며, 마지막 장편 동화인 『그리운 메아리』에 이르면 고유한 특질인 낙관적 사고와 희망 대신, 종교와 반공 이데올로기를 전에 없이 강하게 노출한다. 쇠잔해져가는 육체를 느끼며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기라도 한 듯, 강소천은 동화의 형식을 빌려 자신의 소망과 분노, 좌절과 체념의 정서를 고스란히 담았던 것이다.

우선 작품의 줄거리를 살펴보고, 강소천 작품에 나타난 반공주의의 내용과 성격 및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다.

영길이가 만화책을 읽고 있는데 동생 웅길이가 같이 보겠다고 달려든다. 그 바람에 형제는 싸우게 되었는데, 햇김에 밖으로 나간 웅길이가 그만 실종되고 만다. 웅길이 혼자 박박

204) 강소천 작가의 아들 강현구 씨가 1963년에 발행된 『그리운 메아리』의 표지 그림이나 책의 형태를 자세히 증언해 주었으나 원본을 구하지는 못했고, 1981년 문운당 재간행본을 텍스트로 삼았다.

사택으로 눌러앉다가 비밀연구실에서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박박사는 가족도 없이 살며 무슨 연구인가에 골몰해 있는 분인데, 아이들을 좋아해서 영길이가 형제가 찾아가면 언제나 반겨주며 맛있는 음료를 만들어 주곤 했다. 그래서 비밀연구실로 몰래 들어간 웅길이가 무심코 음료를 마셨는데, 그만 제비로 변했던 것이다. 사실 박박사는 38선을 넘어 북한으로 가서 가족을 만나보고 싶은 한 가지 소망으로 오랜 연구 끝에 마시면 제비로 변하는 약물을 발명하였으나, 집에서 일하는 경자에게도 비밀에 부쳤기 때문에 웅길이가 없어진 까닭을 아는 사람이 없다. 박박사도 자기 연구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까맣게 모른 채 제비로 변해 북쪽으로 날아간다.

웅길이가 제비는 이곳저곳 잡혀 다니며 ‘노래하는 제비’로 텔레비전 출연까지 하는 등 여러 일들을 겪게 되고, 휴전선을 넘어간 박박사 제비는 기독교를 탄압하고 서로 감시 고발하며 아오지 탄광으로 끌려가 고생하는 북한주민들의 비참한 현실을 목격한다.

한편 웅길이가 실종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약물의 비밀을 알게 된 유박사도 제비로 변해 북쪽으로 날아간다. 유박사 역시 집과 가족이 북한에 있었기에 찾아가보고 싶었던 것이며, 또 박박사의 행방을 알아보려고도 했던 것이다.

웅길이는 이리저리 팔려 다니다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집에 돌아와 다시 본모습을 되찾고, 유박사 역시 북한의 실정을 확인하고 서울로 돌아온다. 그러나 박박사는 휴전선에서 인민군이 쏜 총을 맞아 맞았고, 미군들과 군의관의 보살핌을 받으며 서울까지 오게 되지만 집 가까운 곳에서 이웃 아이의 새총에 맞아 차디찬 땅바닥에서 죽고 만다.

웅길이는 울다가 잠에서 깨어 모든 것이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이웃에 실지로 살고 있는 박박사 할아버지는 통일이 될 날만을 기다리다 얼마 뒤 숨을 거두고 만다.

이 작품은 어른의 시각에서 본다면 황당하다는 느낌부터 들 수 있다. 사람이 마시면 제비로 변하는 약물을 발명한다든지, 그 제비가 사람처럼 의사표현을 하고 텔레비전에 출연하기도 한다는 등의 줄거리가 그러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환상은 믿는 사람만이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어린이는 그 점에 있어 훨씬 열려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작품이 특정 종교와 특정 정치적 입장을 직설적이고도 적나라하게 대변하고 있어 어린이들에게 편향된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편향성은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이나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데, 기독교인, 미국인, 국군은 착하고 친절하며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선한 이미지 일변도로 그려진다.

“...그러나 세상이 달라져 한 때는 일본 사람들 때문에, 지금은 이런 형편에서 난 하나님 없이 없다고 말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나 나도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이 이상 더 못하겠어요. 왜 내 마음이 이리 약해졌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이 말에 할머니는

“약해진 것이 아니라 착해졌지요.”²⁰⁵⁾

우리 쪽 휴전선 있는 곳에 왔을 때 제비는 몸이 아프고 힘이 빠져 더 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비는 미군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비는 곧 그들 앞에 날아 내렸습니다. 제비를 본 미군 몇 사람이 부랴부랴 제비 앞에 다가왔습니다. 제비를 집어 들더니 미군 한 사람이 곁에 선 미군에게 무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군인은 곧 달려가서 약과 붕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피 나는 다리를 약물로 씻고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²⁰⁶⁾

이에 비해 북한 공산주의자, 인민군은 기계적이고 정형적으로 악한 인물로 나타나며, 함부로 주민을 죽이고 땅을 뺏어가며 툭하면 총으로 위협하는 등 악행을 일삼는 것으로 나타난다.

“박가는 어디로 갔니?”

“박가라니요? 우리 오빠 말입니까?”

“오빠? 댜진 네 오빠를 정신이 나갔다고 우리가 찾을까. 네 애비 말이다. 반동분자 네 애비가 이남에서 스파이로 우리 마을에 왔단 말이야, 어서 말하지 못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자고 있었어요. 여지껏—”

“잔소리 마라! 빨리 내놓지 않으면 집을 뒤질 테다. 뒤져서 나오면 너희들은 모두 총

205) 강소천, 『그리운 메아리』, 문운당, 1981. 102쪽.

206) 강소천, 앞의 책, 252쪽.

살이다. 알았느냐?” 207)

공산주의자는 ‘빨갱이’ ‘찬피(冷血) 동물’, ‘송충이’ 등으로 표현되어 인간이 아닌 것으로 묘사되며, 인민군의 총에 맞은 제비를 치료해주며 미군 군의관들은 이런 대화를 주고받기도 한다.

“이 제비는 저쪽 공산군들이 쏘았을 거다. 참새를 잡아먹는다는 말은 들어도 제비를 잡아먹는다는 말을 우리는 듣지 못하였다. 배가 고프면 혁대를 삶아 먹는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그러나 겨울 추위에 날아다니는 제비를 구해 주지는 못하나마 어떻게 총으로 쏘까? 차라리 빈대를 잡아먹지!”²⁰⁸⁾

혁대를 삶아먹어야 할 정도로 굶주림에 시달린 인민군 또한 북한의 기득권층에 의해 내몰린 힘없는 동족이었다. 그러나 작가의 시선은 이상한 동양인을 타자(他者)로 경멸스럽게 바라보는 미국인의 관점과 동일시되어 있는 것이다.

강소천은 미국과 미국인을 언제나 선량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로만 그려 한국의 어린이들로 하여금 우호적 감정을 갖게 하였으나, 실지로 미국인은 한국인을 결코 동등한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미군은 한국인의 옷을 ‘흰 파자마’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흰 파자마’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하였다. 영국의 전쟁 특파원 레지널드 톰슨은 『한국의 통곡』이라는 책에서 “미군 헌병들은 적들을 사람처럼 이야기하지 않고 원숭이처럼 취급한다”고 썼다. 톰슨은 “그렇지 않으면 이 천성적으로 친절하고 너그러운 미국인들이 그들을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죽이거나 그들의 집과 빈약한 재산을 박살낼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²⁰⁹⁾ 실지로 미군의 인종차별주의는 좌우익을

207) 강소천, 앞의 책, 157쪽.

208) 강소천, 앞의 책, 255쪽.

209) 브루스 커밍스 · 존 할리데이, 차성수 · 양동주 옮김, 『한국전쟁의 전개과정』, 태암, 1989, 87~90쪽; 브루스 커밍스, 김동노 외 옮김,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2001. 380쪽. 강준만, 『한국현대사 산책』 1권, 인물과 사상사, 2005. 100~101쪽에서 재인용.

떠나 많은 한국인을 분노하게 하였다. 우익 청년들은 종종 한국 사람을 동물로 생각하고 좌익 색출시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아대는 미군과 싸움을 하기도 했다.²¹⁰⁾ 또 1·4후퇴 때는 한국전쟁 최대 규모의 철수 작전이 벌어졌는데, 당시 홍남 부두에는 서로 배에 타려는 피난민들로 아비규환이 참상이 벌어졌다.²¹¹⁾ 사람들이 한꺼번에 홍남 부두로 몰려든 데는 미군의 원폭 투하 소문이 큰 영향을 미쳤으며, 마지막 배가 출항하자 미처 배에 타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항구에 대규모 함포 사격과 공중 폭격을 하여 그 일대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함남 고원 출신의 강소천도 바로 이때 홍남부두를 통해 단신 월남하였다. 그 역시 하마터면 폭격의 희생자가 될 뻔하였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철수하는 미군을 따라 홍남까지 갔다. 그런데 미군은 철수 작전에 방해가 된다면 소천을 비롯한 피난민들을 모두 유치장에 수용시켰다. 소천은 모든 희망을 잃고 자신의 목숨을 하느님께 맡겼다. 그때 어떤 청년이 미군 헌병들을 데리고 들어와 “여기 혹시 기독교 신자가 있습니까? 있으면 손들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소천이 손을 들자 그 청년은 소천을 유치장에서 빼내 LST라는 미군 함정에 태워 주었다. 구사일생으로 죽음의 문 앞에까지 갔다가 살아난 것이었다. ²¹²⁾

당시 홍남부두에 있었던 어떤 목사는 아비규환의 참상을 보며 “미국 놈들아. 미국 놈들아. 너희들이 차라리 여기 오지 않았던들 우리는 죽지는 않았을 것이

210) 윤택림, 『인류학자의 과거여행: 한 빨갱이 마을의 역사를 찾아서』, 역사비평사, 2004. 134쪽.

211) 김용삼, 「홍남 철수 및 1·4 후퇴: 아비규환의 겨울 부두」, 월간조선 위음, 『한국현대사 119대 사건: 체험기와 특종사진』, 조선일보사, 1993. 100쪽. 강준만, 『한국현대사 산책』, 앞의 책 168쪽에서 재인용.

“사풍이 몰아치는 홍남 부두. 수많은 군인과 부상병,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몰려든 수십만의 피난민들, 그곳은 차라리 지옥이었다. 어떤 말로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까(…)피난민들은 서로 먼저 타려고 죽기살기로 몰려들었다. 밟혀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그물에 매달려 기어오르다 떨어져 죽은 시체가 즐비했다. 주인 잃은 보따리가 산처럼 쌓여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살을 에는 듯한 흑한의 연속이었다. 부두를 빠져나간 배가 다시 돌아오려면 며칠씩 걸렸다. 추위에 못 이겨 얼어 죽은 시체가 매일 밤 수없이 버려졌다.“

212) 박종현, 「강소천의 생애」, 강소천 홈페이지, <http://www.kangsochun.com>.

다. 너희들이 우리를 죽이고 가는구나. 너희 미국 놈들을 믿었던 우리가 잘못이구나. 너희들을 믿고 타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만세를 불렀다가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우리는 미국 놈들에게 속았다. 저주받을 미국 놈들아.”²¹³⁾하고 부르짖기도 했다. 그런데 같은 시기 같은 공간에서 동일한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소천의 작품에서 미국과 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비판적 시각은 일체 찾아볼 수 없는 반면, 북한과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반공교과서적인 인식²¹⁴⁾을 보인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 합해 하루 속히 남북을 통일시켜 태극기를 휘날리며 고향을 다시 찾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 때가 오기까지는 그 곳에 남아 있는 우리의 가족들은 고생 고생할 것이며 그것을 참지 못하면 죽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내 아들도 탄광에서 죽지 못해 매일을 짐승처럼 일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²¹⁵⁾

강소천의 일관된 반공주의 입장도 개인적 체험에서 연유한다. 온 가족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었기에 공산군의 부당한 종교 탄압으로 고통을 받아야 했고, 지주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생성 과정에 관계없이 재산을 몰수당해야만 했다. 그러고도 인민재판에 회부될까 두려워하다 홀로 월남할 수밖에 없었는데, 분단이 고착되어 가족들을 영영 만날 수조차 없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강소천 문학의 원형질을 이루며, 북한과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와 원망 역시 일관되게 표출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1950년대의 다른 반공주의 아동소설과 강소천 문학의 반공주의는 확연히 다른 점이 있다. 대부분의 반공소설이 기득권층의 입장에서 자신이 속한

213) 유진오, 『구름 위의 만상』, 일조각, 1966. 23쪽. 김동춘, 앞의 책, 106쪽에서 재인용.

214) 월남 직후 강소천은 부산에서 최태호 편수관을 만나게 되어 교과서 및 반공독본 편찬 일을 도왔는데, 반공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당수의 글을 강소천이 집필한 것으로 믿어진다. (동화 작품과 같은 이름의 인물, 내용 등.)

215) 강소천, 앞의 책, 216쪽.

계급을 옹호하는 담론을 일정하게 생성한 데 비해, 강소천의 작가의식은 가난하고 외로운 처지의 어린이 입장에 서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들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기득권층에 대한 적대적 태도나 거부감 역시 나타나지 않아, 부유한 집 어린이의 생활을 묘사한 작품 역시 스스로 없이 쓰기도 했다. 즉 강소천은 특정 계급을 옹호하거나 배제하는 관점을 보이지 않았는데, 계급이 존재하는 현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차이는 알고 있으되 작가의 시선에는 차별이 없는 것이다.

‘돌이가 희순이를 따라 학교로 간다.’

그게 정말 공부를 하는 학교는 아니라 해도 이 때 이런 일은 좀 생각하기조차 어려웠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지주(땅 임자)와 소작인(땅을 부리는 사람)사이란 마치 주인과 종의 사이 같았습니다. (...) 돌이가 희순이를 따라 교실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아이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공부하러 오지 않고 놀러 온다고 해도 돌이가 어떻게 이런 곳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있나 하는 눈치입니다.²¹⁶⁾

이 점에서 강소천의 반공주의는 유물론적 계급의식에 기초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실지로 강소천은 지주집안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풍요롭게 자랐지만 월남 후 혹독한 빈민 체험을 해야 했고, 북한에 두고 온 자녀들이 어려운 처지에 빠졌을 수도 있기에,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들에 대한 보편적 사랑을 보여주었다.

아도르노는 “서정시가 지니는 사회적인 내용은 그때그때의 현실에서 유도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서 생겨나는 자발성”이라고 하며 “서정시의 밑바탕에는 언어 자체가 큰 소리를 발하는 힘, 객관성에 이르게 하는 힘이 숨어 있는데, 이 힘을 언어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집단적 저류’라 명명”하였다.²¹⁷⁾ 한

216) 강소천, 『대답 없는 메아리』(1960년 단행본 발행), 강소천 홈페이지.

217) 아도르노, 『아도르노의 문학회론』, 김주연 역, 민음사, 1992. 한영옥, 『한국현대시의 의식탐구』, 새미, 1999. 84쪽에서 재인용.

영옥은 이 집단적 저류야말로 서정시의 바탕이 되어 언어를 주관 이상이 되는 매체로 만들어주며 객관세계를 드러낼 수 있게 한다는 아도르노의 사상을 읽어내며, 이러한 언어 자체의 존재론적 사회성은 타 장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고 하였다. 218) 1950년대는 인간으로서 차마 저지를 수 없는 온갖 잔인한 방식의 학살이 대량으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기존에 믿어왔던 도덕과 신념이 한꺼번에 붕괴되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근본적으로 회의하게 하는 ‘불신시대’²¹⁹⁾였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참담한 일이 벌어졌던 때에, 구김살 없이 밝고 희망 찬 강소천의 동화는 오히려 50년대라는 특수한 사회의 ‘집단적 저류’를 역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떤 현실 속에서도 어린이는 떠돌고 뛰고 웃고 탐험하며 현재적 삶을 누리 고자 하며, 밝은 빛을 향해 무조건 뻗어 가려는 식물의 싹과 같이 인생의 환한 곳을 향해 성장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강소천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현실에서도 이러한 어린이의 내적 성장 욕구를 충족시켜주었고, 감수성 상상력 유머 지성과 같은 내면적 자질들을 개발하게 함으로써 자신과 세상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갖게 해주었다. 어린이는 타인과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자신의 존재가 받아들여지리라는 낙관 하에 힘차게 바깥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강소천은 시대가 어린이들을 위해 요구하는 집단정신을 느꼈고 이에 부응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가 세계에 대해 생각하고 경험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시킬 줄 알았던 탁월한 동화작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공산주의에 관한 한 일관되게 기계적이고 정형적인 사고 패턴만을 보여 의아한 느낌을 준다. 흔들림 없는 친미적 사고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반공=친미=친정부의 도식을 따라 가보면 그 중심에 기독교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소천의 초기 작품에서부터 반공과 기독교 이미지는 떼려야 뗄

218) 한영옥, 『한국현대시의 의식탐구』, 앞의 책, 84쪽.

219) 1957년 『현대문학』 8월호에 발표된 박경리의 단편소설.

수 없는 한 쌍으로 나타나는데, 그나마 초기에는 미학적 원리를 중시하는 가운데 반공과 기독교 모티프를 드러내었다면 후기로 갈수록 문학적 가치에 관계 없이 반공과 종교 이데올로기를 노골적으로 표출한다.

‘그 어리신 예수 늘 자리 없어…….’

찬송가는 점점 슬퍼졌고 눈물에 젖어버렸고 울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지키는 이 명절이 왜 우리에게만 이다지도 초라하고 쓸쓸하고 슬프기만 합니까? 누가 교회당을 빼앗았습니까? 누가 교회당의 종을 깨어버렸습니까? 이 땅에 다시 크리스마스 종을 울려 주십시오. 마음 놓고 목이 터져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외쳐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²²⁰⁾

강소천의 문학과 반공주의는 당시 기독교의 사회적 성격을 이해할 때 해명 가능해진다.

해방 후 한국교회는 새로운 나라가 ‘하나님께 근거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대체로 일치했고, 미군정에 이어 제1 공화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²²¹⁾ 이러한 생각의 근거는 해방이 미국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 배후에 기독교가 있다는 인식이었고 미국과 종교의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는 동일선상에 있다고 여겨졌다.²²²⁾ 한국교회는 1920년대에 사회주의 논쟁을 겪으면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산주의에 이미 반대 노선을 취하고 있었는데, 해방 후 미군정의 수립으로 기독교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진 가운데²²³⁾ 한국교회가 건국이라는 과제

220) 강소천, 『그리운 메아리』, 169쪽.

221) 강인철, 「미군정기의 국가와 교회」, 『해방 후 정치세력과 지배구조』, 한국사회사학회 편, 문학과 지성사, 1995. 207쪽.

‘우익의 3영수’로 불렸던 이승만, 김구, 김규식은 모두 독실한 개신교 신자이거나 신자로서의 경력을 갖고 있었고, 한결같이 기독교 신앙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를 세우려고 한다고 역설하였다.

222) 허명섭, 「해방 이후 한국교회의 재형성」,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2003. 57쪽.

해방 이후 대표적인 기독교 기관지였던 <기독교공보>는 “기독교인의 정치생활”이라는 사설에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한다”는 사상을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건국 초기와 같이 한국의 정치를 기독교 기반 위에 세우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

앞에 현실 정치에 적극 참여하면서 공산주의와 극심한 갈등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북한 공산정권의 극심한 탄압을 피해 이북의 기독교 지도자 다수가 월남하게 되면서 한국 교회의 반공산주의는 한층 강화되었고,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반공주의는 한국사회와 교회에 깊이 내면화 되었으며, 반공의 기수로서 한국교회의 위치와 역할은 더욱 심화되었다.²²⁴⁾

휴전조인을 앞두고 있던 1953년 6월 15일 충무로광장에서 열린 ‘구국기도신도대회’에서 채택된 선언서는 한국교회에 내면화된 반공주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 51개 교회 만여명의 신도가 참여했던 이 대회는 휴전반대와 북진통일을 호소했으며 유엔과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채택했는데, 여기에 의하면 공산주의는 “영구히 말살할 수 없는 마귀”이고 휴전은 “마귀의 승리를 초래할” 것이므로, “공산주의자는 사탄의 집단”이므로 우리 국토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²²⁵⁾ 공산주의자를 사람이 아닌 마귀, 사탄으로 인식한 것이 당시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입장이었고, 공산주의와 그 종주국인 러시아에 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마귀의 이름을 붙여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

당시 한국교회가 가졌던 이러한 친미, 반공, 극우, 보수, 친정부적 성격은 강소천의 삶과 작품에서도 전형적으로 드러난다. 교회 입장에서 공산주의자는 ‘사람’이 아닌 추상적인 ‘악’일 뿐이었는데, 신앙심이 깊었던 강소천은 이러한 교회 입장을 완벽하게 내면화하였기에 북한과 공산주의를 한점 의문의 여지없이 기계적으로 도식화하였던 것이다. 종교적 차원에서 비롯된 반공주의기에 극복 역시 종교를 통해서만이 가능해진다.

223) 허명섭, 앞의 논문, 68쪽.

해방 당시 한국교회는 미국에 대해 가장 우호적인 집단이었다. 한국의 개신교는 미국선교사들에 의해 수용 되었으며, 그들을 통해 많은 물질이 한국교회에 지원되었다. 미군정은 기독교인의 정치참여를 적극 독려했으며, 축적된 인적 자원들의 활용에 관심을 쏟았다. 해방 이전부터 한국 교회는 인구 규모에 비해 지식인 비율이 매우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고, 미 군정기 및 건국 당시 정부 및 각계 요직에 기독교인의 비율이 대단히 높았다.

224) 노치준, 「한국전쟁이 한국교회의 성격 결정에 미친 영향」, 『기독교사상』, 1995. 6. 13~15쪽.

225) 허명섭, 앞의 논문, 84~85쪽.

할머니는 지난 날의 일과 현재 일을 낱낱이 들어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는 끝나자 김가는 커다란 소리로 “아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중략)

“알았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지요. 오늘 밤 하느님께서와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죄인 한 사람이 마음을 고치구 하느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고 …….”²²⁶⁾

물론 모든 개신교회와 교인들이 동일한 사고를 한 것은 물론 아니었기에, 강소천이 영향 받은 이북 교회의 성격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에는 이북이 한국기독교의 중심지여서 해방 무렵 약 20만의 개신교인과 1500여개의 교회가 있었는데²²⁷⁾, 특히 서북지역 개신교 신자들은 상인층과 민족 자본가층, 중농 이상의 농민층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러한 성향으로 타지역에 비해 일찍부터 시민의식이 형성되어 정치 참여에도 적극적이었다. 북한에 김일성 정권이 수립된 뒤 처음에는 기독교 민족주의자를 포섭하려 하였으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자 혹독하게 탄압하기 시작하였다.²²⁸⁾ 공산정권에 의해 ‘기독교 사회민주당’ 창당이 무산되었고, 이북 교회의 3·1절 기념행사를 방해받았으며, 주일 선거 반대와 관련하여 교회와 북한 정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등 사상자가 속출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북교회의 민심은 완전히 이남으로 기울었다.

서북지역의 신앙과 신학적 경향은 철저히 ‘보수/복음적’이었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공산정권의 탄압을 피해 월남하면서 남한교회 내의 보수반공화가 촉진되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무엇보다도 공산주의의 핍박을 몸으로 경험했던 월남 기독교인들은 남한 교회의 보수 반공화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통일’ 그 자체보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통일하는 것이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더욱 중요한 일이었고²²⁹⁾, 이러한 입장은 정부

226) 강소천, 『그리운 메아리』, 앞의 책, 109쪽.

227) 강인철, 「월남 개신교·천주교의 뿌리」, 『역사비평』, 1992. 여름. 109쪽.

228) 허명섭, 앞의 논문, 86쪽.

의 방침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230)

지주 집안의 귀한 손자로서 강소천은 물질로부터 일찍 자유로울 수 있었고, 많은 관심과 사랑을 한몸에 받은 것은 물론이고 종교적(기독교적) 사랑의 정신을 유년기에 체득하였기에, 계층에 구애됨 없이 ‘어린이’ 자체를 주목하며 50년대 내내 작품을 통해 희망과 사랑을 주었다.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²³¹⁾에서 아버지의 거짓말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사랑이었듯, 황폐한 현실에 팽개쳐진 전후의 어린이들에게 강소천 동화가 준 희망과 믿음은 현재적 잣대로 함부로 논단할 수 없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종교적 신념은 강소천의 삶과 문학을 반공, 반북, 친미, 친정부, 극우의 흐름 속에 위치하게 하였다. 물론 전쟁 상황에서 자유를 지켜내기 위한 싸움 자체가 무엇보다 절박하였고, 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는 그로 인한 소중한 결실임이 분명하다. 다만 명분에 가려진 힘없는 개인들의 희생이 너무나 컸고 당연시 된 반면 그들의 희생의 대가로 이익을 얻는

229) 허명섭, 앞의 논문, 61쪽.

기독교는 민주주의의 정신적 기반으로 이해되었다. 한경직 목사는 민주주의란 꽃은 기독교 문화의 밭에서만 아름답게 피며,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는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설교했다. 따라서 조국의 재건은 반드시 기독교가 그 정신적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경직, 『한경직목사 설교전집』, 제 1권) 김재준 목사도 국민의 각성과 도덕적 향상이 없이는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며, 기독교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종교적 신앙은 자유민주주의의 샘터”이며, “민주주의는 반드시 종교와 합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재준, 『김재준 목사 전집』, 제 3권) 해방 이후 성결 교회의 초대 총리였던 박현명 목사도 건국은 법률과 정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도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종교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박현명, 『활천』, 1949.)

230) 허명섭, 앞의 논문, 62쪽.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건국사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1948년 5월 31일에 있었던 ‘제헌국회 개회기도’였다. 총선거에서 선출된 198명의 제헌의원들이 모여 역사적인 초대국회를 개회할 때, 이승만 임시의장은 목사인 이윤영 의원을 지명하여 개회기도를 요청했다. 다음은 당시 의원들이 모두 기립한 가운데 드러진 기도문의 일부이다.

“오랜 시일에 걸쳐 괴로움에 잠겨있던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간의 역사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격의 이 날을 맞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컨대 우리 민족과 함께 앞으로 기리 독립을 주시고 평화를 세계에 퍼게 하시와 자손만대에 빛나는 역사를 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231) 인생은 아름다워 (Life Is Beautiful, La Vita E Bella, 1997) :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수용소의 참혹한 현실로부터 아들을 지키기 위해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린 이탈리아 영화

이들이 따로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1950년대에 누구보다 어린이와 가까운 자리에서 충만한 사랑을 문학에 담았던 강소천이었고, 그 역시 역사적 시공간이 강제한 폭력적인 물리적 힘에 희생당한 억울한 개인이었다. 그러나 특정 종교적 입장을 철저히 내면화하였기에 삶과 문학의 방향성이 규정되었고, 교과서 집필과 동화 창작, 영화와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그의 활약은 기독교와 반공주의²³²⁾를 한민족의 문화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32) 황석영은 신천 학살사건을 다룬 소설 『손님』(창비, 2001.) 작가의 말에서 이렇게 말한다.

“기독교와 맑스주의는 식민지와 분단을 거쳐오는 동안에 우리가 자생적인 근대화를 이루지 못하고 타의에 의하여 지니게 된 모더니티라고 할 수 있다.(…) 천연두를 서병으로 파악하고 이를 막아내고자 했던 중세의 조선 민중들이 ‘마마’ 또는 ‘손님’이라고 부르면서 ‘손님굿’이라는 무속의 한 형식을 만들어낸 것에 착안해서 나는 이들 기독교와 맑스주의를 ‘손님’으로 규정했다.”

제Ⅳ장 반공주의와 1950년대 아동문학

이번 장에서는 반공주의가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시대에 아동 산문 문학의 구현 양상을 개략적으로 살피고, 한국아동문학의 성격과 반공주의의 영향관계를 아울러 찾아보도록 한다.

1. 아동문학의 구현 양상

아동문학에서 산문시대는 해방공간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일제 강점기 36년간 자신의 ‘말’을 억압당하고 살다가, 해방을 맞아 저마다의 말을 마음껏 쏟아놓기에 운문 양식은 그릇이 좁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전쟁이야말로 근대 한국과 한국인을 만든 기원적 사건으로 소설시대의 격렬한 개막을 불러왔다. 카오스적 현실을 폭넓게 담아낼 수 있는 문학 양식으로 소설이 가장 적절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휴전이 되자 남과 북의 주민들은 자신이 속한 국가가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담론밖에 발화할 수 없게 되었다. 전쟁으로 인한 상처는 개인들의 몸과 마음에 그대로 새겨져 있고 아픔과 고통은 현재형으로 살아있지만, 반공 친미 보수 국가주의에 반(反)하는 종류의 표현을 하면 즉시 처벌이 뒤따랐기에, 개인들은 침묵하거나 병들거나 왜곡된 형태로 자기 몸에 새겨진 50년대를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에서 1950년대 동화·아동소설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건 그 모습은 동시대의 정직한 표현이며, 사회적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나름의 대응양상이라 하겠다.

반공주의에 대한 아동 산문문학의 태도는 크게 네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반공 체험의 즉자적 수용 작품이다. 앞에서 주로 살펴보았던 반공주

의 작가와 작품이 여기 해당된다.

둘째, 일상 세태 묘사 작품이다. 50년대라는 시공간을 사실적으로 그리되, 역사 사회적 의미망에 이르지 못하는 어린이의 일상생활이나 현실세태를 묘사하는데 그친 작품이다.

셋째, 환상과 상징의 세계이다. 말 하고자 하는 주제를 시적(詩的)인 간접 화법으로 형상화한 경우이다. 겉으로 볼 때는 현실을 회피한 듯 보이지만, 반공주의가 지배하는 현실의 폭력성에 대응하는 개인의 내면 풍경이 가장 잘 드러난다.

넷째, 현실 도피적 자의적 작품이다. 사실주의 기법을 사용하되 자의적 사건과 줄거리를 엮어 가거나, 환상기법을 사용하되 삶에 닿지 않는 허무맹랑한 공상을 펼치는 등으로, 객관적 현실을 회피 또는 외면하는 작품이다. 이 그룹의 경우도 자유로운 표현이 억제된 사회 분위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겠으나, ‘문학’보다는 ‘문화’의 차원에서 더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본고에서는 논의를 생략하고자 한다.

각 유형의 작품이 기계적으로 분절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성향이 더 강한가는 구별될 수 있고, 그 차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 반공체험의 즉자적 수용

한국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반공주의는 정치영역에만 존재하였다. 그런데 한국전쟁 발발로 지식인과 문화인 등 언어 권력을 가진 사회 엘리트 계층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자신의 입장에서 유리한 담론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반공 이데올로기는 이러한 교육과 문화의 매개 과정을 통해 국민의 일상과 내면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었다. 물론 정치권력 주체와 이데올로기 전파 매개자 및 수용자가 분리되어 존재한다기보다, 이해관계가 부합되는 각계각층 개인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반공주의의 형상과 내용이 생겨

나고 구체화되어 갔다고 볼 수 있다.

아동문학의 반공주의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국가에 의해 제도적 반공 교육이 먼저 시작되었고, 문화의 영역에서 작가들이 일종의 ‘국책사업’인 종군작가단을 결성하여 반공소설과 종군기사 등을 잡지 매체에 발표하였다. 이어서 월남인 및 개인적 차원의 다양한 이유를 가진 작가들이 반공주의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전파시키는 매개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휴전 후에도 지속적으로 생산된 반공 문학은 개인적 신념 외에 현실적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었으며, 내적 동기 이상으로 그 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를 전유함으로써 후광효과를 얻고자 하는 사례들이 발견된다. 50년대 후반에 ‘반공’을 선정적으로 내세운 통속적 작품들이 여기 해당되며, 필연성도 없이 반공 이데올로기를 남용하는 경우도 그러하다.

비도 그쳤다. 구질게 구질게 내리던 비도 이제 그쳤다. 그나 시커먼 구름짱이 하늘을 오락가락 번개불이 번쩍 번쩍하고 있었다.

하늘나라에서 휴전을 했을까? 그렇지 않음 밤이 되어 잠시 쉬는 걸까? 하늘나라의 공산군이 함락하고 연합군이 이긴 게 아닐까?

하늘을 쳐다봤다. 시커먼 구름짱 속에서 연합군대가 깃발을 높이 들고 만세를 부르는 광경이 보였다. 역시 연합군이 이기고 공산군이 항복한 게 틀림없다.

하늘 위에 공산군이 없어졌을까? 금, 땅 위의 공산군도 이제 없어질까? 없어지지 않는대도 이제 우리나라도 공산군을 무찌르고 남북통일이 될까?²³³⁾

삼돌이가 비 오는 날 혼자 집을 보며 혼자서 상상을 하는 장면이다. 그러나 어린이는 추상적 사고를 하기보다 자기에게 속해있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남북통일에 대해 생각하기보다 밖에 나가 있는 식구들이 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인 것이다. 그런데 주인공이 혼자 집을 보

233)김영일, 「비오는 날」, 『학원』, 1955. 7월호

면서 남북통일을 생각하는 아이로 설정하였다면, 그만큼 내적 설득력을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작품 외적 ‘반공주의’가 너무나 정당하기에, 당위로 설정되며 작가는 작품 자체의 논리를 위한 어떤 노력도 보여주지 않는다. 전쟁기의 반공주의 작품들이 격렬한 적개심을 표출하면서도 공산주의자가 왜 나쁜지 어떤 짓을 했는지 설득하려고 애썼다면, 이 작품의 경우에 공산군은 ‘자명하게’ 악으로 전제됨을 볼 수 있다.

작품 주제에 관계없이 반공이 소재주의적으로 남용되면서, 6·70년대에 이르러 일종의 유행이나 습관처럼 반공 모티프가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적 풍경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2) 일상 세대의 피상적 묘사

50년대에 소설가 가운데 어린이 잡지와 신문 등에 아동소설을 발표한 작가는 계용묵, 곽하신, 곽학송, 김광주, 김동리, 김래성, 김말봉, 김 송, 김영수, 김이석, 김장수, 마해송, 문학일, 박경리, 박계주, 박영준, 박용구, 방기환, 손동인, 손소희, 손창섭, 심재언, 안동민, 안수길, 오영수, 유주현, 유 호, 이봉구, 이원수, 이주홍, 장덕조, 장수철, 정비석, 정재섭, 정진업, 정한숙, 조남사, 진장섭, 최명순, 최인욱, 최정희, 최태응, 채만식, 홍효민, 황광은 등으로, 사실상 활동하던 거의 모든 소설가들이 아동소설 창작을 겸하였다 해도 무방할 것이다.

소설가들의 아동소설 창작으로 전쟁기 어린이 현실이 많은 부분 사실적으로 표현될 수 있었고, 특히 ‘전쟁의 파괴 양상과 충격의 체험이 체감적으로 제시’²³⁴⁾된 점은 1950년대 아동소설의 의의로 손꼽을 수 있다. 동족상잔이라는 미증유의 참상을 겪은 시기에 어린이 삶의 직접적 형상화와 증언마저 없었다면 전후 한국 아동소설사는 공백상태로 남겨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234)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민음사, 1991. 83쪽.

미리는 마치 한 마리 작은 짐승처럼 기어가서 그 피난의 군중 속에 끼었습니다.

미리는 피의 현 누데기를 두른 역시 짐승같이 보이는 어린 아이들의 커다란 군중의 흐름 속에서 그래도 어쩐지 어머니같이 따스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미리에게는 이 전쟁이란 현실이 무서웠고 또 자기를 고독하게 만드는 것이라 느껴졌습니다.

미리와 함께 걸어가던 어머니 나이쯤 되어 보이는 부인이 숨가쁜 목소리로 미리에게 말하였습니다.

“눈을 다쳤니?”

“예!”

“어디 보자, 아유 바른편 눈에 유리조각이 박혀 있구나!”

비틀 비틀 기운 없이 걸어가던 그 부인은 미리를 위하여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하여 눈 속에 박힌 그 유리 조각을 뽑아 주었습니다.

미리의 눈은 그제야 칼로 에이는 듯한 아픔의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미리의 눈에서 눈물 대신 피가 흘러 부인의 손을 적셨습니다. 235)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정서와 사건이지만 더욱 극단적인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졌던 전쟁기의 한 단면을 이 작품은 생생하게 증언한다. 그러나 ‘겨레의 불행을 덜어주기 위하여’ 또 ‘부상으로 병들은 피난민을 구하기 위해’ 개인의 자연스런 감정을 누르고 간호부의 삶에만 충실하겠다는 결말은, 전체주의 관점에서 장려하는 국민의 상(象)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마는 것이다.

한편 50년대 초 중반 어린이 삶의 내용은 ‘전쟁과 피난 체험’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전쟁 직후에는 죽음, 폭력, 상실 체험(이별, 사별, 집과 고향 상실, 신체 훼손 등)이 한결같은 삶의 배경을 이루었고, 이로 인한 생활의 고난이

235) 정진업, 망향의 노래, 『소년세계』, 1953.7.

주된 테마였다. 가족 구성원 가운데 남성 특히 아버지의 부재(납북, 전사, 군입대 등)가 기본 전제가 될 정도로 보편적이며, 따라서 이 시기 아동소설에 많은 어머니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힘겨운, 또는 억척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엄마는 냉면, 짜장면, 우동, 세 가지 중에서 한그릇을 들어 앉은 사람 앞에 들어 대고,

“냉면을 잡수세요”하고 권하다가 그래도 알은 체를 아니하면 냉면을 목판에 도로 놓고

“짜장면 잡수세요.”하고 짜장면을 들고 권하다가 그래도 알은 체를 아니하면 짜장면을 목판에 도로 놓고, “그럼 우동 잡수세요”하고 권한다.

그러면 권하는 엄마와는 아주 단판인 얼굴과 말투로, “안먹어. 안먹는대두 왜 이래. 아침부터 재수없게스리.”하고 거만하고 쌀쌀하게 대꾸한다.

엄마는 그렇게 불모양 없이 푸대접을 받건만 앉은 사람들 앞에 마다 가서 목판을 내려놓고 똑같은 말과 행동으로 목판에 담긴 것들을 권한다.

(중략)

직이만이 아니라 육이, 석이, 극이, 직이 등에 업힌 향이까지도 어두워지기만 하면 동네 어구만 내려다본다. 엄마가 그리워서 보다 배가 고파서다. 엄마는 훑는 때도 있지만 시계 같이 정확히 똑 그 때면 동네 어구에 들어선다. 너무 어둡지도 않고 너무 밝지도 않은- 꼭 산에서 동네 어구가 보일만한 때에 엄마는 언제나 빨리 빨리 걸어서 언덕진 길을 숨차는 것도 모르고 올라 걷는다.

엄마가 보이면 직이들은 엄마를 천년이나 보지 못한 것처럼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를 수없이 부르면서 산을 내려 달린다. 236)

여성 동화작가가 등장하지 않았던 시기에, 최정희 등 여성소설가들이 쓴 아동소설은 전후 현실을 여성의 관점에서 증언하였다는 점에서 뜻 깊다. 올

236) 최정희, ‘산울림’, 《소년세계》, 1952. 9월호. 7~9.

망줄망 매달린 어린 것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상의 비굴과 오욕을 기꺼이 견디는 강한(실은 연약한)어머니와, 그런 어머니를 하늘처럼 믿고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은, 잡지에 나란히 실린 ‘배경 사진’의 사실성에 힘입어 동시대 많은 독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인 듯 공감과 감동을 주었을 듯하다.

북한에 의해 친일분자로, 다시 남한에 의해 부역혐의로 고초를 겪어야 했기에 역으로 종군작가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입장이었지만 최정희는 목적적 반공소설을 창작하지는 않았다. 친일 전력의 정비석, 홍효민도 마찬가지여서, 흥미위주의 세태소설이나 역사물을 집필하며 정치 사회적 현실 의식을 일체 드러내지 않았다. 최정희와 함께 인민군 부역 전력이 문제된 손소희, 장덕조 등도 그러하다.²³⁷⁾ 즉 이들의 종군작가단 가입은 자발적 신념이라기보다 전력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아동소설 창작을 통해 반공의식을 고취하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에 관한 국가의 공식적 ‘앓’과 다른 종류의 체험을 표현한 것은 아니었다. 위의 작품 「산울림」에서도, 어머니가 투표를 하러 간 날 직이가 “하느님 우리들을 수수밥이라도 꾸준히 먹게 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주십시오.”하고 기도를 한다는 에피소드 차원의 이야기로 끝맺었다. 홀로 다섯 아이를 힘겹게 먹여 살리고 있는 전쟁미망인의 삶은 역사 사회적 의미망에 이르지 못하고, 시정의 사고를 반영하는 세태묘사 수준에 머무르고 말았다.

장덕조의 작품도 마찬가지이다.

“밭도 그 애 때문에 가꾸었지. 일석이 내보내고 나서 나혼자 먹을라구 밭에 지성

237) 니시야마 준코, 앞의 논문, 7쪽.

“최정희, 장덕조, 손소희 세 명은 인민군 통치 하의 서울에서 1950년 6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조선문학가동맹’에 가입해서 활동한 전력이 문제되어 있었다. 인민군 서울 점령시 서울 잔류 문인들의 이러한 활동은 사법심사대상이 되었던 것이다.(중략)종군활동에 참가한 세 여성작가는 『赤下三朔九人集』(국제보도연맹, 1951)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강한 증오심과 적개심을 표현한다.”

그러나 이들의 아동소설은 어린이와 여성의 삶을 사실적이고 서정적으로 스케치하는 양상이며, 냉전의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드리겠어요?”

하고 시름없이 말합니다. 어머니도 언짢아 하시며,

“그럼 어떡허나? 정말 시골루 가시나?” 하고 물었습니다.

“일가가 있는 시골루 가야지 어떡허우. 나 혼자 대구에서 무슨 경황으로 살아가겠어요.”

일섭 어머니는 옆에 우뚝하니 개를 안고 서 있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야, 바둑이 잘 길러라. 바둑이 커다래지건 내 또 보러오마.”했습니다.

“일섭이네 아주머니.”

나는 그만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옆집에서 우렁찬 만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섭 아저씨 친구들이 일섭아저씨 응소(應召)를 축하하여 모여 온 것이라 합니다.

“만세 만세”

일섭어머니도 우리 바둑이의 붕대 감은 앞발을 두어 번 들어 보이며 송내를 내었습니다.

“만세.만세-.”²³⁸⁾

‘책임 있는 사회의 지도급 인사들이 슬슬 다 도망치고 국민보고만 싸우라고 한 형국’이었던 국가부재의 상황에서, 지배계층이 아닌 당시 일반 민중의 정서는 인민군과 국군 어느 쪽으로 징집되더라도 그것이 몇몇한 일은 아니었다. 그저 도망가서 일신의 삶을 도모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로 여겨졌던 것이다.²³⁹⁾ 그런 점에서 억세고 사나운 성격이던 일섭 어머니가 아들의 징집 소식에 한순간 풀이 꺾여 피억압자였던 자야가 울음을 터뜨리게 될 정도로 애처로운 모양이 되고 마는 것은 당시 민중의 솔직한 정서를 표현한 것이라면, 응소를 축하하는 우렁찬 ‘만세’ 소리는 실제 현실에 맞지 않는 왜곡이라

238) 장덕조, ‘바둑이’, 《소년세계》, 1953. 8월호.

239) 홍사중, ‘국민방위군 사건’, 『전환기의 내막』, 조선일보사, 1982. 김동춘, 앞의 책에서 재인용. 96쪽.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된 수만 명이 간부들의 돈 착복으로 전투에 제대로 참가도 못하고 질병과 추위로 죽었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국가에 대해 분노를 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쟁 상황에서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도 장정으로 끌려간 것이 몹시 주변머리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야릇한 부끄러움이 있었다고 한다.”

하겠다. 설령 현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해도, 민심의 자연스러운 표현이 아닌 또 다른 압제의 결과일 뿐인 것이다. 그리고 결말의 갑작스러운 반전은 어린이 독자에게 혼란을 준다. 무력한 어머니의 정서에 한껏 공감하게 해놓고 갑작스럽게 ‘만세’를 부르며 축하하는 상황으로 결론을 맺으니 말이다.

이 작품은 징집을 응소(應召)로 표현하는 데서 은연중 자발성을 강조하는 국가주의 시각을 느낄 수 있다. 자연인으로서 또 어머니로서 필자는 전개 과정에 진실한 정서를 투여하였으나, 아들을 군에 보내며 삶의 의미를 상실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려 보이는 것은 종군작가단 소속 작가로서 이윤배반적인지라 쉽게 왜곡된 상황을 만들며 사태를 종결시켰다고 하겠다. 작가 스스로의 내면 검열이 작품의 내적 질서를 파탄에 이르게 한 셈이다. 이처럼, 한국전쟁에 관한 국가의 ‘공식적 담론’에 대한 작가의 자발적 내면 검열과 왜곡된 의식을 발견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방기환 등 50년대 사회를 배경으로 어린이 생활 현실을 그린 작가는 많지만 대부분 세태 묘사에 그쳤고, 이원수의 「푸른 길」이나 이주홍의 「비 오는 들창」 등 주인공의 생활과 내면을 밀도 있게 그린 작품도 있지만 대체로 시대성을 반영하는데 미흡했다.

아동문학인 가운데 비판적 사회의식을 가진 작가로 흔히 이원수, 이주홍, 마해송이 거론되어 왔다. 그런데 이원수는 6·25때 피난을 가지 않고 시설접수위원으로서 인민군에 협력을 하였고, 국군이 서울 탈환을 하였을 때 최병화와 함께 북쪽으로 피신을 가다가 1·4후퇴 때 되돌아왔다. 그 후 영국군 부대에서 노무자 생활을 하다가 서울 잔류에 관해 자수를 하게 되었는데, 김영일, 김팔봉 등의 도움으로 다행히 무사할 수 있었지만 일생 동안 일년에 한번씩 형사의 방문을 받았야 했다.²⁴⁰⁾ 이런 형편이었기에 50년대 내내 이원수는 현실 비판은커녕 현실을 사실주의 기법으로 그리는 소설조차 별로 창작하지 않았고, 환상 기법의 동화 창작에 몰두하였다.

240) 아동문학인 유경환의 증언. 2005. 8.

카프 활동 전력이 있는 이주홍은 전쟁 이전에 부산으로 내려가 수산대학교(현재 부경대학교)에 몸담고 창작활동에만 몰두하였다. 그러나 과거 시간으로 회귀(「아름다운 고향」하거나, 관념적 이상향으로서(시간이 정지된)의 농촌 또는 고향 공간을 무대로 삼거나(「곰방대」 「피리 부는 아이들」), ‘전통’이라는 초월적 시공간(「가자미와 복장이」)에 머물거나, 대중적 흥미성을 추구(『후라이 대감의 모험』)하는 등으로, 작가로서 역사적 정치적 현실로부터 일정하게 비켜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비해 마해송은 『모래알 고금』, 「꽃씨와 눈사람」 등 정치 사회적 비판의식을 50년대에 조금도 위축됨 없이 견지함을 볼 수 있다. ‘반공주의’가 사회적 지배이데올로기인 사회에서 그는 반공주의의 맨 앞자리에 서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상대적으로 더욱 당당히 발화할 수 있는 ‘언어권력’ 가지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그의 정치 사회적 비판은 반공, 친미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전쟁 직후의 현실을 헤쳐 나가는 소년의 삶을 그린 박화목의 아동소설 『밤을 걷어가는 아이』에서 “공산군이 침략 전쟁을 일으킨 것은 몇 사람의 나쁜 지도자들 때문이고 저 많은 군인에게는 죄가 없다.”²⁴¹⁾는, 인민군 병사에 대한 당시로서는 드문 견해가 보여 주목된다. 그러나 그 또한 미국인 목사에 의한 발화이며, “나는 요사이 수효가 부쩍 늘어가는 공산군 포로들에게,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서 그 마음을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로 맺어짐을 볼 때, 결국은 기독교를 믿음으로써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종교 이데올로기에 포섭된 담론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세태 소설은 사상 유래 없이 넘쳐났지만 반공, 친미, 극우, 보수, 전체주의의 틀에서 벗어난 작품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즉 아동문학에서 전쟁에 관한 ‘공식적 담론’은 유래없이 넘쳤지만, 원치

241) 박화목, 『밤을 걷어가는 아이』, 을유문화사, 1962. 155쪽.

않은 전쟁에 휩쓸려 남과 북의 양쪽 정권으로부터 번갈아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입어야 했던 수많은 개개인, 특히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인 어린이의 전쟁 체험은 깨어진 거울 조각 같은 파편으로밖에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

3) 환상과 상징의 세계

전쟁 이전부터 아동문학만을 창작해왔던 전문 아동문학인들은, 전쟁 직후 약속이나 한 듯 ‘동화’ 장르를 창작하였다. 아동소설은 ‘있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그리는 만큼 어린이의 외면적 부분- 세계와의 관계성에 그 축이 놓이는 반면, 동화는 어린이의 내면적인 부분- 정신세계 또는 무의식과 대화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런 면에서 전쟁 직후에 전문 아동문학인들이 일제히 환상적이고 상징적인 기법의 ‘동화’를 창작한 점과, 그들 대부분이 시인이거나 종교인으로서 초자아(Super-ego)가 발달된 성향임이 주목된다. 또한 이러한 특성은 아동문학인들이 ‘세계의 폭력성’에 무방비로 노출된 어린이 내면을 본능적으로 보호하고자 한 측면이자, 일정한 완충장치를 그들 자신이 통해 폭력적 현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자 한 이중적 측면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연령이 어릴수록 ‘사실적인 설명들’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체험이 적고 추상적 이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산주의니 민주주의니 해박야 어린이가 전쟁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며, 어린이가 현재 자신의 지식과 정서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만이 그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동화작가들은 ‘어린이가 세계에 대해 생각하고 경험하는’ 방식²⁴²⁾인 환상과 상징 기법을 통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주관적으로 전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였던 것이다.

242) 브루노 베텔하임, 김옥순, 주옥 옮김, 『옛이야기의 매력 1』, 시공주니어, 1998. 79쪽.
옛이야기의 이러한 환상성, 상징성을 현대 동화도 이어 받았다.

어린 병정은 두 눈을 떴습니다.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니다.

달은 산넘에 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린 병정 식이는 옆에 누운 병정에게 지금 진달래와 나비가 된 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달이 지자, 어둠을 타고 또 실골고지(高地)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린 병정 식이는 그 새벽 전투에서 전사하고 식이에게서 진달래와 나비의 꿈 이야기를 들은 병정은 한 쪽 팔을 다치었습니다. 한 쪽 팔을 다친 병정은 상이군인이 되어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중략)

나비는 정다운 듯 허무러진 돌담 밖을 너울너울 춤추면서 돕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핑그를 눈물이 고이자, 어청어청 걸어가더니 돌담 밖을 도는 흰나비를 따라 식아! 식아! 흐느끼며 돌담을 흰 나비를 따라 돕니다.

이번에는 어느 새 꺾어 왔는지 한 아름 진달래를 가슴에 안고 온 이쁜이가, 식이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 집 물독에 진달래를 담그고 이쁜이도 어머니와 함께 흰 나비를 잡으려고 식아! 식아! 돌담을 돕니다.

흰 나비는 못들은 척 전쟁에 무너진 고향집 돌담을 자꾸만 너울너울 돌았습니니다.²⁴³⁾

전쟁이 일어나게 된 정치 사회적인 배경 설명은 어린이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안 되며,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은 어린이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그런데 동화를 읽으며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는 독서활동을 통해 독자는 전쟁이란 ‘어린 병정’이 죽고 또 누군가는 ‘상이군인’이 되는 무서운 일이며, 그리운 고향과 그리운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가 없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간접 체험하게 된다. 또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어린 병정의 마음과,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던 어머니의 마음에 공감하는 가운데, 전쟁의 비극성을 느끼게 된다.

전쟁에 관한 국가의 공식적 관점과 다른 견해가 발생하는 것은 이 지점이다. 간접화법의 동화에서는 전쟁 ‘현실’을 응시하지만, 북한과 공산주의를 타

243) 김요섭, 나비를 잡는 마을, 『소년세계』, 1954. 4. 14~15쪽.

도의 대상으로 묘사한 경우는 없었다. 적개심과 증오심을 고취하는 일도 당연히 없으며, 전쟁이라는 현실의 거대한 폭력아래서 무력하기만 한 개별 생명들의 비극적 운명을 주시하는 양상이다.

특히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민족 전체를, 힘없는 개개인을 응시하며 역사 현실을 작품으로 표현한 작가는 김요섭이다.

이년전에 자기와 함께 있던 칠성이란 사병의 편지를 대신 써서 고향 어머니에게 부쳐준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편지였습니다.

크라리넬을 부는 청년이 한쪽 눈을 다치던 전투에서, 칠성이란 사병도 다른 병정들과 함께 전사를 하였습니다. 분명 할머니가 그 전사한 사병 칠성이 어머니였습니다. 크라리넬을 부는 청년은 피로워서 더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의 아들 칠성이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는, 아무말도 못하고 다시 힐끗 머리맡 자기가 써 준 편지를 보며 판자집을 나왔습니다. 244)

잔디밭 교실의 학생은 함경도서, 평안도서, 강원도서, 황해도서, 그리고 서울서, 충청도서, 전라도서 남쪽 바다 섬에 전쟁을 피해 온 학생들입니다. (중략) 함경도 아이바우는 자기가 그린 지도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우리 고향 함경도는 눈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눈 오는 지도가 되어서 하얗게 그렸어요. 그리고 내가 피난 오던 때는 눈이 오고 눈보라치고 했습니다. 눈 오는 하얀 지도를 그려놓으니까 이내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눈 속에 떨고 있는 함경도서 남쪽 섬까지 울며 걸어 온 내 발자국이 선하지 않아요. 저 발자국 따라 다시 가면 우리 고향 있겠지요.”

여기까지 말하는데 선생님의 눈이 눈물에 흠뻑 젖어버리는 것을 보자 바우의 두눈에도 핑그르 눈물이 돌며 목이 파악 막혀왔습니다.

(중략)

“누구야! 누구야! 삼팔선 그린 놈.”

아이들은 떠들썩하였습니다. 누가 그려 놓았는지 지도 한 복판 허리를 금이 주욱

244) 김요섭, 『깊은 밤 별들이 울리는 중』, 백영사, 1958. 105쪽.

그어져 나갔습니다.

지금 삼팔선에서 죽은 어머니의 무덤을 찾는다든 아이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아찔한 생각으로 섰습니다. 아이 하나의 손길이 어느새 철석 소리를 내며 삼팔선 가에 섰는 아이를 내 갈겼습니다.

아이는 후들후들 지도 밖으로 나가 쓰러졌습니다. 맞은 아이도 때린 아이도 두 눈에는 영문 모를 눈물이 흘러 고였읍니다. 한참만에 두 아이는 약속이나 한 듯 들어서 삼팔선 금을 아무 말 없이 지워버렸습니다. 245)

「고향의 나비」, 「종이집」, 「흰꽃」, 「달 뜰 무렵」 등 많은 작품에서 김요섭은 한국 전쟁을 주제로 삼았고, 전쟁에 관한 국가의 ‘공식적 입장’과 다른 성격의 담론을 생성하였다. 교과서 매체와 반공문학이 일방적 담론을 주도하고, 사실주의 기법의 아동소설이 한국전쟁에 관한 공식적이지 않은 어떤 견해도 표현하지 못했던 때에, 간접 화법으로나마 약자의 고통과 현실의 왜곡을 독자에게 끊임없이 환기시킨 점은 적지 않은 의의를 갖는다. 당장 현실을 바꿀 힘이 없는 어린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르며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분별하게 하고 올바른 지향하게 하는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 현실은커녕 아직 자기 앞의 현실조차 정면으로 바라보고 맞설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은, 환상을 통해 내면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고 내적 힘을 기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기 이원수 동화에 가득한 상처와 고통은, 전쟁 과정에서 얻은 어린이 내면의 상처를 외부화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부여했으리라 본다.

훈이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저 달나라에 가서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누나더러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나, 우리 엄만 달나라에 가셨다지?”

“그럼, 달나라에 계실 게다.”

245) 김요섭, 위의 책, 220~230쪽.

“누나, 우리도 달나라에 가서 엄마 좀 만나 볼 수 없어?”
영이는 동생의 하는 말에 가없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 달나라엘 갈 수가 있어야지. 꿈에나 간다면 몰라도…….”
(중략)
두 아이는 자꾸 날아갑니다.
이윽고 화안한 달나라에 닿았습니다.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어느 조그만 집 문을 열고 어머니가 달려 나왔습니다.
영이와 훈이는 달음박질하여 뛰어가며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아.”
“어머니.”
어머니는 달려드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오오! 우리 아기들! 잘 왔다. 난 너희들이 보구 싶어 혼났다.”
“어머니! 우리도 어머니가 보구 싶어 죽을 뻔했어요.”²⁴⁶⁾

전후 사회에는 죽음이 만연했다. 집과 가족을 잃은 어린이도 많았고, 반대로 어린이를 잃은 가정도 많았다. 이원수의 50년대 동화에는 이러한 죽음과 파괴의 이미지, 깊은 죄의식과 불안 등 전쟁의 비극과 고통이 은유적, 상징적인 형태로 가득 담겨있다. 어머니를 잃은 아이들은 이 동화를 보며,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달나라의 어머니를 만났을 것이다. 환상을 통해 욕망을 마음껏 충족함으로써 현실의 결핍감과 고통을 이겨낼 힘을 얻기도 했을 것이다. 미학적 측면에서 이원수의 50년대 동화들이 작품성이 높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진실로 어린이와 함께 호흡하고 아파하며 어린이의 고통을 표현한 시기는 50년대였다. 그는 1·4 후퇴 때 세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이듬해 장녀는 찾았으나 4세 상옥과 3세 용화는 끝내 찾지 못하였다. 그 때문에 50년대 동화에는 옥이와 용화들이 수없이 등장하며, 그들 대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안아주고 어루만져주는 부정(父情)의 고통스러운 변주가 가

246) 이원수, 달나라의 어머니, 『소년세계』, 1954. 5월호. 25쪽.

득하다. 이원수는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었지만, 전쟁의 원인과 책임을 북한과 공산주의에 돌리는 발언은 한 적이 없었다. 50년대 내내 정치 사회적 현실에 대해 침묵을 지키다, 4·19 이후 억눌려 있던 감정을 붓물처럼 터뜨리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하고자 하는 말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주의 기법의 아동소설이 아닌, 환상과 상징 기법의 동화작품에서 그나마 국가의 공식적 태도와 다른 종류의 담론들이 생성되었음을 볼 수 있으나, 억압에 비해 발화는 너무도 미미한 양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한국아동문학과 반공주의

문학은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 환경 속에서 썩트고 자라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당대 정신을 반영하게 되며, 그에 알맞은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일제 강점기에 특정 독자로서 ‘어린이’를 의식하고 창작하기 시작한 데서 한국 현대아동문학 시대가 열렸는데, 식민지라 언어를 억압당한 상황이었기에 민족 정서를 반영하는 애상적 동요가 초기 문학의 주도적 장르였다. 노랫말에 개인적 표현의 욕구가 더해지면서 노래(謠)는 차츰 시(詩)가 되고자 하였고, 30년대 이후에는 동시가 아동문학의 주도 장르가 되었다. 그러다 해방과 함께 오래 억눌렸던 한민족의 정신이 자유롭게 터져 나오며 산문 문학, 소설도 그렇지만 특히 좌우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비평 담론이 일시에 팽창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런데 전쟁과 분단으로 남북한 정치권력이 중앙집권적으로 강화되었고, 문학 정신도 각 체제가 허용하는 이념의 범주 안에서 표현될 수밖에 없었다. 북한 체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하지만, 남한 체제 역시 자유민주주의를 보장한 것이 아니라 반공주의만을 허용하였기에, 남한의 아동문

학 역시 자유로운 정신을 마음껏 꽃피우지 못하고 특정한 경향과 특정한 색채로 단순화되고 굴절되었던 것이다.

전쟁과 함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각종 매체에 등장한 ‘반공주의’는 외세 침탈의 연장선상에 있는 한민족 역사의 징표이자, 한번도 그들의 인권을 주목한 적이 없었던 한국 사회가 약자인 어린이를 한점 배려 없이 타자화(他者化)한 증거이며, 특정인들의 지속적인 ‘상징적 지배’를 위한 ‘상징폭력’의 일종이기도 했다. 247) 부르디외에 따르면 상징적 지배는 정당한 것으로 인식되는 ‘오인의 구조’를 통해서만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50년대의 반공 교육과 반공 문학은 오인의 구조를 어린이 집단의 아비투스 안에 최초로 구조화하였던 셈이다. 이후에도 반공 이데올로기는 지속적인 문화적 상징화 과정을 거치며 특정인들에 의한 효율적 사회 통제 장치로 기능해 왔고, 2005년 현재까지도 색깔론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은 반공주의가 한국인의 집단무의식에 얼마나 깊이 내면화 되어 있는지 보여준다. 248)

그렇다면 반공주의가 한국 아동문학에는 어떻게 영향하였는지 찾아보면, 비판력의 억제와 이로 인한 비평 담론의 미숙성을 들 수 있다. 법적 제도적 물리적 힘으로 작용하는 반공 이데올로기의 위력은 허용된 틀 속에서의 사고를 강제하였는데, 인적 구성원 가운데 주로 교원이 많았던 아동문학인 그

247) 피에르 부르디외,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 앞의 책, 51쪽, 73쪽.

“상징적 지배’는 외적 압력에의 수동적인 복종도, 지배적인 가치의 자발적 선택도 아닌 일종의 공모를 전제로 한다. 공식언어의 정당성에 대한 인정, 그것은 종종 점진적이고 암묵적이며 감지할 수 없는 주입과정을 통해 성향(dispositions)속에- 보다 정확하게는 아비투스(habitus: 취향)속에 새겨진다.”

“상징폭력 개념은 일종의 공모, ‘지식 없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모, 이러한 인정을 통해 그리고 그것에 의해 지배가 유지된다고 보고 있다. 교육 체계는,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 모두 교육적 행위를 ‘정당한 권위’로 인정할 때만 지배관계를 재생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상징적 지배(그리고 이와 더불어 상징적 지배가 부분을 이루고 있는 폭넓은 지배관계들)의 재생산은, 지배적인 언어를 가지지 못한 화자가 자신의 박탈에 공모하고 지배적 언어를 ‘정당한’ 것으로 수용한다는 점을 전제한다.”

248) 「점점 더 빨개지는 한나라당 색깔론」, 『한겨레』, 2005, 12. 18.

“한나라당 ‘사립학교법 무효투쟁 및 우리아이 지키기 운동본부’의 본부장인 이규택 최고위원이 18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강행처리의 배경에 청와대와 국회 등에 침투한 친북·좌경 핵심세력이 있다”고 주장해, 색깔론에 기댄 한나라당의 사학법 투쟁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롭은 체제 순응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어서 침묵을 지키는 풍토가 오래 지속 되었다. 비평적 환경이 미비한 상황에서 좌파적 경향의 작가나 작품은 90년대에 이르도록 연구나 비평 대상으로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옥석이 구분되지 않는 가운데 문단에는 주례사 비평이 점차 만연하였으며, 여러 잡지에서 함부로 신인을 배출하면서 패거리 문화를 이루는 부작용을 낳아왔다.

4·19 이후 그나마 이원수가 가장 활발한 비평 활동을 하였지만, 누구의 어떤 글을 지칭하는 것인지 또는 어떤 상황을 지적하는 것인지 정확히 언급하지 않고 두루뭉술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문단 내부의 이해관계자가 아니면 전모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이러한 글쓰기 방식 또한 반공주의로 인한 내면 검열의 결과로 해석된다. 이원수는 여러 지면에 아동문학과 아동문학인들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비판하였는데, 분명 그러한 문제적 풍토가 있긴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항상 ‘그들’의 문제로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점이 눈에 띈다.

이오덕의 등장은 한국 아동문학 비평사상 혁명적 의의를 가진다. 한국 전쟁 이후 처음으로 확고하게 계급적 소외계층 어린이의 삶을 주시하며 옹호하고, 역사와 현실을 외면한 채 관념의 세계에 빠져 있는 아동문학계를 매섭게 질타하며, 아동문학 발전을 위한 길항 담론을 구축한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작가 작품의 일부 흠결을 부각시켜 가차 없이 비판한 반면, 자신의 논리를 드러내는데 적절치 않은 동일 작가의 다양한 면모들은 일시에 소거시켜버리는 언술의 폭력성이 지나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화법의 기저에는 언제나 ‘너’ 또는 ‘그들’은 그르고 ‘나’는 옳다는 확고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대상 작가의 문학이 지닌 빛과 어둠을 함께 드러내기보다, 대상은 언제나 어두운 곳에 나는 언제나 밝은 자리에 위치시키는 단절의 태도가 발견된다.

또한 아동문학의 장(場)에 위치한 다양한 구성원들끼리, 다른 경향의 문학

을 추구하는 그룹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적대적 타자로 인식하고 ‘동심천사주의’ ‘계급주의’ 심지어 ‘빨갱이’ 등의 추상적 상(像)을 씌워 공격하거나, 아예 논의와 평가의 대상에서 배제해온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다양한 영혼의 자발적 표현인 문학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위적으로 억압하고 특정 색채의 문학만을 부각시키고자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들은, 성찰적 태도나 이성적 대화와 소통의 문화가 부재한 아동문학계의 상대적 미성숙함을 보여주는 징표이자, 아동문학 권력장(場)의 중심부 진입을 둘러싼 일종의 투쟁양상이기도 하였다.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 데는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관련 문화가 전반적으로 소외된 현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보다 본질적인 면에서 전쟁으로 인해 국민의 심성에 새겨진 양가치적 사고의 습성과, 구체적 개인을 추상화시켜 인격을 제거함으로써 가차 없이 신랄할 수 있었던 역사적 학습이 크게 영향하였다고 생각된다.

정치 사회 현실 문제에 관한 비판은 커녕 어떤 견해를 갖는 것조차 좌시되어온 문화적 풍토는, 한국 아동문학의 몰 역사성, 사회의식의 결여를 촉진시켰다. 독자 대상이 어린이인 만큼 아동문학 작가들 심성 역시 어린이에 보다 가깝고, 그들처럼 주관적 상상적 세계에 머물게 될 여지가 많지만, 작가 자신은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현실 시공간을 객관적으로 인식해야만 한다. 그러나 많은 아동문학인들이 통일된 이념에 안존한 채, 몰 역사적 주관적 세계에 빠져 있음을 보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신이 발 딛고 서 있는 물질 토대에 대한 주시와 관심의 표명이 일반문학의 당연한 전제라면, 아동문학계에서 특수한 사례로 근래까지도 이단시되는 풍토이다.

의식의 한계는 필연적으로 작품의 제약을 가져와, 시대 현실을 문학적으로 꿰뚫히 그려낸 아동소설의 결실이 드물었고, 현실 전복적인 환상동화 역시 자유롭게 꽃피우지 못한 채, 어린이의 한정된 일상사를 드러낸 생활동화나 관념 편향적이고 회고주의적인 작품이 양산되었다. 그런 가운데 권정생의

『몽실언니』를 비롯하여 한국 아동문학의 시금석이 되는 작품들이 탄생되기도 하였지만, 많은 작가들이 시대의 한계를 깨뜨리고 아동문학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정신적 모험을 하기보다는, 용인된 사고의 틀 안에서 잘 빛은 소품을 만들어내는 정도에 머무른 면이 있다.

한편 외국 동화에 비해 유난히 두드러지는 한국 동화의 이상성(理想性)과 정신주의 경향도 한국전쟁 및 반공주의와 깊은 관련이 있다. 죽음과 폭력, 부패 등 온갖 범죄로 만연한 50년대 현실은 동시대인에게 죄의식을 불러일으켰다. 249) 미처 피어보지도 못한 어린 생명들이 이유도 모른 채 일상적으로 희생되는 현실은 이주훈²⁵⁰⁾, 이원수, 김요섭 등의 환상 동화 속에서 고통과 죄의식으로 드러나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참되고 아름다운 것, 영원한 가치에 대한 지극한 동경과 염원이 한국 아동문학의 한 특질로 자리 잡게 되었다. 소수에 불과했던 동화작가 대부분이 종교인이자 시인이었기에 정신성을 지향하는 초자아적 성향- 도덕적 성찰 및 이상성에의 회구가 외국 동화와 다른 한국 동화의 한 특질로 자리 잡게 되었고, 정채봉의 『오세암』과 같은 작품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한국 동화의 정신주의 경향과 사색적 성향은 어린이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 현실에서 비롯된 고유한 현상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가 하면 반공이 너무나 정당하기에 독자나 문학성은 조금도 개의치 않았던 반공문학의 전통은, 이슈 중심적 아동문학관으로 쉽게 이어졌다. ‘교육’ ‘가난’ ‘역사’ ‘장애’ ‘성차별’ ‘왕따’ 문제 등 시대에 따라 내세우는 이슈는 달라졌지만, 어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다루었다는 이유로 어린이 내면의 진정한 기쁨이나 문학적 완성도에 관계없는 책들이 어린이들에게 끊

249) 김윤식, 『한국현대문학사』, 일지사, 1976. 45쪽.

“6.25전쟁의 정신사적 문제와 관련하여 동족끼리의 살육이 불가피했던 까닭으로 6.25 전쟁이 제기될 때는 깊은 죄의식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었다.”

250) 1959년에 발표된 이주훈의 「물아이」는 순결한 어린영혼을 학살하는 세계의 폭력성과 비극성을 고통스럽고도 뛰어나게 형상화하였다.

임없이 권해졌다. 그러나 명분이 어떠한 타인을 대상화하는 태도에는 이데올로기가 감추어져 있기 마련이고, 성숙할수록 타인의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 조심하게 된다는 점을 환기하게 된다. 사회적 약자 가운데 여성, 장애인 관련 담론 및 인식은 상대적으로 많이 진전되었으나, 어린이는 개별 가정의 보호막 아래 아직도 어른의 타자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제 V 장 결 론

이 논문은 “1950년대 동화· 아동소설”을 반공주의 규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전쟁과 분단은 현대 한국과 한국인을 만든 기원적 사건이었고, 1950년대는 세계 어떤 나라의 아동문학과도 다른 한국 아동문학의 특성을 형성한 시공간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과서, 잡지, 단행본 매체를 검토하여, 아동문학에 반공주의가 어떻게 주어지고 어떤 양상으로 전개해 갔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았다. 여태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예비적 고찰 첫 번째로, 1950년대 아동현실을 먼저 검토하였다. 이 시기에는 전쟁과 피난 등으로 희생당한 어린이와 고아, 기아, 미아 등 요보호 아동이 대량으로 발생한 반면 50년대 내내 아동복지법은 전무하였다. 전쟁 피해 어린이들이 고통을 겪는 가운데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과열된 자녀교육 열기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러한 현상이 함축하는 바를 짚어보았다.

두 번째로, 한국에서 반공주의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역사적 물리적 환경 속에서 알아보았다. 전쟁 이전에도 위로부터 반공주의가 주어졌으나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한국전쟁을 계기로 남한 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로 자리 잡게 되는 양상과, 사회 통제 원리로 발전해가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세 번째로 교육정책과 교과서를 검토하여 반공 정책과 반공 교육의 실체를 확인하였다. 전쟁 발발로 교육이 일시 마비되었으나, 곧 전시교재를 발행하여 즉각적이고 전면적 반공교육을 실시하였다. 50년대 문교정책 및 장학방침의 맨 첫 머리에 ‘반공’이 놓여 있었고, 국가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교육을 통제하였음이 확인된다. 전시교재는 전 단락이 전쟁 관련 내용으로 채워졌는데, 북한을 ‘악마’ ‘꼭두각시’ 등으로 인격을 제거함으로써 적개심을 고취하였고, ‘자유’ ‘평화’ 등 추상적 거대담론으로 어린이들의 전쟁참여를 독려했다. 50년대에 어린이들은 교과서를 통해 미국과 유엔군에 감사와 우호의 감정을 가지도

록 제도적으로 교육되었고, 일관된 국가주의와 전체주의 관점을 주입 받았다. 그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각종 반공 행사 등이 자발적으로 실천되어, 50년대에 이미 어린이 일상 깊숙이 반공주의가 자리 잡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장에서는 아동문학과 반공주의의 상관성을 알아보았다. 전쟁 직후 일반 소설가들이 대거 아동문학을 창작하였는데, 이들이 모두 사실주의 기법의 아동소설만을 창작한 반면 전문 아동문학인들은 ‘환상’과 ‘희망’을 특질로 하는 동화 창작에 몰두하는 특징을 발견하여 그 의미를 해명해보았다. 아울러 50년대 아동문학 문단의 통속화, 상업화 경향의 원인을 짚어보았고, 반공주의로 인한 사유의 억압과 비판력의 상실이 아동문학의 성격 또한 근원적으로 제약함을 밝혔다.

이어서 매체별 반공의 규율 양상과 특성을 알아보았다. 『소년세계』, 『새벗』, 『파랑새』, 『학원』 등의 어린이 대상 잡지 매체를 검토하여 반공주의 작품만을 추출해본 결과, 종군작가단 소속의 소설가들에 의해 반공 아동소설이 맨 처음 창작되었음이 확인되었다. 50년대 전체 반공문학의 3분의 2 이상이 전쟁기에 발표된 점은 반공문학의 목적적, 임의적 성격임을 확인시켜 주었으나, 휴전 이후에는 월남 아동문학인을 비롯하여 전문 아동문학인들에 의해 반공담론이 지속적으로 확산됨을 알 수 있었다. 작품의 양상과 특성을 분석해본 결과, 작가 자신의 개별적 전쟁 체험을 극대화하여 일반화시키는 공통점을 보였고, 한국전쟁에 관한 국민들의 다양한 입장 가운데 기득권계층의 관점만을 대변하는 양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행본 현황을 검토해본 결과, 상업성을 지향하는 책들이 한정된 공간을 잠식함으로써 순수 창작물의 성장이 저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고, 반공의 정당성이 5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 시대적 분위기와 결합하여 통속화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단행본 가운데 50년대의 대표 작가이자 뚜렷한 반공주의 입장을 보인 마해송, 강소천의 작품을 고찰해본 결과, 개별적 공산주의 체험을 일반화시킨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고, 강소천의 경우 종교적 신념에

서 기인한 반공주의임을 밝힐 수 있었다.

4장에서는 반공주의와 1950년대 아동문학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본 결과를, 반공체험의 즉자적 수용 작품, 일상 세태의 피상적 묘사 작품, 환상과 상징을 통해 주제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작품, 현실 도피적이고 자의적인 작품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반공주의’가 전쟁에 관한 국가의 공식적 입장이었고 다른 종류의 체험은 발화할 수 없었기에, 한국전쟁에 관한 어린이들의 체험 역시 아동문학으로 정직하게 표현되지 못하였고, 50년대 아동문학은 현실 회피적이고 굴절된 양상으로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아동문학사와 반공주의를 현재적 관점에서 짚어보았다. 문학은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싹트고 자라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당대 정신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전쟁과 분단이라는 한반도의 특수한 현실은 한국 아동문학을 세계 어느 나라와도 다른 특수한 성격으로 형성시켰는데, 그 원형적 시공간이라 할 수 있는 50년대 아동문학 현황을 매체별로 실증적 탐구를 하였다는 데 이 논문의 의의가 있다. 이로써 한국 사회의 성격과, 한국 아동문학의 고유성을 다소나마 해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다만 본 논문은 남한의 50년대 아동문학만을 대상으로 탐구하였기에, 북한 체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아동문학이 따로 연구될 때, 보다 온전한 균형과 전체성을 갖추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기본자료

- 『소년세계』 1952.8 - 1956. 10. (40권)
『새벗』 1957. 1 - 1959. 12. (32권)
『과랑새』 1952. 9 -1953. 2. (6권)
『학원』 1953. 1 - 1956. 12 일부(7권)
『아동문학』 (조선아동문학가동맹 아동문학기관지). 1947.
『아동문화』, 동지사아동원, 1948.
『새동무』 1946-48.
『동아일보』 『경향신문』 50년대 발행본
『조선일보 소년판』 『소년소녀 자유신문』 『주간 소년태양』 등 아동판

2. 교과서

- 문교부, 초등국어, (6-1, 2-1, 6-2, 5-1), 1948.
문교부, 초등국어, (1학년- 6학년 전체 12권), 1949.
문교부, 초등국어, (4-2), 1950.
문교부, 전시생활 1-1 비행기, 1951.
문교부, 전시생활 2-2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1951.
문교부, 전시생활 3-1 우리나라와 국제연합, 1951.
문교부, 전시생활 2-2 국군과 유엔군은 어떻게 싸워왔나?, 1951.
문교부, 전시생활 3-3 우리도 싸운다, 1951.
문교부, 겨울공부용 전시독본, 1951.
문교부, 공산주의하의 북한, 1951.
문교부,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자유와 인권, 1951.
문교부, 민주주의와 평화 공산주의와 전쟁, 1951.

문교부, 국어, (6-1, 5-1), 1951.
 문교부, 국어, (2-2(대한문교서적), 2-2(자유인쇄공사), 6-1, 6-2, 6-3, 5-2, 5-3), 1952.
 문교부, 국어, (3-2, 4-1, 5-1, 6-1, 6-2), 1953.
 문교부, 국어, (2-1, 3-2, 4-2, 5-1, 5-2), 1954.
 문교부, 국어, (3-1, 4-1, 4-2, 5-1, 5-2, 6-1), 1955.
 국민학교 도의 독본, 『착한생활』 4학년. 1955.
 문교부, 국어, (3-2, 4-1, 4-2, 5-1, 6-2), 1956.
 문교부, 국어, (3-1, 5-1, 5-2), 1957.
 문교부, 국어, (4-1, 5-2, 6-1), 1958.
 문교부, 국어, (2-2, 3-2, 5-2, 6-2), 1959.

3. 동화 · 아동소설집

강소천, 『조그만 사진첩』, 다이제스트사, 1952.
 강소천, 『진달래와 철쭉』, 다이제스트사, 1953.
 강소천, 『꽃신』, 한국교육문화협회, 1953.
 강소천 · 최태호, 『어린이문학독본』, 문화교육출판사, 1954.
 강소천, 『해바라기 피는 마을』, 대경당, 1956.
 강소천, 『꾸러기와 몽당연필』, 새글집, 1959.
 강소천, 『아동문학선집』, 배영사, 1963.
 강소천, 『그리운 메아리』, 문운당, 1981.
 김영일, 『푸른동산의 아이들』, 계진문화사, 1963.
 김요섭, 『깊은 밤 별들이 울리는 중』, 백영사, 1957.
 김요섭, 『오 멀고 먼 나라여』, 청록문화사, 1959.
 마해송, 『모래알고금』, 우리교육, 1999.
 마해송, 『앙그리께』, 가톨릭출판사, 1959
 박경중, 『노래하는 꽃』, 소년화보사, 1959.
 박경중, 『아동문학선집』, 세종문화사, 1978.

박화목, 『밤을 걸어가는 아이』, 정음사, 1954.
 이원수, 『이원수 아동문학전집』 (전30권), 웅진출판, 1984.
 이주홍, 『아름다운 고향』, 남향문화사, 1954.
 이주홍, 『비오는 들창』, 현대사, 1955.
 이주홍, 『풍금 속 나라』, 교학사, 1965.
 한국문인협회, 『신문학 60년 대표작전집』, 정음사, 1968.
 한국문인협회, 『광복 30년문학전집』, 정음사, 1975.

4. 평문 및 논문

강혜경, 『한국경찰의 형성과 성격 (1945-53)』, 숙명여대 박사, 2002.
 권오삼, 『아동문학평론』, 1997, 여름호.
 김관식, 「민족동질성을 지향하는 분단극복의 문학」, 『아동문학평론』, 1991, 가을호.
 김남수, 「1950년대 국민학교·중학교에서의 반공교육」,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3.
 김동리, 「전쟁과 문학의 근본문제」, 『협동』 35호, 1952.
 김명남, 『아동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정책경영대학원, 석사, 2001.
 김성완, 『박홍근 동시의 상상력 연구』, 교원대 석사, 1997.
 김송, 「決戰下의 片想」, 新潮, Vol.1(1951. 6)
 김재규, 『마해송 동화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 1982.
 김재창, 「통일에 대비한 아동문학」, 『아동문학평론』, 1997, 여름호.
 김종민, 「제주 4·3 항쟁, 대규모 민중학살의 진상」, 『역사비평』, 1998, 봄.
 김팔봉, 「전쟁문학의 방향」, 『전선문학』 3호, 1953.
 남미영, 『강소천 연구』, 숙명여대, 1980,
 노천명, 「군신송(軍神頌)」, 『매일신보 사진판』
 박계주, 『학원』 2권 1호, 1953.

- 박용현, 『초등학교교과서에 반영된 통일 · 반공교육의 변천과정분석연구』, 국토통일
원, 1978.
- 박화목, 「兒童文學雜考」, 『연합신문』, 1953.
- 서석규, 「어린이현장과 어깨동무 학교」, 『강소천 선생 40주기 기념 추모의 글모음』,
교학사, 2003.
- 서울특별시 시립부녀보호지도소, 『윤락여성에 관한 연구보고서』, 1966.
- 원종찬, 「해방 전후의 민족현실과 마해송」, 마해송탄생 100주년 세미나 발제원고, 2005.
- 윤종주, 「해방후 우리나라 인구변동의 사회사적 의의」, 『인구문제논집』, 역사비평
사, 1998.
- 윤혜미, 「국내입양과 해외입양 :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개선방안」, 『동국논집』, 1995.
- 이관후, 『국가형성기의 한국 민족주의; 한국전쟁과 통치 이념의 변화- 일민주의에서
반공주의로』 서강대 대학원 석사, 2003.
- 이원수, 「편집을 마치고」, 『소년세계』 1952.
- 이원수, 「童話와 兒童文學과 成人」, 『동아일보』, 1955.
- 이원수, 「아동문학과 저속성」, 『대한일보』 1956.
- 이원수, 「소년운동의 문학적 형태」, 『문예』, 1956.
- 이원수, 「아동문학의 방향」, 『아동문학』, 1963. 7.
- 이원수, 『아동문학』 1964, 12월호.
- 이원수, 「소년운동의 문학적 형태」, 『문예』, Vol.2, No.6. 1959
- 이원수, 「나의 문학 나의 청춘」, 『월간문학』, 1974. 2.
- 이윤희, 『분단제재 동화의 유형연구』, 중앙대 문예창작대학원 석사, 1999.
- 이임하, 「1950년대 여성의 삶과 사회적 담론」, 성균관대대학원 박사, 2003.
- 이정석, 『한국전후소설의 담론연구』, 숭실대대학원 박사, 2003.
- 이혜주, 『김요섭 동화 연구』, 서강대 교육대학원 석사, 1997.
- 이장현 「윤리의 사회학」, 『세대』, 1968, 11월호.
- 이재철, 『아동문학평론』, 62호.

- 이재철, 『한국 현대 아동문학사 연구』, 단국대 박사논문, 1978.
- 이주홍, 「아동문학은 진진하고 있는가」, 『아동문학』 6집, 1962,
- 전순남, 「가정의 형태적 결손 및 기능적 결손과 아동의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청주
교육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 정선혜, 『한국 기독교 아동문학 연구』, 성신여대 박사, 2001.
- 정인택, 「애독자가 좋아하는 시인 소설가와의 좌담회」, 『소학생』. Vol.71. 1949.
- 정춘자, 『이주홍 연구』, 단국대 석사, 1990
- 정태범, 「미군정기 및 교수 요목기의 교과 과정과 교과용 도서 편찬」, 『한국편수사
연구1』,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0
- 제해만, 「통일지향의 아동문학」, 『아동문학평론』, 1994, 가을호.
- 中村修, 『이원수 동화연구』, 인하대 석사, 1993)
- 채의진 편저, 『아! 통한 44년』, 문경양민학살 피학살자유족회, 1994.
- 채찬석, 『이원수 동화 연구』, 숭실대, 1986
- 최영복 외, 「한국교과서 목록 작성 및 그 수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 연구소,
1998,
- 최요안, 「작품경향의 검토」(하), 『경향신문』, 1951.
- 최용, 「분단시대의 아동문학」, 『아동문학평론』, 1987, 가을호.
- 최원규, 「외국민간원조단체의 활동과 한국사회사업 발전에 미친 영향」 서울대학교대
학원 박사, 1995.
- 최정희, 「피난대구문단」, 『해방문학20년』
- 최지훈, 「휴전선, 그 흥부 놀부의 박」, 『아동문학평론』, 1994, 가을호.
- 崔台鎬, 「나의 編修局 시절」, 『編修의 뒤안 길』 제2집, 한국교육과정 · 교과서연구회,
1955,
- 한정동, 「아동문학의 현상」, 『동아일보』, 1955.
- 허명섭, 『해방 이후 한국교회의 재형성 ; 1945~1960』, 서울신학대 대학원 박사,
2004.

허형만, 「민족통일과 아동문학」, 『아동문학평론』, 1994, 가을호.

홍용선, 『우리나라의 교과서 변천사』,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교과서 목록 (개화기-1963), 1990,

5. 단행본

강인철, 박명립, 장상환, 정성호,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2002.

강준만, 『희생양과 죄의식』, 개마고원, 2004.

강진호, 『탈분단시대의 문학논리』, 새미, 2001.

강진호, 『현대소설사와 근대성의 아포리아』, 소명, 2004.

김정렬, 『김정렬 회고록』, 을유문화사, 1993.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0.

김우중, 『한국현대소설사』, 성문각, 1989.

김정의, 『한국의 소년운동』, 혜안, 1999.

김현식, 『색깔논쟁』, 새로운 사람들, 2003.

권혁범, 「내 몸 속의 반공주의 회로와 권력」, 『우리 안의 파시즘』, 삼인, 2000.

마해송, 『아름다운 새벽』, 문학과 지성사, 2003.

마단 사립의 지음, 임현규 편역, 『테리다와 푸꼬,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인간사랑, 1993.

맥긴 외, 『한국의 교육과 경제발전』, 한국개발연구소, 1980.

미셸 푸코 지음, 박정자 옮김,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동문선, 1997.

브루노 베텔하임, 김옥순, 주옥 옮김. 『옛이야기의 매력 1』, 시공주니어, 1998.

서울신문사편, 『주한미군 50년』, 행림출판사, 1975.

서울사회과학연구소, 『근대성의 경계를 찾아서』, 새길, 1997.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하)』, 역사비평사, 1999.

- 서중석,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역사문제연구소편, 역사비평사, 1998.
- 신영덕, 『한국전쟁과 종군작가』, 국학자료원, 2002.
- 윤석중 아동연구소, 『내가 겪은 이번 전쟁』, 1953.
- 이경섭, 한국현대교육과정사 연구(상), 교육과학사, 1997,
- 이승만, 『일민주의개술』, 일민주의출판회, 1956.
- 이정식, 권기봉 역, 『초대대통령 이승만의 청년시절』, 동아일보사, 2002.
- 이재오, 『해방 후 한국 학생운동사』, 형성사, 1984.
- 이재철, 『세계아동문학사전』, 계몽사, 1989.
- 이재철, 『한국 현대 아동문학사』, 일지사.
- 조현연, 『한국현대정치의 악몽- 국가폭력』, 책세상, 2000.
- 주경철, 『역사의 기억, 역사의 상상』, 문학과지성사, 2000.
- 피에르 부르디외, 정일준 옮김,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 새물결, 1997.
- 최태호, 『리터영 할아버지』, 아동문예사, 1987.
- 한국문인협회편, 『해방문학20년』, 정음사, 1996.
- 한국교육문화협회편, 『한국교육과 민족정신』, 문교사, 1953.
- 한국교육십년사간행회, 『한국교육십년사』, 풍문사, 1960.
- 한영옥, 『한국현대시의 의식탐구』, 새미, 1999.
- Althusser, L., Position, Edition Sociale, 1972, 김동수 역, 『아미앵에서의 주장』, 숲, 1991. pp.115-21.
- Aries, Philippe, Centuries of Childhood : A Social History of Family Life, Trans. R. Baidick. Vatage Books, 1962.
- Derrida, J., De La Grammatologie, Minuit, 1969, 김성도 옮김, 『그라마톨로지』, 민음사, 1996. pp.95-97.
- Erik E. Erikson. 윤진 · 김인경 옮김, 『아동기와 사회』 중앙적성출판사, 1995.
- Foucault, Michel, 1975, 오생근 옮김,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사, 1994.
- John Stephens, Language and ideology in children's fiction, London and New york;

Longman. 1992.

Maslow, A. H. Toward a psychology of being(2nd. ed.). New York: Harper and Row.1968.

Nodelman, Perry, The Pleasures of children's Literature, Publishers USA; Longman. 1992.

ABSTRACT

A Study on Creative Fairytale • Children's Novels in the 1950s

-Focused on Anti-Communism-

Sun, An Na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correlation between regulations of anti-Communism and children's literature focusing on children's prosaic literature in the 1950s. Children's novels in the 1950s have not been studied separately yet, and it is difficult to find out critical mind on anti-Communism. This researcher checked the real conditions how anti-Communism was expressed, and analyzed the meanings by reviewing the first data of textbooks, magazines and separate volumes out of every kind of media children met with in the 1950s.

In the late of the 1940s, the Korean Peninsula suffered from small wars because of ideological conflict between the leftists and the rightists, and each ideology and belief was expressed actively even in the field of children's literature. As Korean War broke out, however,

writers chose either the structure of South Korea or that of North Korea and ideology was united. Because of the war, anti-Communism became the dominant ideology in South Korea and the government did not allow any viewpoint other than "anti-Communism", the official stance on the war.

During the war, the government securing the centralized power inspired children around the country with hatred and hostility against North Korea and Communism by publishing textbooks about the war. Korean War was provoked by North Korea first, but Lee Seung-man, President of South Korea at that time, also kept jingoistic stance like North Korea. Thus, the two Koreas had to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the war. However, laying the responsibility for the war on North Korea and all sufferings on a people, Lee Seung-man who seized power successfully expanded "anti-Communism" and intended to set it as a stepping-stone for his constant rule.

Textbooks, institutional media of government, were the most effective in implanting anti-Communism in unconsciousness of children, "the future nation". Considerable contents of hostile anti-Communism printed in the textbooks during the war were recorded again in regular textbooks, and "anti-Communism morality" education were conducted separately placing anti-Communism on the first head of educational policies in the 1950s. In addition, anti-Communism education was practiced in schools and classrooms.

It was not unilateral education by command of the government, but vivid education by experience in the war. Thanks to active practice by educators, anti-communism took firm root in daily life around the late of the 1950s.

Through a consideration on magazines children read, it was identified that a group of writers under the service of the army organized immediately after the war was over wrote anti-Communism novels for the first time, and anti-Communism was spread constantly by writers who came from North Korea and writers with belief of anti-Communism. Anti-Communism literature was created as "ideological arms" under the war. So it was not considerate of development of children' body and mind and specialty of children's literature, and described the army of North Korea as the subject of overthrow based on ambilateral idea to regard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s evil and good. "Anti-communism", the external part of works, was so just that the inner theory of works was neglected easily. In addition, a principle that anti-Communism is everything was united with popular entertainment around the middle of the 1950s. However, the number of separated volumes about anti-Communism was small relatively. That was because writers under the service of the army did not write purpose novels any longer after the suspension. Besides, writings were very ideological but they were insufficient in literary attributes, so they could be rarely published as a book.

Anti-Communism which took firm root as the dominant ideology in North Korea after Korean War grew into a tool to repress the weak functioning as the principle of social control in accordance with adherence of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t first, it was given from the upper part by the political ruling class. As it was spread into daily life deeply through law, institution and culture, however, it became an effective measure to control "commotions" and "disorder" easily in every field referring to the national security whenever necessary. Aspects of children's literature coping with anti-Communism in the 1950s were divided into four types: a type of accepting instantly experience of anti-Communism, a type of stressing description of post-ideological social conditions, a type of intending for the fantastic and symbolical world, and a type of writing voluntary and escapist works. Writers under the service of the army and writers who came from North Korea showed spontaneous anti-Communism, while leftist writers created discussion away from politics, history and realities. A series of movements was discovered that writers stared "individuals" who were suffering not seeing them from totalitarian viewpoints, and expressed their inner side in behalf of them in fairy tales using fantastic techniques.

During Korean War, a people experienced war differently depending on their status and position, but people, who had the same memory to the government's official memory about war, such as the elite - mainly intellectuals and culture persons- generalized and mythicized

their own special experience. On the other hand, the masses who had different experience from the elite could not express their own experience even if they were damaged by the both governments of North and South which caused the war.

There were many writers who spoke winner's ideology, but there were few writers who stared an individual with life-especially, children-, not abstract "people", and expressed their life, desire, pain, existence. In this respect, it could be said that children's novels in the 1950s showed the vestige of the distorted times just as it was.